

북한방문 길라잡이



이 책은 북한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입니다.

최종 수정판을 내면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발전해 나가면서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되었고, 이렇게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북한의 사정도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북한을 방문하는 분들은 좀 더 실질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분들의 원만한 방북활동을 위해 올바른 안내책자를 제공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원은 이러한 필요를 다소나마 충족시키고자 그동안 방북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온 「북한방문 길라잡이」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손질하여 이번에 다시 최종 수정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수정판 역시 북한방문의 준비부터 귀환까지의 일련의 과정과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고,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실제로 마주칠 수 있는 문제와 그 해법을 안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북한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아가 남북관계를 이어가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5년 5월

통 일 교 육 원 장

C O N T E N T S

제1장 방북자를 위한 북한상식

1. 개 황 / 3
2. 행정구역 / 4
3. 북한의 권력기구 / 5

북한의 권력체계도 • 조선노동당 • 행정기관

4. 입법기관 및 사법기관 / 8
5. 북한의 명절과 기념일 / 9

제2장 북한방문 준비

1. 북한주민 접촉 신청 / 17
2. 북한방문 절차 / 19

북한방문 신청 • 북한방문 승인과 안내교육 • 방북결과 보고

3. 북측의 초청장 발급 문제 / 24
4. 북한방문 짐꾸리기 / 28

돈 준비 • 복장과 휴대품 • 선물 준비

제3장 북한으로 가는 길

1. 제3국(중국)을 경유하는 경우 / 37

북측의 비자 발급 문제 • 북경 ↔ 평양 항공편의 이용
입북수속 • 평양 시내로의 이동

2. 남북한 직통로를 이용하는 경우 / 56
3. 반출 · 입 제한 품목 / 57

한국 · 북한

북한방문 길라잡이

제4장 방북활동 : 평양을 중심으로

1. 일정의 점검과 환전 / 65

일정의 점검 · 방북 일정의 예:인도적 지원의 경우 · 북한의 화폐와 환율

2. 숙 소 / 71

고려호텔 · 양각도 국제호텔 · 보통강호텔 · 서산호텔 · 양강호텔
청년호텔 · 평양호텔 · 기타 숙소

3. 북한의 음식과 술 / 78

북한의 음식 · 북한의 술 · 주요 식당

4. 백화점과 상점의 이용 / 90

백화점 · 호텔 내 상점

5. 교통 · 통신의 이용 / 94

교통편의 이용 · 전화 · 팩스 등의 이용

6. 여가활용과 종교활동 / 101

여가 활용 · 종교 활동

7. 의료시설의 이용 / 108

제5장 북한에서 가 볼 만한 곳

1. 평양지역 / 113

2. 남포지역 / 124

3. 개성지역 / 128

4. 백두산 / 132

5. 묘향산 / 138

6. 금강산 / 144

C O N T E N T S

제6장 방북활동 중의 유의사항

1. 방북자의 기본 자세 / 151
2. 방북활동 중의 유의사항 / 153

호칭 문제 · 만수대와 만경대에서 · 숙소에서 · 식사나 술자리에서
오락시설에서 · 상점 · 호텔 등에서 돈을 지불할 때 · 차 안에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 안내원과의 관계

3. 대규모 방북시 유의사항 / 165

제7장 북한방문 마무리

1. 귀환 준비 / 169

방북활동의 정리 · 평가 · 귀환시 유의할 점

2. 북한방문 마무리 / 171

북한방문증명서의 반납과 방북결과보고서 제출 · 귀환 인사

부 록

- 〈부록 1〉 북한 지도 · 평양 시가도 / 174
〈부록 2〉 북한 관련 주요 인터넷 주소 / 178
〈부록 3〉 남북한 생활용어 비교 / 180

북한방문 길라잡이

〈북한상식〉

- 설 / 10
- 북한의 '애국가'와 국화 / 13
- 주체 연호 / 13
- 북한의 학기 / 13
- 대학진학 / 14
- 풍산개 / 24
- 족보 / 30
- 담배 / 34
- 휴가제도 / 38
- 우표 / 60
- 5대 혁명가극 / 60
- 보천보 전자악단 · 왕재산 경음악단 / 61
- 안경 / 66
- 미인상 / 75
- 연애와 결혼 / 77
- 이혼 / 78
- 생일 · 회갑 / 80
- 김정일은 전주 김씨 / 82
- 신분증 / 84
- 단고기 / 87
- 택시 / 95
- 지역감정 / 99
- 쌍둥이와 아기 이름 / 100
- 전자오락과 노래방 / 104
- 목욕탕과 이발소 / 105
- 독특한 우리식 머리이름 / 106
- 영화 · 영화관 · 불가사리 / 109
- 대중가요와 노래 경연대회 / 110
- 북한의 '오렌지족' / 115
- 김일성 · 김정일 뱃지 / 126
- 주패놀이 / 131
- 북한의 소설 문학과 베스트셀러 / 144
- 표준말(문화어) / 155
- 바둑 / 155
- 운전면허 / 159
- 아이들의 놀이문화 / 164
- 고려의학 / 171

C O N T E N T S

〈알아두기〉

- 통일부 유관부서 전화번호 / 23
-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유의할 점 / 33
- 북한 비자 발급 신청서류 및 중국내 북한 영사관 / 39
- 중국 비자 받을 때 유의할 점 / 39
- 주중 한국 대사관 · 영사관 연락처 / 41
- 국내 항공사 예약부 전화번호 / 42
- 북한 고려항공 연락처 / 42
- 비행기 탈 때 주의할 점 / 44
- 기내 용어(북한 말) / 45
- 면세점의 이용 / 46
- 방북 중 여권 · 비자 등의 관리 / 65
- 호텔 비즈니스 센터 / 72
- 팁과 빨래 / 72
- 식사예절 / 89
- 기념품사기 / 92
- 공중전화 / 98
- 국제친선전람관 방문 시 유의사항 / 139
- 산행할 때 유의할 점 / 142
- 방북 중의 음주 / 157
- 필름 및 카메라용 건전지의 구입 / 161
- 안내원과의 대화 요령 / 163



An aerial photograph of a city, likely Seoul, showing a wide river (the Han River) with a large bridge (the Gyeongui-daero Bridge) crossing it. The city skyline is visible in the background under a hazy sky. A large number '1' is centered in a black square frame in the upper middle of the image.

1

방북자를 위한 북한상식

- 1. 개 황 / 3
-
- 2. 행정구역 / 4
-
- 3. 북한의 권력기구 / 5
-
- 4. 입법기관 및 사법기관 / 8
-
- 5. 북한의 명절과 기념일 / 9



1 개 황

공식대외명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	
인 구	23,149천명*	2001년 기준
자연환경	면 적	122,762km ²
	국 경	1,377.2km (중국 접경 : 1,360km/러시아 접경 : 17.2km)
	해 안 선	2,495km
	지 형	東高 西低**
행 정 구 역	2직할시 9도 1특급시 25시 148군	2005년 기준
정 치	정권수립	1948.9.9
	정 당	'조선로동당' 1당 지도체제
	내 각	34개 부서 (2위원회, 28성, 1원, 1은행, 2국)
	대의기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687명, 임기 5년)
외 교 수 교 국	155개국	2005년 2월 기준
군 사 병 력	117만여명 (육군 100만여명, 해군 6만여명, 공군 11만여명) 2004년 12월 기준 (국방부)	
경 제	예 산 규 모	122.1억달러 2004년 기준 (통일부 추정액)
	명목GNI	184억달러 2003년 기준 (한국은행)
	1인당 GNI	818달러 2003년 기준 (한국은행)
	환 율	1\$ = 145원
	무 역	총액 : 23.9억달러 (수출 : 7.8억달러, 수입 : 16.1억달러)
	무역액/명목GNI	13.0%

* 출처 : 2004년판 『조선중앙연감』

** 북한의 지형은 백두대간의 낭림산맥이 북에서 남으로 뻗어내려 기본 뼈대를 이루고 있다. 여기 강남, 적유령, 묘향, 언진, 멸약산맥 등이 서쪽으로 펼쳐지고, 함경남북도에 걸쳐 함경, 부전령산맥이 낭림산맥과 이어져 동고서저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2 행정구역

가. 행정구역도



나. 행정구역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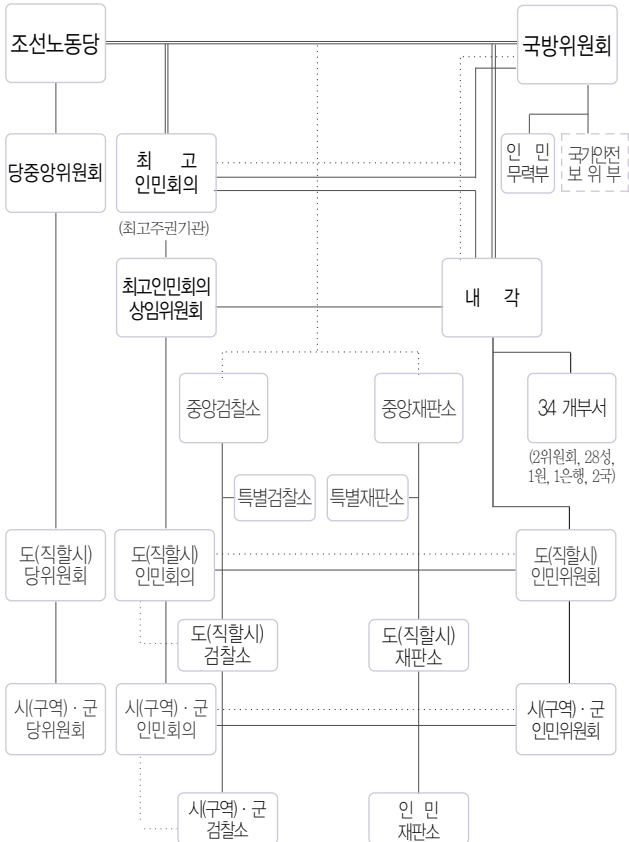
해 방 당 시	2005년
도	도 (직할시)
군 (시)	군 (시·구역·구·지구)
읍·면 / 리·동	리 (읍·동·노동자구)
6도 9시 89군	2직할시 9도 1특급시 25시 148군

※ 남한 : 2004.7 현재 1특별시 6광역시 9도 77시 88군 69자치구 22일반구

3 북한의 권력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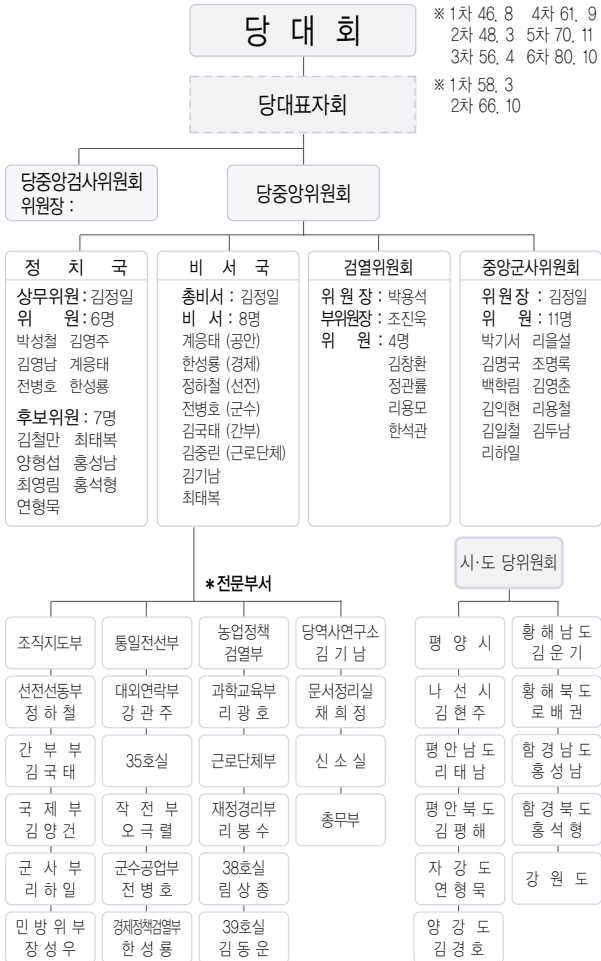
— 당의 영도
 — 기본지도 체계선
 선 출

가. 북한의 권력체계도



※ 자료 : 통일부 정보분석국, 2005, 2.

나. 조선노동당



다. 행정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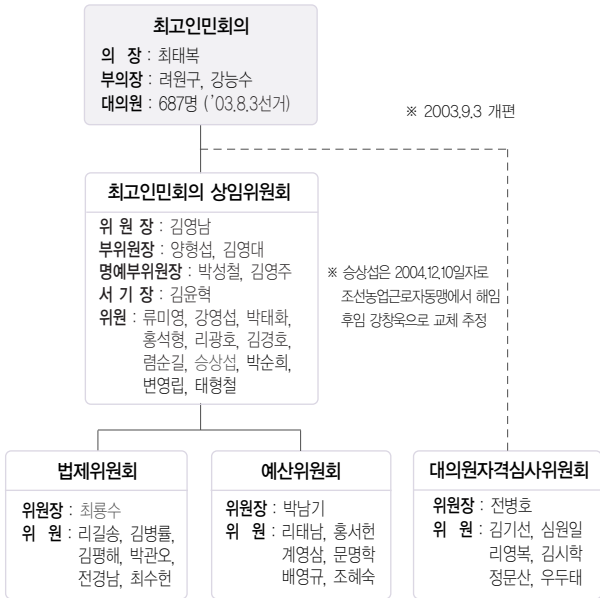


※ 최룡수는 2004.7.9일자로 인민보안상에서 해임

※ 조윤희는 2005.1.11 사망

4 입법기관 및 사법기관

가. 입법기관



나. 사법기관



5 북한의 명절과 기념일

북한의 명절은 대체로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북한에서 나라와 민족의 융성, 발전에 매우 의의 깊고 경사스러운 날로 지정한 경우, 둘째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배려에 의해 사회의 일정한 부문이나 인민 경제의 한 부문에서 경축하는 기념일, 셋째 국제 노동계급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념일, 마지막으로 전통 민속명절 등이다.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은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다. 북한의 기관, 단체 등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전국 규모의 행사를 치른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은 지난 1972년 그의 회갑을 계기로 '민족 최대의 명절'로 지정됐으며, 공휴일(2일)이다. 한편 북한에서는 김주석 사망 3주기 때인 지난 1997년 7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 '태양절'로 격상되었으며, 이와 함께 그의 출생년도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연호를 사용토록 하였다.

김일성 주석 생일에 버금가는 명절로는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 있다. 지난 1995년 '민족 최대의 명절'로 격상되어 김일성 주석의 생일 행사에 버금가는 대규모의 행사로 치러지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 부자의 생일과 함께 해방기념일(8.15), 정권창건일(9.9), 조선노동당 창건일(10.10) 등도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중요한 명절이다.

두번째 부류에 속하는 기념일로는 식수절, 농업근로자절, 어부절, 철도절, 건설자절, 포병절, 탄부절, 임업근로자절, 공군

절, 해군절, 청년절, 도시경영절, 광부절, 방직공업절, 육해운절, 화학공업절 등이 있다.

세번째 부류에는 국제부녀절, 국제노동자절, 국제아동절 등이 속한다.

마지막으로 민속명절에는 음력설, 단오, 추석 등이 있다. 민속명절은 지난 1988년 추석을 시작으로 부활했으며 휴무일로 정해져 있다.

북한방문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일정을 짜기에 앞서 북한의 명절이 언제이고, 주요 행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나 사망일(7.8),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 그리고 정권 창건일, 조선노동당 창건일 등의 행사가 있을 경우 북측에서는 전국 단위의 기념행사가 마련되기 때문에 업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상식

북한상식

설

북한에서 음력설은 낡은 봉건시대의 잔재로 여겨 명절로 여겨지지 않았다. 1980년대 말 휴무일로 지정되어 양력설과 함께 쇠든다.



설날 아침이면 당과 행정 조직에서 기관, 기업소, 공장의 책임간부들과 그 외 열성당원들이 김일성 동상에 꽃바구니를 올리는 행사를 진행한다.

〈북한의 국가명절 및 민속명절〉

명 칭	구	분	비 고
	국가명절	민속명절	
설 날		1.1	2일 연휴
음 력 설 날		1.1(음)	
정 월 대 보름		1.15(음)	
김정일 생일	2.16		2일 연휴
국 제 부 녀 절	3. 8		
김일성 생일	4.15		2일 연휴
조선인민군 창건일	4.25		
국제노동자절	5. 1		
수리날(단오)		5.5(음)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	7.27		
해 방 기 념 일	8.15		
한가위(추석)		8.15(음)	2일 연휴
정 권 창 건 일	9. 9		
노동당창건일	10.10		
헌 법 절	12.27		
계	10회	5회	총15회, 19일 휴무

〈북한의 기념일〉

기	년	일	일	자	
건	재	공	업	절	1. 8
무		역		절	1. 28
기		계		절	2. 20
식		수		절	3. 2
농	업	근	로	자	3. 5
어		부		절	3. 22
보		건		절	4. 5
체		신		절	4. 8
탄		부		절	4. 24
철		도		절	5. 11
지	질	탐	사	절	5. 15
건	설	자		절	5. 21
국	제	아	동	절	6. 1
해		군		절	6. 5
소	년	단	창	단	6. 6
지	방	공	업	절	6. 7
포		병		절	6. 20
선	박	공	업	절	6. 23
광		부		절	7. 1
육	해	근	운	절	7. 24
임	업	로	자	절	8. 10
공		군		절	8. 20
청		년		절	8. 28
도	시	경	영	절	9. 5
교		육		절	9. 5
상		업		절	9. 15
피	복	공	업	절	9. 20
전		기		절	9. 24
금	속	노	동	자	10. 9
방		송		절	10. 14
체		육		절	10월 둘째 일요일
방	직	공	업	절	10. 15
출		판		절	11. 1
화	학	공	업	절	12. 6
총기념일수				34개	

북한의 '애국가'와 국화

북한에서는 1947년 김일성의 지도 아래 박세영이 작사하고 김원균이 작곡했다는 '애국가'를 국가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와는 전혀 다른 노래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모든 행사에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사실상 국가처럼 불러왔고 김정일 체제 출범 후에는 이와 함께 김정일 장군의 노래를 국가처럼 불러오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 노래가 사실상의 국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국화를 진달래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991년 4월 10일 목란(木蘭)이라는 꽃을 국화로 지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목란은 본래 함박꽃 또는 산목련으로 알려져 있는 꽃이지만, 김일성 주석이 이 꽃을 함박꽃 대신 목란으로 부르면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

주체 연호

북한은 1997년 9월 소위 「주체」의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연도 표기와 표현에서는 주체의 연호를 서기 연호와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기와 함께 쓸 수 있는 각종 출판보도물, 문서, 증명서, 건축물, 상표, 우표 등에서도 반드시 주체연호를 앞세우고, 서기는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05년은 주체 94년이다.

북한의 학기

북한에서는 1969년 이후 “당면한 경제과업 완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수급을 원활히 한다”는 명목으로 9월 1일을 개학일로 변경하였으나, 1996년부터는 4월 1일로 환원하였다.

북한상식

북한상식

방학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각각 한 달과 두 달(8월과 1~2월)이다. 3월에 학년 말 시험을 치르고 약 10일 정도 휴식을 가진 후 4월 1일 새 학년도가 시작된다.

대학진학

중학교 6학년은 우리의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국가 판정시험(또는 예비시험)을 치루고 그 성적에 따라 각 대학별로 실시하는 입학시험을 볼 수 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곧바로 대학교에 진학하는 중학교 졸업자를 직통생이라고 한다.

대학정원의 30% 정도만 직통생에게 배정되고 직통생에 들지 못하는 학생들은 곧바로 군에 입대하거나 생산 현장에 배치되므로 자연히 재수는 있을 수 없다. 반면에 직통생은 사실상 군 입대가 면제된다. 그러므로 당연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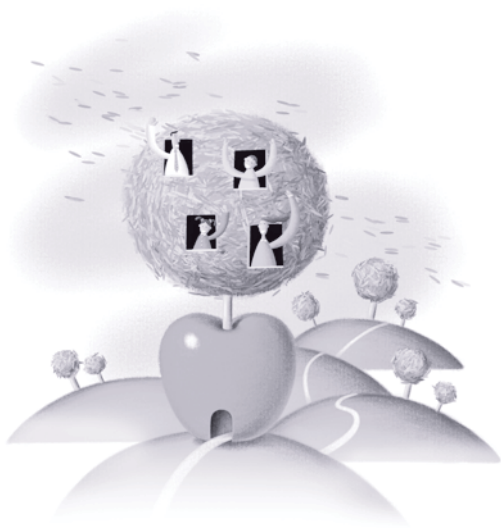
한편 남학생 진학자의 70%는 군제대자로 이루어져 있다. 군에 입대해 4년 정도 좋은 복무기록을 보여야 대학입학 추천서를 얻을 수 있다. 군제대자는 대체로 인문·사회계통의 학과에 입학하게 된다. 직통생보다는 대학입학이 상대적으로 쉽긴 하지만 군복무 성적이 뛰어나야 하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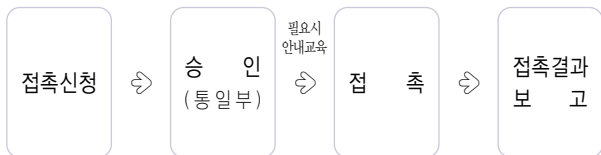
북한방문 준비

1. 북한주민 접촉 신청 / 17
2. 북한방문 절차 / 19
3. 북측의 초청장 발급 문제 / 24
4. 북한방문 짐꾸리기 / 28



1 북한주민 접촉신청

〈북한주민 접촉 신청 처리 절차〉



➔ 북한주민 접촉 신청서류

교역분야

- 북한주민접촉신청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회사소개서 · 중개인(상)소개서
- 사업소개서 · 북한회사소개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여타분야

- 북한주민접촉신청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남한 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

여기서 접촉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회합 또는 통신(전화, 우편, 인터넷, Fax, Telex, 전자우편 등) 혹은 제3자를 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접촉승인은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북한주민접촉 15일 전까지 접촉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통일부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 하게 된다. 신청은 인터넷 신청(<http://inter-korea.unikorea.go.kr>)을 원칙으로 한다.

북한주민 접촉승인 유효기간은 통상적으로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안에 따라 신축성 있게 결정되며, 승인 유효기간 내에는 승인받은 접촉 목적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접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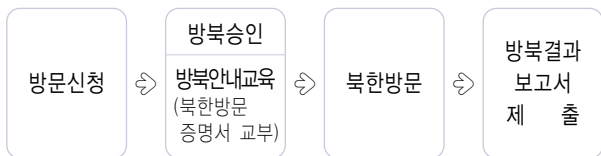
북한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속 접촉이 필요한 경우는 기간 만료 이전에 재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유효기간 내의 접촉이라 할지라도 승인 받은 목적을 벗어난 접촉을 할 경우나 신청인이 변경된 경우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북한주민을 접촉한 후에는 10일 이내에 통일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0일 이내에 접촉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신,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추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제행사에 참가한 남한 주민이 동 행사에서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외국에서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외국에서 가족인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교역을 위하여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 없이 북한주민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일단 접촉한 후 7일 이내에 접촉 사실을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면 사전에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2 북한방문 절차

〈북한방문 신청 처리 절차〉



➔ 북한방문 신청서류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
(최근 3개월내 촬영한 상반신 탈모, 3.5cm×4.5cm 규격)
- 신원진술서 1부
-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
-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 기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가. 북한방문 신청

북한측과의 접촉을 통해 북한 지역을 방문하기로 합의하고 북측으로부터 초청장을 입수한 경우 통일부에 북한방문 신청을 하게 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은 남북한 주민이 상대지역을 왕래하려면 통일부장관이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방문 신청은 인터넷 신청(<http://inter-korea>,

unikorea.go.kr)을 원칙으로 한다.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특히 유의할 것은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서류와 자료는 북한의 기관이 발행하는 초청장 등 신변안전보장 관련 서류를 의미하며, 정부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이 작성한 초청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초청장은 일반적으로 초청 목적, 초청 기관,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의 보장, 초청인(기관)의 서명·날인, 발급일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국민 중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3국에 소재하는 외국 법인 등에 취업하여 업무 수행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장에게 북한방문 신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

국내 체류 중에 북한방문이 필요할 때는 통일부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법은 북한 국적을 보유한 해외거주 동포도 여행증명서만 소지하면 우리 나라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남북 이산가족교류 신청 절차

(1)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 방문단 선정

재북 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를 원하는 이산가족은 통일부나 시·도의 이북5도 지방사무소나 대한적십자사 지사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군·구 협의회(시·군·구청에 사무실 있음) 등 전국 264개소의 이산가족 민원창구를 통하여 신청인의 사진(반명함판)이 부착된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국 민원창구에서 접수된 신청서는 대한적십자사 본사에 송부되며,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신청서를 취합하여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http://reunion.unikorea.go.kr>)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보존하고, 남북 당국간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 교류 대상자 선정시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이산가족교류 대상자 선정은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하여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인선위원회에서 이산가족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선기준을 수립하고, 컴퓨터 추첨 방식을 이용하여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생사·주소 확인자 명단 선정절차는 이산가족방문단 선정절차의 경우를 준용하고, 선정기준은 인선위원회에서 결정, 적용한다.

서신교환 및 면회소 상봉 대상자는 이미 생사가 확인된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인선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2)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접촉 신청

이산가족이 정부차원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재북가족을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접촉 15일 전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주민 접촉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는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서에 사진을 부착하고 접촉방법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우편 신청, 인터넷 신청이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는 통일부(이산가족과)에 제출하고 안내를 받아도 되며, 지방거주자는 전국 264개소의 민원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접촉승인서는 재북 가족과의 통신교류 및 제3국에서의 상봉을 승인하는 사항이므로 방북을 위하여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현재 이산가족의 북한주민접촉 승인 기간은 최장 5년으로 하고 있다.

나. 북한방문 승인과 안내교육

북한방문이 승인되면 북한방문 증명서가 발급된다. 북한방문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불허 이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 증명서 발급신청 처리기간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20일 이내이며, 개성공업지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특례에 따라 10일로 단축된다.

필요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북한방문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북한지역에 장기 체류할 필요가 있는 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수시 방북을 허가하는 수시방북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도 있다.

신규 방북자는 관계 규정에 의거하여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북한방문 안내교육을 받는다. 안내교육은 북한방문과 관련된 필요한 지식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북한방문자의 원활한 방북 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교육시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보통 4~8시간이며, 매주 화요일에 실시한다. 안내교육을 이수하면 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한다.

다. 방북결과 보고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오면 10일 이내에 통일부에 북한방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장 북한방문 마무리 참조]



알아두기

통일부 유관부서 전화번호

<교류협력국>

- 교류협력총괄과(720-2145) 남북교류협력 종합계획, 남북협력기금, 교류협력 법제도, 교류협력추진협회,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사업동향」
- 남북교역과(722-8911) 교역 관련 주민접촉 · 왕래 승인, 물자의 반출 · 입, 수송장비 운행, 통관 및 검역
- 남북경협1과(738-7776)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우편 · 전기통신 등 IT, 관광, 금융 · 보험 등
- 남북경협2과(725-3588)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 에너지 · 수자원 협력 등
- 남북협력기금과(725-2146) 남북협력기금운용, 결산, 기금지원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기관관련동향분석 및 통계유지
- 경험제도팀(3703-2454)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대책수립 등

<사회문화교류국>

- 사회문화총괄과(720-2373) 북한인권, 납북자, 국군포로 업무
- 사회문화교류과(3703-2460~3) 사회, 지자체, 정당, 교육 · 학술, 언론, 보건 · 복지, 노동, 문화 · 예술, 종교, 체육, 출판사업(자) 승인 · 물자반출입 승인 및 지원업무
- 지원기획과(720-2435) 대북 인도적지원업무
- 이산가족과(732-7950) 이산가족 관련 정책 · 제도, 납북역류자 · 국군포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면회소 설치 지원, 이산가족 접촉 · 왕래, 협력사업 승인, 이산가족 민원처리
- 정착지원과(720-2422)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 종합, 정착지원금, 직업훈련, 주거 · 취업알선, 생활 · 의료보호,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 경수로기획단(730-3241) 경수로사업 관련업무

※ 개성공단사업지원단(3703-7400)

3 북측의 초청장 발급문제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할 때에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하는 북측의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대외경제추진위원회(대경추),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등에서 초청장을 발급하고 있다.

발급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 걸린다.

북한상식

풍산개

남한의 진돗개에 비견되는 북한산 개는 풍산개이다. 풍산은 양강도의 개마고원 밑의 지방(지금의 지명은 김형권군)이다. 풍산개 역시 진돗개처럼 족보를 가지고 있다. 주인한테 충실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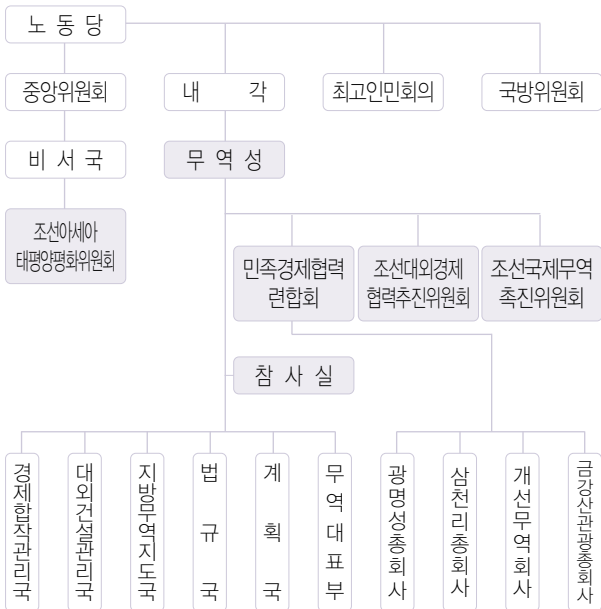


영리한 사냥개로 유명하다. 북한에서 천연기념물로 보호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TV화면이나 평양에 있는 동물원에서 구경할 수 있다. 6·15 정상회담 때 남북 정상은 진돗개 한 쌍(‘평화’와 ‘통일’)과 풍산개 한 쌍(‘우리’와 ‘두리’)을 선물로 주고 받기도 하였다.



〈북한의 초청장 및 내용〉

〈참고1〉 북한의 대외경제관련 기구



*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참고 2〉 북한의 초청장 발급기관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 성격

- 1994년 김용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를 위원장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산하 조직으로 북경 지역에서 사회문화, 체육분야의 사업을 주로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 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다.
- 이들은 북경을 수시로 방문하여 활동하며, 북경에 상설 사무소와 인원을 두고 있지는 않다.

○ 주요 업무

- 한국의 경제지원 유치
- 이산가족 상봉, 예술단 초청 등 사회·문화·체육 사업과 관련 행사 마련
- 언론인이나 학계 인사 초청 등과 관련된 대남접촉

【민족경제협력연합회】

○ 성격

- 과거 북한 정무원 대외경제위원회 산하기구로 중국 지역에서 대남경협문제를 사실상 전담해 왔으며, 1998년 5월 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개칭하였다.
- 금강산관광총회사, 삼천리총회사, 광명성총회사, 개선무역총회사, 고려상업은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압록강무역회사, 대동강무역회사, 남산무역회사 등 12개 지방무역회사를 두고 있다.

○ 구 성

- 광명성총회사 : 피복, 경공업, 농수산물 등을 취급
- 삼천리총회사 : 전자, 중공업, 화학 분야 및 개성공단 사업 담당
- 개선무역총회사 : 주방설비, 한약재, 일반상품의 교역
- 금강산국제관광총회사 : 금강산 관광사업 담당

○ 단동 대표부

- 주소 : 中國 遼寧省 丹東市 振興區 11經路 鴨綠江飯店 300號
- 전화 : 212-7328, 7338(변동 가능)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 성 격

- 무역성 산하 기구로 외국과의 경제분야협력, 특히 경제무역지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외국의 투자 및 상담 업무를 주로 담당했으며, 최근 발표한 신의주 행정특구도 이 기구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북경 해외대표부를 통해 투자 상담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1998년 이후로 남측 기업의 방문 및 투자는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북경대표부

- 주소 : 北京市 崇門區 長青圓 7號 二段 美景龍壇APT 507號
- 전화 : 6713-0245, 6711-5359(변동 가능)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 성격

- 1998년 6월 북한이 8·15대축전 제의에 앞서 북한의 정계, 사회·문화계, 종교계 등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이며, 북측이 주장하는 바 '온 민족의 접촉·대화과 연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구성

- 민화협은 회장(김영대)과 부회장, 위원, 실장, 참사 등을 두고 있다.

○ 현재 사회문화교류의 경우 대부분의 초청장을 민화협이 발급하고 있다.

4 북한방문 짐꾸리기

가. 돈 준비

북한을 방문할 때 어느 정도의 돈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기본적으로 숙식비와 체류 중의 이동비 및 활동비가 필요하다. 보통 방북 중에 한 두 번의 식사 대접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하여 약간의 여윳돈을 준비한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는 달러를 기준으로 대략 아래와 같이 예시해 볼 수 있다.

기본 경비(예시)

• 서울 - 북경 왕복 항공료	270\$~550\$
• 북경 - 평양 왕복 항공료	300\$~400\$
• 심양 - 평양 왕복 항공료	200\$
• 공항사용료(순안공항)	10유로
• 북경 1박	100\$ 정도
• 북한 입국사증	45\$
• 평양 1박	100\$ 정도
※ 고려호텔 3등실 트윈	110\$
• 식사 끼니당	10\$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달러 결제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북한 조선무역은행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유통 및 결제수단으로 달러 대신 유로화 달러를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달러와 유로화를 미리미리 준비해 두도록 한다. 북한에서 달러를 유로화로 환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중국을 경유해 방북하게 되는 경우 인민폐, 달러, 유로화 달러 등 3종의 화폐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화폐를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한다. 여행경비 중 일부는 소액권으로 바꾸어 두는 것이 편리하다.

한편 북한에서는 우리 돈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한다. 고려호텔 등 일부 호텔과 만수대 창작사 등에서 일부 신용카드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 복장과 휴대품

만찬 등 공식행사 참석을 위해 정장차림의 옷을 한 두 벌 준비한다. 양복, 한복, 양장 등 각자 편리한 옷을 선택하면 된다.

또한 이동과 호텔 숙박, 관광 등을 위해 간편한 일상복과 실내복 등도 준비한다.

방북시 각자의 짐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책임져야 하므로 휴대품은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 화장품이나 책, 담배 등의 기호품, 평소 복용하는 약(고혈압, 당뇨약 등)과 일상 상비약(배탈, 두통, 감기, 멀미약, 특히 지사제 등)도 챙겨간다.

북한상식

족 보

북한에는 족보가 없다. 북한당국이 봉건시대의 잔재이며 종파주의라는 이유로 정권 초기부터 없애 버렸고, 새로 족보를 만드는 일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종친회 역시 사라졌고 집안의 뿌리나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 거의 없어, 자신의 본관이나 집안 내력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다. 호적도 1946년에 폐지되고 대신 공민증 제도가 도입되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본을 물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나이가 든 사람의 경우는 자기의 본을 00김씨, 00최씨라고 말을 한다. 물론 무슨 종파며 몇 대손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대답하지 못하며, 역사적으로 유명한 000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의 전압은 우리와 같은 220볼트이므로 전기 면도기, 모바일 건조기 등 전기용품도 휴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기공급이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전기용품은 가급적 건전지로 가동되는 것을 준비하고 충전기를 준비하거나 건전지를 충분히 가지고 간다.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를 휴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카메라에 고배율의 망원렌즈가 달린 것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다.(고배율의 카메라는 북한 반출입제한 품목*임) 카메라나 비디오 카메라에 필요한 필름과 테이프는 미리 넉넉히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휴대전화의 경우는 가급적 국내에 두고 가도록 한다.

그밖에 휴대용 물휴지, 모기약, 물과스, 녹차, 일회용 커피, 초콜렛, 껌, 사탕 등도 소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특히 식단이나 화장실에 비치된 휴지의 질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휴대하는 것이 좋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은 분실 우려가 있으므로 지참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짐은 전체적으로 여행용 가방 한 개 정도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비행기를 갈아타거나 짐을 찾을 때 매우 혼잡하므로 될 수 있으면 눈에 잘 띄는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 선물 준비

북한과 방북 일정 협의가 끝나고 방문기간이 확정되면 출발 전에 선물을 준비하게 된다.

선물은 예의를 갖춘다는 차원에서 가볍게 준비하되, 방북기관 또는 그 기관의 인원이 실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북한 반출입 금지·제한 품목은 p. 58 참조

그러나 지나친 고액의 선물이나 받는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선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영어로 된 무늬가 새겨진 옷, 태극기, 성조기 등이 그려져 있거나 대한민국이 새겨진 물건, 북한을 자극하는 문구가 들어있는 상품 등이 그 예이다. 책자, 비디오 테이프, 녹음 테이프 중에 북한 체제나 지도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잘 살펴본다.

선물은 상대의 지위에 따라 차등화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각종 옷감, 서류가방, 시계, 문구류(만년필 등 필기구와 학용품), 전자계산기, 넥타이, 의약품(기초의약품, 영양제 등), 면도기, 선글라스, 술이나 담배, 라이터, 속옷, 양말 등이 권할 만한 품목들이다. 여성에게는 화장품, 핸드백, 스타킹 등이 적합하다.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가족이나 친척 혹은 지인에게 줄 선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외화를 첫번째로 손꼽는다.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외화를 가지고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친지가 있는 경우 그동안 소중히 간직한 옛 사진이나 최근에 촬영한 가족사진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



알아두기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유의할 점

- ▶ 날개로 포장한다.
선물을 포장하여 전달하는 경우 선물을 하나의 포장으로 전달하기보다는 개별로 잘 포장하여 전달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기가 좋다.
- ▶ 정중하게, 전체적으로 전달한다.
선물을 전달할 때는 방문단의 정성을 모아서 북측 안내 대표 혹은 초청기관 대표 등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 선물은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개별적 선물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간혹 입던 옷을 벗어주거나 쓰던 화장품을 강제로 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받는 이의 입장에서 결코 유쾌한 일이 못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 여분의 선물을 준비한다
특히 처음 방문하는 경우는 예상 밖의 인원이 배석할 수 있으므로 여분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 일정에 맞추어 선물을 준비한다
선물을 준비하고도 중간에 일정이 변경되어 전달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침에 당일 일정을 시작할 때 선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가도록 한다.
- ➔ 북측 지인 또는 안내인이 선물을 줄 때는 사양할 필요 없이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자연스럽게 받도록 한다.
- 그러나 반입시 검역을 해야 하는 식물류, 동물류, 흙 등과 정치선전의 소지가 있는 북한책자, 테이프, 선전물 등의 물품은 사양하는 것이 좋다.

북한상식

북한상식

담 배

당이나 정부의 간부에게 지급되는 고급 담배로는 칠보산, 홍초, 평양, 낙원, 금강, 개선문 등이 있다. 대성담배공장에서 생산하는데 고려호텔 등지에서 판매된다. 평양담배공장에서 생산하는 중간급 담배로는 대극장, 대동문, 휘파람새 등이 있다. 일반 주민들은 해당화, 갈매기, 제비 등을 주로 피운다. 더 못한 사람들은 말아초를 피운다. 인상, 홍란, 홍초, 만수대 등 여과 담배는 장마당에서 살 수 있다. 특히 최근 출하한 '하나' 담배가 매우 인기가 있다고 하며, 고려호텔이나 공항상점에서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어 품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

북한으로 가는 길

1. 제3국(중국)을 경유하는 경우 / 37
2. 남북한 직통로를 이용하는 경우 / 56
3. 반출·입 제한 품목 / 57



1 제3국(중국)을 경유하는 경우*

가. 북측의 비자 발급 문제

직접통로를 이용하여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는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때이므로 북한의 비자가 필요없으나 제3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갈 때는 북한 당국의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경로인 북경을 통해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경우 북경 주재 북한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는다. 평양행 비행기가 화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운항하는 점을 감안하여 서울에서 월요일과 금요일 경에 출발하는 것이 좋다. 늦어도 평양으로 출발하기 전날까지는 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북경 발 평양행 비행기가 11시 30분에 출발하므로 당일 북경에 도착해서는 북한 비자를 받고 출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일정상 심양에서 평양으로 가는 항공편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때 심양에서 평양으로 가는 비행기는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운항한다. 서울을 출발하여 북경에 도착하면 바로 북한 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한다. 여러 사람이 비자신청을 할 경우 대표자가 일행을 대신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

때때로 평양 출발일 아침에 비자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 현재 북한으로 들어가는 경로는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해서 가는 방법,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서 가는 직접통로, 금강산 관광 등이 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간의 직항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제3국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덧붙이기로 한다.

경우, 평양행 비행기 표는 북경공항 3층에 있는 고려항공 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북경 ↔ 평양간 노선은 만석인 경우가 많아 비행기 좌석이 없을 경우도 있으므로 예약없이 비행기 표를 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방문이 결정되면 미리 고려항공 북경지점에 비행기표를 예약해 두는 것이 좋다.

북한상식

북한상식

휴가제도

북한은 직종 또는 지역을 구분하여 휴일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생산직 노동자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휴일을 달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평양은 일요일, 함경북도는 수요일, 함경남도는 목요일, 평안북도는 화요일, 강원도는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협동농장의 경우는 매월 1일, 11일, 21일 등 10일에 하루씩 쉬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공식휴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용무로도 휴가 신청을 많이 하고 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노동자에게는 연간 300일 출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연료부족, 어족자원 고갈 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한편 노동자는 사회주의노동법이 규정한 대로 연간 14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여성의 경우, 1978년 제정된 사회주의노동법 상에는 산전·산후 77일간의 출산휴가를, 1986년 2월 20일 정령 2464호에서는 150일간으로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기휴가 이외에도 휴양권 및 정양권이 있는데, 이는 각 직장마다 생산경쟁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인센티브제도로써 모범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일부 실시되고 있다.



알아두기

북한 비자 발급 신청서류 및 중국내 북한 영사관

▶ 신청서류

- 북한사증 발급 신청서
(영사관 내 비치)
- 여권용 사진 2매 및 수수료 (45 \$)
- 여권사본, 재직증명서 등



▶ 북한 영사관

- 북경 주재 북한영사관
 - 주소 : 北京市建國門外日壇北路
 - * 비자 발급시간 09:00~17:00
- 심양 주재 북한영사관
 - 주소 : 沈陽市 皇姑區 北陵大街37號 南亭賓館
 - * 비자 발급시간 10:00~15:00

중국 비자 받을 때 유의할 점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직항로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제3국, 특히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경로이다. 그러나 서울 등지에서 중국 비자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중국비자의 경우는 1회 방문, 2회 방문, 복수 비자 등 일반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1회 및 2회 방문비자는 3개월, 복수 비자는 6개월간 유효하다. 단수 비자를 받을 경우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서 귀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2회 방문 비자나 복수 비자를 받도록 한다. 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할 경우 평양의 중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재발급 받을 수는 있다.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入國査證 申請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입국사증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e of Visa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姓 名 Name in full	姓 名		照 片 사 편 Photo 4 × 5-cm
性 別 성 별	출생일 Date of Birth		
民 族 At Birth Nationality	國 籍 국 적 Present Nationality		
出生地 난 곳 Birth Place			
現住所 현 주소 Present Address			
現職 현 직 장, 직 위 Present work Place and position			
パスポートの種別とNo. 여권종류 및 번호 Type and Number of passport			
送付文付高麗 외국발령기관 Authority of Issue			
訪問目的 방문 목적 Purpose of Visit			
招待機關又は人, 住所, 職業 초청기관 및 초청자의 이름, 주소, 직성직위 Name of Inviting Agency and Person, Address, Occupations			
入國豫定日 입국예정일 Scheduled date of Entry		出國豫定日 출국예정일 Scheduled date of Departure	
同行者名, 性別, 年齢, 國籍, 本人との關係 동행자의 이름, 성별, 연령, 국적, 본인과의 관계 Accompanying Name, Sex, Age, Nationality, and Relationship of Applicant			
朝鮮訪問記録, 目的 조선방문 기록, 목적 Have you been to Korea? (When, What For)			
비 고 備 考			

申請日 시청날자

Date of Application

名前 이름

Name

署名수표

Signature



알아두기

주중 한국 대사관 · 영사관 연락처

- ▶ 주중 한국대사관
 - 주소 : 北京市 三里屯 東四街 3號
 - 전화 : 86-10-6532-0290
 - * 영사부(朝陽區 亮馬河南路 14號) : 86-10-6532-6773~5
- ▶ 상해 총영사관
 - 주소 : 上海市 萬山路 60號
 - 전화 : 86-21-6295-5000
- ▶ 청도 총영사관
 - 주소 : 靑島市 勞山區 素嶺路 8號
 - 전화 : 86-532-897-6001~2
- ▶ 심양 영사사무소
 - 주소 : 沈陽市 和平區 14番路 52號 明哲大廈 13~14樓
 - 전화 : 86-24-2385-7651, 7820
- ▶ 광주 총영사관
 - 주소 : 中國 廣東省 天河區 體育東路 羊城國貿中心 18樓
 - 전화 : 86-20-3887-0555
- ▶ 홍콩 총영사관
 - 주소 : Harcourt Road, Hong kong 5-6F, Far East Finance Center, 16
 - 전화 : 852-2529-4141

나. 북경↔평양 항공편의 이용

(1) 노선 개요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북경-평양 노선을 이용하게 되며, 이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다. 비행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이다.

북한의 국제선은 모두 평양에서 북쪽으로 22km 떨어진 순안구역 서쪽에 위치한 순안공항을



〈평양순안공항〉

이용하고 있다. 이 공항은 조선 민용항공총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북한은 2005년 3월 현재 평양-북경(주 2회), 평양-방콕(주 1회), 평양-마카오(주 1회), 평양-블라디보스톡(주 1회), 평양-심양(주 2회) 등에 고려항공의 정기노선을 개설하고 있다.



알아두기

국내항공사 예약부 전화번호

- ▶ 대 한 항 공 : 1588-2001
- ▶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북한 고려항공(AIR KORYO) 연락처

- ▶ 본사(기본사무소)
 - 주소 : 평양시 순안구역
 - 전화 : 850-2-381-8108
- ▶ 발권사무소(비행기표 판매소)
 - 주소 : 평양시 중구역 동성동
 - 전화 : 850-2-421-7681, 421-8181
- ▶ 북경사무소(朝陽門北大街 2號 港澳中心)
 - 전화 : 86-10-6501-1557, 1559
- ▶ 심양사무소(七寶山賓館)
 - 전화 : 86-24-2322-8877



〈승무원〉

〈북한↔중국간 비행기 시간표〉

출발지	도착지	요일	출발시간	도착시간	편 명	비 고
북경	평양	화, 토	11 : 30	14 : 25	JS152	시간은 현지시간
평양	북경	화, 토	08 : 30	09 : 30	JS152	
심양	평양	수, 토	15 : 00	17 : 10	JS156	
평양	심양	수, 토	12 : 30	12 : 30	JS155	※ 시차로 인해 출발·도착시간 동일

〈기타 노선 비행기 시간표〉

출발지	도착지	요일	출발시간	도착시간	편 명	비 고
평양	방콕 (북경경유)	화,토	08 : 30	21 : 10	TG615	시간은 현지시간
방콕	평양 (북경경유)	화,토	01 : 30	14 : 25	CA980	
평양	마카오 (북경경유)	화,토	08 : 30	19 : 35	NX001	
마카오	평양 (북경경유)	화,토	19 : 30	14 : 25	NX008	
평양	블라디보스톡	목,토	09 : 40	12 : 10	JS271	
블라디보스톡	평양	목,토	19 : 30	20 : 10	JS272	

※ 이 시간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국내 항공사 예약부 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메 모



알아두기

비행기 탈 때 주의할 점

북경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경우 북경 수도공항을 이용하게 되는데 수도공항에 도착 후 발권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하물을 부친다. 그리고 짐표와 비행기표를 받아 출국수속을 마치고, 지정된 비행기 탑승구로 이동하여 비행기에 오른다.

하물에 불필요한 부착물은 우선적으로 하물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좋다.

비행기 안에서는 불필요한 대화, 언행 및 북한 영공에서의 촬영 등을 자제하고 「로동신문」 또는 「조선」 등 잡지를 기내식 사시 밑에 깔고 식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부분을 놓고 식사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기내에 탑승하기 전 불필요한 물품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 본다. 특히 남한에서 발간한 신문이나 잡지 등을 가방 속에 가지고 탑승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한다.

(2) 기내 서비스

● 좌석배치

비행기의 좌석을 보면 비즈니스석(공무자리표)은 통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두 자리씩 있으며 일반석(일반자리표)의 경우는 통로 양쪽으로 세 좌석씩 배치되어 있다. 좌석은 여승무원의 안내를 받거나 번호표를 보고 찾아간다. 번호표는 좌석이 아닌 통로 천장에 있었지만 최근 서방 비행기와 같은 위치로 바뀌었다.

자리에 앉으면 일반 항공사와 비슷한 순서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우선 물수건을 제공받고 사탕류(일등석은 사탕류 또는 껌)와 「로동신문」, 「조선」, 「금수강산」 등의 잡지를 볼 수 있다.

● 기내 식사

음료와 식사를 제공받는다. 음료는 맥주(룡성맥주), 물(신덕샘물, 금강산샘물), 탄산음료(룡성 사이다), 기타 음료(배 단물, 딸기 단물) 등이 제공되며, 식사는 밥과 닭고기 및 빵, 과일 한 두 조각 등이 제공된다. 비즈니스석(공무자리표)의 경우는 좀 더 풍부한 식사와 후식이 제공된다.

● 기내방송

한국어(조선어)와 영어로 기내 방송을 한다. 방송 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착륙 전후, 기내식사 제공시, 압록강 통과시 안내방송이 나온다.



알아두기

기내 용어(북한 말)

- ▶ 일반석(Economic Class) : 일반자리표
- ▶ 비즈니스석(Business or Prestige Class) : 공무자리표
- ▶ 설탕 : 사탕가루
- ▶ 프림 · 밀크 : 우유가루
- ▶ 쥬스 : 단물
- ▶ 화장실 : 위생실
- ▶ 안전벨트 : 걸상띠, 박띠 또는 안전띠

● 기내 면세품 판매

북한의 고려항공에서도 기내 면세품을 판매한다. 우리의 경우 서울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국제선 모두 면세품을 판매하는데 비해, 고려항공의 경우 평양으로 들어갈 때는 면세품 판매를 하지 않고 평양에서 북경이나 기타 지역으로 나올 때 면세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북한산 술과 담배 및 복주머니와 수예품 등을 판매한다.



알아두기

면세점의 이용

북한에 가지고 갈 선물이나 기타 물품을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것도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북한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천공항 면세점과 북경 수도공항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 면세점에서 술과 담배 및 필름 등을 구입한다.

인천공항과 북경 수도공항을 비교하면 인천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으므로 굳이 북경 수도공항 면세점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 물품에 남한과 관련된 문구가 들어간 것은 피하는 것이 좋지만 직접 사용할 필름이나 건전지 등은 무관하다.

북한에서는 대부분의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므로 가격이 비싸거나 구입할 수 없는 물건이 많다. 국제적으로 술은 1리터, 담배는 권련 200개가 반입 기준이나 북한의 경우는 술과 담배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참고〉 기차편을 이용하는 경우

중국에서 기차편을 이용해서 평양에 들어갈 수도 있다. 북경에서 월·수·목·토요일 17시 25분에 평양행 열차가 출발한다.

북경발 열차는 출발 다음날 18시 50분에 평양에 도착한다. 꼬박 하루에다 1시간 25분이 더 걸리는 셈이다. 입국수속은 국경도시 신의주에서나 기차 안에서 마치게 된다. 기차표 1매당 35kg의 수하물을 별도의 운임 없이 휴대할 수 있다. 기차표 없이 하물을 발송시킬 경우는 대외무역수출권이 있는 회사에 위탁하여 발송하고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차 시간표〉

출발지	도착지	요일	출발시간	도착시간	경유지	비 고
북경	평양	월, 수 목, 토	17 : 25	18 : 50 (다음날 도착)	단동 신의주	
평양	북경	월, 수 목, 토	10 : 10	09 : 23 (다음날 도착)	"	
심양	평양	화, 목 금, 일	13 : 30	18 : 50	"	
평양	심양	월, 수 목, 토	10 : 10	23 : 12	"	
모스크바	평양	금	21 : 25	16 : 35 (금)	신의주, 압록강	7일 소요
		화, 수 목	14 : 00	10 : 40 (목, 금, 토)	하싼, 두만강	9일 소요
평양	모스크바	일, 월	10 : 10	06 : 45 (월, 화)	신의주, 만주리	8일 소요
		토	11 : 30	20 : 50 (토)	두만강, 하싼	6일 소요

※ 이 시간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은 현지 시간입니다.

다. 입북수속

평양행 비행기는 11시 30분 북경을 출발하여 14시경에 순안 공항에 도착한다. 공항 청사까지는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

버스에서 내리면 일반용 출입구(1층)와 VIP용 출입구(2층)가 있다.

● 입국 심사

먼저 여권, 비자 및 입출국수속표(기내 배포)를 제출한다. 이상이 없으면 여권과 비자를 받아서 수하물이 나오는 곳으로 이동하면 된다. 심사시 초청기관을 물어볼 때는 간단하게 대답한다.

➔ VIP용 출입구 통과 시

일반 출입구 절차보다 까다롭지 않으며 입국 절차는 일반 출입구 순서와 같다. 입국 절차를 마치고 2층으로 나오게 되는데 부친 하물은 1층에서 찾아야 한다.

● 수하물 심사

입국 심사가 끝나면 입국심사소 바로 앞에 있는 수하물이 나오는 곳으로 이동하여 물건을 찾는다.

모든 물건이 나오면 X-Ray 검사대를 통과하며 수하물 검사를 받게 되는데, 그 전에 여권과 세관신고서(기내 배포)를 먼저 검사원에게 준다. 수하물 검사를 마치면 소지품 검사대를 통과하여 물건을 찾아 나온다.

북한공항에서는 본인이 물건을 찾아서 나갈 때 수하물표와 수하물의 숫자를 함께 확인하므로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짐을 분리하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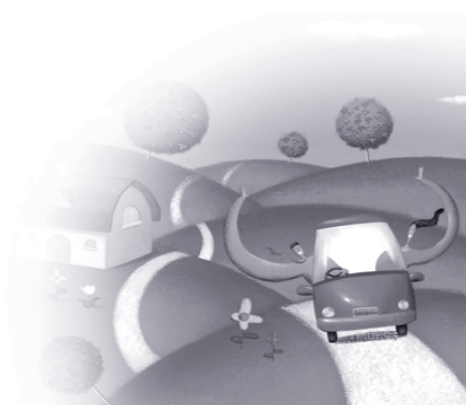
➔ 휴대전화는 될 수 있으면 국내에 두고 가거나, 왕복항로 이용시에는 경유국 공항에 맡기는 것이 좋다. 가지고 가는 경우 대개의 경우 순안공항에서 맡기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보관증을 분실하지 않도록 하고 귀환할 때 휴대전화를 찾아오는 것 또한 잊지 않도록 한다.

라. 평양 시내로의 이동

순안공항에 도착하면 초청기관이나 관계기관에서 안내원과 관계자가 나오게 된다. 이들 안내원은 북한에 머무는 동안 계속 같이 있게 된다.

인원이 3~4명일 경우는 승용차를 이용하게 되고 여러 사람일 경우는 버스로 이동한다. 단장에 준하는 사람에게는 별도로 승용차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

국제기구(UNDP, UNICEF, WFP 등)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는 북한에서 제공하는 차량들을 이용하게 되고, 북한 주재 외교관의 경우는 대사관 차량을 이용하여 공항에서 평양 시내로 이동하게 된다.



[세관신고서(국문)]

〈앞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신고서		
이름	성별	나이
국적	려권번호	여행목적
거주지	방문지	
대표단명	직장직위	
손에든짐 약 kg.	따로부친짐 약 kg.	다른사람의 위탁짐 약 kg.
주 의 사 항		
1. 여행자들이 몸에 휴대한 것, 손에든짐, 따로부친짐, 다른 사람의 위탁짐속에 있는 무기, 탄약, 폭발물, 폭약, 마약, 출판선전물을 비롯한 모든 물품들과 국내외화폐는 의무적으로 빠짐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2. 부정확하게 신고하였을 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신고날자 주제 년 월 일 신고인수표		

〈뒷면〉

휴대품 목록

품명	단위	수량	품명	단위	수량

화폐명세

화폐명	금액	화폐명	금액

검사기록

세관

세관원

수표

[세관신고서(영문)]

〈앞면〉

THE CUSTOMS DECLAR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ERVICE)

Name : _____ Sex : _____ Nationality : _____

Name of delegation : _____ Passport No. : _____

From : _____ To : _____

Traveling purpose : _____ Hand baggage : _____ pieces

Baggage sent separately : _____ pieces

Entrusted baggage : _____ pieces

Have you the following articles in your hand baggage and baggage?

1. All kinds of weapons, ammunitions, munitions, explosives and the means of their use.
2. Poisonous drugs, narcotics, anesthetics and the means of their use.
3. Audit and video-visual aids, cultural relics and the works of art.
4. Publications, photographs and films.
5. precious metals, jewels and their products.
6. Transistor radios and recorders with radio.
7. Animals, plants and unprocessed animal products.
8. Insects and all kinds of seeds.

In case of false declaration the articles concerned shall be at the disposal of the provision of the Customs Regulation of the D.P.R.K.

Declarer's signature : _____ Date : _____

〈뒷면〉

Other articles not pointed out in the category of 1-8 shall be filled in the following form.

Name of belongings

All currencies you have should be recorded in the following form.

Currency records

Name of article	Quantity	Name of article	Quantity

Currency	Amount	Currency	Amount

Examination records :

Customs examiner's :

Signature :

[출입국신고서(입출국수속표)]

〈앞면〉

입 / 출국수속표
ENTRY/EXIT CARD

정자로 쓸 것
FILL IN CLEARLY
IN ROME ALPHABET

통행검사소
IMMIGRATION CONTROL OFFICE

〈뒷면〉

이름	남/녀
Name in full _____	Sex M/F _____
날	국적
Date of birth _____	Citizenship _____
민족	동반자
Nationality _____	Accompanied by _____
여권종류와번호	
Passport Type B/S/O/ No. _____	
직장직위, 거주지	
Office of Position, address _____	
대표단이름, 목적지	
Name of delegation, Destination _____	
초청기관	
Invited by _____	
체류지	체류기간
Staying place _____	Staying period _____
날짜	수표
Date _____	Signature _____

2 남북한 직통로를 이용하는 경우

남북한 당국간의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남북한 주민이나 재외 동포는 남북출입사무소 등 남북한 간에 개설된 특정의 출입장소를 이용하여 남북을 왕래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왕래자는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출입장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출입장소에서의 심사는 신원확인, 휴대품 검사, 검역, 북한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과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등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심사 공무원이 심사를 완료하면 방문증명서에 심사를 완료하는 도장을 찍어주게 된다.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대규모 행사의 경우 남북 직항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은 남북한 간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수송장비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남북한 직항로가 2004년 12월 말 현재 131차례* 열린 바 있다. 우리 측은 인천, 서울(성남), 김포, 오산, 제주, 김해(부산), 양양공항을 이용하였으며 북측은 순안, 선덕 공항을 이용하였다.

* 자료 : 통일부 교류협력국

3 반출 · 입 제한 품목

남북한 왕래시의 휴대물품은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 및 처리방법」에 따라 반입 · 반출이 금지되는 물품과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하는 물품 등이 정해져 있다.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다음 품목의 물품을 휴대품으로 남한 지역에 반입하거나 북한지역으로 반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통일부고시 제99-1호)

가. 한 국

(1) 반입 금지 품목

-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 ·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 · 간행물 · 영화 · 음반 ·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화폐 · 수표 · 어음 ·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 모조품
- 총포 · 도검 및 화약류 등
- 마약 ·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 ·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한 규제 물품 및 이를 성분으로 한 의약품
- 호골, 웅담 · 사향 · 해구신 등
- 기타 출입심사공무원이 위협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2) 반출 금지 품목

- 군사상 기밀 및 남한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이

용될 수 있는 물품

-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 문화재관리법에 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3) 반출·반입 제한 물품

「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 승인절차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반입이 제한되는 물품

-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 검역대상물품
- 전략물자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규제 품목
-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4) 면세허용범위

북한지역에서 취득(무상 포함)했거나 구입한 물품으로서 다음의 특정물품을 포함하여 연도별 4회, 1회당 전체취득 가격 총액이 US\$ 300상당액 이내인 물품

- 특정물품(단, 만19세 미만인 경우 주류·담배는 제외)
 - 주류 : 1명(1ℓ 이하)
 - 담배 : 껴련 200개비, 엽껴련 50개비, 기타담배 250g
 - 향수 : 2온스
 - 농산물(전체 취득가격 총액이 10만원 이내)
 - 참기름·참깨·꿀·고사리·더덕·기타 : 5kg이내,
 - жат : 1kg이내

- 한약재(전체취득가격 총액이 10만원 이내)
 - 인삼 : 300g이내, 녹용 : 150g이내, 기타 : 3kg이내

나. 북 한 *

(1) 반출 · 입 금지 품목

- 모든 종류의 무기류, 군수품, 탄약류, 폭발성 물질
- 독극물, 마약류, 마취류
- 오디오, 비디오류, 문화유물

(2) 반출 · 입 제한 품목

- 출판물, 사진 및 필름
- 고가의 금속(금), 보석류
- 트랜지스터 라디오, 녹음기
- 동물, 식물
- 인삼 및 각종 종자류
- 기타 품목 : 망원경(10배율), 고배율의 카메라, 비디오 카메라(24배율 이상), 기타 통신용 무전기 및 기기

* 세관신고서 기준

북한상식

북한상식

우 표

북한은 1946년 3월 무궁화와 금강산을 소재로 한 우표를 최초로 발행 한 후, 그 해 8월에는 태극기를 배경으로 김일성 주석의 얼굴을 넣어 해방 1주년 기념우표를 제작한 바 있다. 그후 대동문(1954년 9월), 이순신 장군(1955년 5월), 레닌(1957년 9월), 황해제철소(1954년 11월), 돼지(1959년 9월)를 소재로 한 다양한 우표를 발행하였다.



1980년대 들어 월드컵,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대회와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결혼식, 렘브란트, 피카소, 뉴턴, 펠레, 대만 여가수 체레사 텡과 이탈리아 축구리그 우승팀 등의 다양한 소재의 우표를 선보여 해외수집가들의 호기심을 샀고, 2000년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상봉장면을 소재로 한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2005년도에도 김일성의 93회 생일(4.15)에 즈음하여 예년과 같이 기념우표를 발행하였다. 특히 김일성화 명명 40돌 기념우표를 발행하여 김일성의 업적을 기리게 하였다.

남한의 경우처럼 낱장 판매도 하고 우표수집가를 위하여 세트 형태로도 발행하지만 발행 수량은 적은 편이다. 기념우표의 경우는 별도의 번호를 부여한 증서를 첨부하기도 한다.

※우표는 국내 반입시 사전승인을 요하는 품목이다.

5대 혁명가극

북한의 가극은 매우 독특한 예술장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양의 오페라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구성이나 내용면에

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면 무대 뒤에서 부르는 방창이 많다거나 작품의 주제는 반드시 혁명적이고 사실주의적이어야 한다는 조건 등이다.

특히 혁명가극은 이러한 조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이 혁명가극은 대부분 김일성 주석이 항일 빨치산시절 창작했고 김정일 위원장이 1970년대 초 개작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혁명가극에는 보통 한 작품에 200명 이상 등장할 만큼 무대의 스케일을 중시하기도 한다. 5대 혁명가극은 '피바다', '꽃파는 처녀', '당의 참된 딸', '금강산의 노래', '밀리아 이야기하라' 등을 일컫는다.

보천보 전자악단 · 왕재산 경음악단

북한에는 2개의 대표적인 악단이 있다. 보천보 전자악단과 왕재산 경음악단이 그것이다. 보천보 전자악단은 김정일 지도로 1985년 6월에 창설된 경음악단이다. 현재 60개의 카세트 테이프가 발매되어 있고, 가요곡의 90%가 이 그룹의 노래이다. 가수로는 김광속, 전해영, 리분희, 조금화 등이 활약하고 있고 작곡가로는 리종오가 이 그룹을 대표한다.

왕재산 경음악단은 1983년 7월에 결성되어 오래 전부터 있었던 민요를 북한식 경음악으로 편곡하고 있다. 16명의 연주자와 6명의 가수, 그리고 16명의 무용수로 구성되어 있다. 장윤희, 김효숙, 려청 등이 이 그룹의 간판가수들이다.





4

방북활동 — 평양을 중심으로 —

1. 일정의 점검과 환전 / 65
2. 숙 소 / 71
3. 북한의 음식과 술 / 78
4. 백화점과 상점의 이용 / 90
5. 교통·통신의 이용 / 94
6. 여가활용과 종교활동 / 101
7. 의료시설의 이용 / 108



1 일정의 점검과 환전

가. 일정의 점검

숙소에 도착하면 준비해 온 일정 등을 확인한다. 일정이 제한되어 있고 방북기간 중 수시로 북측 인사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전에 준비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나친 음주는 삼가는 것이 좋다.

참고로 북경을 경유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경우의 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알아두기

방북 중 여권·비자 등의 관리

방북자들이 호텔에 도착하면 여권과 비자, 항공권(고려항공)은 모두 안내원에게 맡긴다. 중국 비자를 단수 비지만 받고 귀환 시 북경 수도공항에서 환승(Transit)할 경우에는 환승하는 남한 비행기 항공권도 함께 주며 미리 환승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항공권 최종 확인은 안내원들이 해준다. 평양에서 비자를 신청할 경우는 반드시 도착 첫날 안내원에게 얘기해 두도록 한다. (사진 2매, 60달러 별도 준비)

한편 북한의 사증은 여권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사증을 발급하므로 분실 가능성이 높다. 출국 심사대에서 사증을 회수할 때까지 보관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나. 방북 일정의 예 : 인도적 지원의 경우

(1) 인도지원 대표단이 방북하게 되는 경우 북측에서는 민족 화해협의회(민화협) 지도원들과 관계기관(조선의학협회, 농업 과학원, 조선그리스도교연맹, 민경련 등)이 안내를 담당하게 된다.

(2) 평양도착 후 만수대의사당, 김일성 주석 동상을 참배하는 코스가 있으나 동상 참배 등에 대한 강제성은 없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행동한다.

북한상식

북한상식

안 경

평양 중구역 대동교 사거리에 평양 광학유리 생산협동조합 안경제작소와 조총련 동포와의 합작으로 설립된 서장안경점이 있다. 서장안경점은 주로 간부층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국에서 수입한 고가의 안경을 판매한다. 매주 토요일은 정기휴일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비싼 가격 때문에 시력이 나빠도 안경 없이 생활하거나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중국산 돋보기를 사용한다.

남한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안경의 알이 작으며 유행에 민감하게 여러 종류의 안경이 있으나 북한에서는 안경에 대한 특별한 패션이나 유행하는 스타일이 없다. 북한에서는 안경 알이 큰 것이 보통이며, 남한에서 주로 많이 착용하는 알이 작은 안경을 착용한 사람은 찾아 보기 힘들다. 남북한 사람들 여럿이 함께 있을 경우 안경 크기만 가지고도 구분이 가능할 정도이다.

(3) 호텔도착 후 환영만찬 전에 북측과 일정을 협의하게 된다. 따라서 사전에 방북단의 희망 일정을 정리하여 북측에 요청한다. 보통 협의 시간에는 방문단 모두가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단장 혹은 실무진만 참가하기 때문에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맡게 되는 사람에게 미리 전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리 전달하지 않은 사항을 갑자기 요구하거나 일정 변경 등을 요구하면 협의를 어렵게 할 수 있다.

(4) 첫날 북측 주최의 만찬에는 북측 책임자의 환영사 이후 대표단 단장이 방북하게 된 경위와 초청에 대한 감사 인사를 표명하게 된다. 북장은 정장 차림이 좋으며 자유롭게 환담하면서 식사를 한다.

(5) 둘째 날은 보통 북측이 안내하는 장소들을 방문하게 되는데, 주로 만경대 고향집(김일성 주석 생가), 주체사상탑, 개선문, 지하공전(지하철), 모란봉(을밀대), 인민대학습당 등을 둘러 보게 된다.

(6) 그 이후 일정은 북측과 협의하여 확정하게 된다. 인도적 지원사업의 경우 협력사업 방향, 지원물자 분배상황 현지확인, 묘향산 관광(하루 소요), 공연(가극, 교예단 등) 관람, 학생소년 문화공전, 평양산원, 만수대창작사, 생산공장 탐방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유명 식당을 둘러 북한의 음식을 맛볼 수도 있겠다.

(7) 마지막날 저녁은 남측 주최로 동석식사를 하게 되는데, 1인당 50\$~70\$ 정도의 경비를 계상하면 적정할 것이다. 대표

단 단장이 방북 소감, 문제점 등을 정리하여 북측에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한다.

(8) 차량비는 보통 하루 승용차(승합차) 1대당 100유로 정도로 잡으면 되지만, 때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방북 일정표 (예시)

일 자	시 간	내 용	비 고
(월)	09:00 10:30 11:40 13:30 14:00	인천공항 집결 출국 북경 도착 (아시아나 11:10) 호텔 도착 / 식사 북한영사관 방문 고려민항 방문 북경 관광 가능	대한항공 / KE851편 아시아나 10:00 / OZ331편 <도착 : 중국시간> 비자발급 항공권 구입
(화)	09:00 11:30 14:30 저녁	호텔 체크인 북경 출발 (고려민항) 평양 도착 일정협의 및 환영만찬	환영만찬 (동석식사) - 북측 주최
(수) ?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 시내 관광 • 현지 모니터링 및 협의진행 • 묘향산 관광 등 요청지역 방문 • 마지막날 저녁 - 환송만찬 	북측과 일정협의 진행 동석식사 - 남측 부담
(토)	09:00 09:40 13:10 16:10	평양 출발 (고려민항) 북경 도착 북경 출발 (대한항공 / KE852편) (아시아나 12:20 / OZ332편) 인천공항 도착 (아시아나 15:10)	<출발 : 중국시간> <도착 : 한국시간>

※ 이 표는 월요일에 출발하여 토요일에 귀환하는 4박5일의 일정을 예시한 것임.

다. 북한의 화폐와 환율

조선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북한의 화폐는 1974년 12월 화폐 개혁으로 발행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4차례 권종이 변화되었다.

1992년 7월부터 사용되어 온 북한의 화폐에는 지폐 6종(1·5·10·50·100·500원권)과 주화 5종(1·5·10전, 50전, 1원권)이 있었으나, 2002년 7월 1일의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라 종전에 보조단위로 사용되어 오던 ‘전’ 단위가 폐지되고 ‘원’ 단위로 일원화되었다. 이 조치로 경제생활의 단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000원권과 5,000원권이 발행되었다.

무역환율은 조선대외무역은행이 발표하고 있으며,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의 환율은 약 1\$당 145원 정도이다.



- ➔ 신용카드의 사용 : 고려호텔 등에서 호텔 경비, 식사비를 비자, 마스터 등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고 하나 의외의 경우에 대비하여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북한의 주요 은행과 업무

구분	주요 업무	비고
조선 중앙은행	<p>〈북한의 중앙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6년 설립 • 발권은행으로 타 은행 지도·감독 • 국가예산자금의 공급 및 재정적 통제 • 저금 및 대부, 인체보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의 본점, 개성의 총지점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군에 지점 설치 (200여 개)
조선 무역은행	<p>〈대외결제 전문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의 결정 및 공포 • 무역과 비무역거래의 결제와 지불, 보증 • 외화의 수납 및 지출에 대한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9년, 중앙은행의 외국환 부문을 분리 설립 • 평양 본점과 각 도에 지점이 있으며 전 세계 1,000여 개의 은행과 거래
조선 금강은행	<p>〈외국환 전문은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주의 및 개도국과의 무역결제 • 조선봉화무역총상사, 조선 평양 무역회사 등의 대외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8년 설립
조선 대성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회사의 대외결제 등 외국환 업무 • 귀금속 거래와 신용카드 업무에도 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8년 설립 • 1996년 홍콩 페레그린 투자(주)와 페레그린·대성은행의 합영은행 설립
조선 창광신용 은행	<p>〈국제금융 관련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 등 국제금융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3년 설립 후 조선대성은행에 흡수되었다가 1986년에 독립하여 개명

2 속 소

가. 고려호텔 (특급 ★★★★★)

평양시 중구역 창광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평양역이 있다. 1985년 8월 건설된 북한의 대표적인 최신식 특급 호텔로서 연면적 84,000㎡에 45층의 쌍탑식 건물(높이 140m)이다.

개업 이래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단골 숙소가 되고 있는 이 호텔은 지하1층~지상3층에 식당, 서점 등 각종 편의 시설을, 4층~43층에는 다양한 크기의 객실을 약 500여 개 갖추고 있다. 특히 44층~45층의 회전전망대로 된 식당에서는 평양 시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사우나, 수영장, 노래방 등 각종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 위 치 : 중구역 창광거리 동흥동
- 객 실 수 : 500여 개
- 수용인원 : 1,000명



알아두기

호텔 비즈니스 센터

국제전화 및 팩스의 발·수신 업무 및 우편 업무를 수행한다. 복사 업무도 가능하지만 요금이 비싼 편이다.

우편물은 일반적으로 국제우편취급소 혹은 호텔에 있는 우편물 취급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보낼 국가와 무게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현재 북한에는 DHL사무소가 설립되어 있어서 수하물을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한간 직접적인 우편물 발송 및 DHL은 불가능하다.



〈고려호텔 비즈니스 센터〉

팁과 빨래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팁이 없다. 호텔 종업원은 사실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팁을 주면 오히려 당황하기도 한다. 다만 떠날 때 조그만 선물 같은 것으로 성의를 표시하는 것은 괜찮다.

호텔에서의 주문 빨래는 방에 있는 빨래주머니를 이용한다. 주머니에 빨래감을 넣어두면 반나절 정도 지나서 계산서와 함께 세탁된 옷가지들이 방까지 배달된다.

나. 양각도 국제호텔 (특급 ★★★★★)

가장 최근에 문을 연 호텔로 1995년 완공하였다. 평양시의 기존 건물과는 다르게 건물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현대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대동강의 양각도에 있다. 양각도는 모양이 소의 뿔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이 섬에는 평양국제영화관 및 양각도 축구 경기장이 있다. 호텔의 맨 위는 둥근 모양의 회전식당이 있어 창가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평양시내를 볼 수 있다.



- 위 치 : 대동강 양각도
- 객실수 : 1,001개

다. 보통강호텔 (1급 ★★★★★)

보통강변의 호반과 녹음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편안함을 주는 호텔이다. 1973년 9층 건물로 개원하였다. 다른 호텔에 비하여 비교적 역사가 오래되어 전체적으로 건물이 다소 낡았으나 개보수 이후 숙박비가 고려호텔의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주로 장기 투숙객 및 외국인이 많이 머무르는데 이 곳의 객실에서는 CNN, NHK, CCTV, STAR TV 등 외국방송 시청이 가능하다. 외국인 및 남한 사람들이 고려호텔과 더불어 가장 많이 찾는 호텔이다. 호텔 내에 당구장 및 가라오케, 바, 서점, 상품판매점, 기념품점 등의 부대시설이 있다. 주변에 안산관, 청류관 등 식당 및 창광원과 낙원백화점이 있다.

- 위 치 : 평천구역 안산동 보통강 기슭
- 객실수 : 162개

라. 서산호텔 (1급 ★★★★★)

서산호텔이 있는 청춘거리에는 많은 체육시설들이 들어서 있다. 서산호텔은 핸드볼경기장과 서산 축구경기장 사이의 길로 올라가는 뒤쪽 산기슭 소나무 숲에 자리잡고 있는 30층 건물이다. 1989년 개원하였으며 서울 올림픽공원의 올림픽 파크 호텔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위 치 : 만경대구역 청춘거리
- 객실수 : 513개

마. 양강호텔 (1급 ★★★★★)



양강호텔은 청춘거리의 대동강 끝 지점 산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계단식 건물이 복합적으로 합쳐진

형태의 건물로서 1989년 개업하였다.

호텔 앞으로는 대동강이 흐르고 두루섬과 쑥섬이 바로 앞에 있으며 옆으로는 대동강의 지류인 보통강이 대동강과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의 워커히 호텔과 비슷한 인상을 주

는 호텔이다. 경치가 뛰어난 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호텔 위에 회전식 식당이 있다.

- 위치 : 만경대구역
- 객실수 : 330개

바. 청년호텔 (1급 ★★★★★)

청춘거리와 광복거리가 만나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30층의 삼각형 모양의 건물이다. 광복거리와 청춘거리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주변에 평양교예단 전용 공연장인 평양 교예극장이 있다.

- 위치 : 만경대구역
- 객실수 : 465개

북한상식

북한상식

미인상

북한 남성들이 꼽는 최고의 미인상은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생모인 김정숙을 닮은 여성이다. 키는 보통 키에 통통하게 살이 오른 얼굴, 초생달 같은 눈썹에 작고 긴 눈, 불그스름한 뺨에 오뎅한 코와 작은 입술을 가진 여성이 북한의 전통적인 미인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눈이 크면서도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귀여운 인상을 주는 얼굴이 미인상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한다.

남한에서는 미인의 기준이 다소 서구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여성에게 서구적으로 생겼다는 말은 매우 실례가 되는 말이다.

사. 평양호텔 (2급 ★★★)

평양의 중심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호텔로 1961년 개업하였다. 대동강변에 자리잡고 있으며 맞은 편에 평양 대극장이 있다. 중심지역에 있어서 주변에 이용 가능한 이·미용시설 및 부대시설이 많다.

- 위 치 : 중구역 승리거리 오탄동
- 객실수 : 170개

아. 기타 숙소

해방산 호텔, 과학자 여관 등 몇 군데의 호텔이 있다. 해방산 호텔은 주로 중국인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수반이나 귀빈의 경우는 호텔보다는 초대소 또는 영빈관에 주로 머무르게 된다(백화원, 모란봉, 서재골, 문수리, 봉화리 등의 초대소가 있다). 일반인도 숙박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호텔보다 비싸고 다소 답답하다.



〈백화원 영빈관〉

북한상식

북한상식

연애와 결혼

북한에서 10쌍 중 5쌍은 연애결혼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매결혼하는 쌍의 절반 가량도 사실은 연애를 통해 만난 것이라고 한다. 대학생들간의 연애도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여학생 기숙사까지 찾아가 출입구에서 당번을 서는 다른 여학생에게 자신이 사귀는 누구누구를 불러달라고 부탁하는 남학생도 꽤 있다고 한다.

직장인들도 모임과 교양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성을 만날 수 있다. 당국도 결혼 적령기 남녀의 이성교제를 조직생활의 기강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생산목표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묵인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동성동본간의 결혼에도 법적인 장애가 없다. 일찍부터 일부일처제 가족제도의 확립이 가까운 혈족간의 혼인금지 외에 아무런 의의도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는 시각에서 북한은 동성동본 금혼을 봉건 제도의 잔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식장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1995년경 김정일의 지시로 평양에 경향관이라는 예식장이 생기기는 하였지만 일반 주민들은 가정에서의 결혼식을 선호하고, 지방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결혼식을 치른다. 처녀 총각이 결혼을 약속하면 약혼식 날 결혼 날짜를 정한다. 최근 일부 사람들은 은밀하게 점쟁이들에게 물어 길일을 택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혼식 날짜를 정하면서 양가의 혼주는 신랑과 신부의 첫날 옷감, 화장품, 승용차 등을 상의하고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준비한다.



북한상식

북한상식

이 혼

북한에서의 이혼은 어떠할까? 북한에서는 1956년 합의이혼 절차를 폐지하고 반드시 재판에 의해서만 이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혼을 하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는 대개 건강상의 이유와 관련되었을 때, 성적 관계가 불가능한 상태, 배우자의 부정이나 폭행이 있는 경우,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성격차이가 심한 경우, 그 밖에 특별히 법적으로 허용하는 때에 국한된다고 한다. 꼭 이혼해야만 하는 사정이 아니면 당사자간의 화해와 재결합을 유도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처럼 되어 있다.

3 북한의 음식과 술*

가. 북한의 음식

(1) 평양냉면

평양냉면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특별음식이다. 국수는 지방마다 쓰이는 재료와 만드는 법이 달라 그 맛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평양냉면이 제일 맛이 좋고 유명하다.

평양냉면의 사리는 메밀 70%에 감자녹말 30%를 섞어 반죽하여 만든다. 국수 대접에 사려놓고 식힌 꿩고기나 닭고기 국물을 부은 다음 여러 가지 꾸미와 양념장, 고명을 넣는다.

평양냉면은 메밀알 속 엽록소에서 풍기는 구수한 풍미, 시원

* 통일교육원,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③ 「먹거리를 통해 본 북한 현실」 참조

한 육수의 감칠맛과 산뜻한 고명, 그리고 양념장이 어울려서 독특한 맛을 준다. 평양냉면으로 가장 잘 알려진 곳은 옥류관이다.

(2) 구이류

북한에서는 보통 고기를 숯불에 구워먹는다. 소고기 구이는 대부분의 식당에서 먹을 수 있지만 돼지고기는 잘 구워먹지 않는다. 기타 구이로는 낙지 구이 및 미노 구이 등이 있다. 낙지 구이는 남한의 오징어를 말하고, 미노는 소 내장의 일종으로 구워서 먹으면 맛이 좋다. 오리 구이도 비교적 즐겨 먹는 구이 중의 하나이다.

대부분의 구이가 양념을 해서 구워 먹는데 남한에서는 야채를 많이 넣지만 북한에서는 파와 마늘을 조금 넣는 정도이다.

(3) 탕류

일반 찌개와 매운탕류가 있는데 일반 찌개(지지개)는 김치지지개, 된장지지개가 보편적이다. 된장지지개는 곱돌장이라는 음식으로 더 많이 불려진다. 된장, 두부, 감자, 야채 등을 넣고 곱돌로 만든 그릇에 넣고 끓여서 만들어 곱돌장이라 부른다.

매운탕은 민물고기와 바다고기를 이용하여 만드는데 지역 특성상 민물 매운탕이 많다. 잉어탕, 송어탕, 송어탕 등이 있다.

기타 탕류로는 소내장류를 이용한 탕류가 있다. 대합탕은 특유의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이다.

(4) 김치류

북한의 김치는 종류가 비교적 적고 계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남한의 김장처럼 겨울용으로 김장을 하지만 맛이 좀 다

르다. 배추김치의 경우는 고춧가루가 적다.

남한의 김치와 달리 북한의 경우는 젓갈을 잘 넣지 않는다. 일부 함경도나 황해도 등 지방에 따라 별도의 젓갈을 사용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젓갈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가자미 등의 고기 식해를 만들어서 먹는다. 김치에 고춧가루는 별로 없지만 매운 고춧가루를 사용하기 때문에 맵다.

김치에는 통배추김치, 깍두기, 나박김치, 오이김치, 동치미, 달래김치, 부추김치 등 여러가지가 있다. 배추가 많이 재배되지 않는 계절에는 양배추 김치가 흔하다.

북한상식

북한상식

생일·회갑

북한주민들 사이에서도 조촐하나마 생일상을 차리는 전통은 남아 있다. 또 당 고위간부들이나 각 분야에서 모범 칭호를 받은 사람들은 가끔씩 상부로부터 특별한 생일상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생일상뿐 아니라 결혼상, 회갑상, 칠순상도 보내진다.

또한 아이들의 생일상 차림도 단순한 가정행사로서만이 아니라 탁아소에서 공동행사로 치러지는 추세이다. 환갑이나 진갑 잔치는 소박한 형태로나마 전해지고 있으며, 자손들이 부모의 생일을 잊지 않고 음식상을 차리는 풍습도 여전하다.

남한에서는 뷔페식당에서 돌잔치 등을 하는데 북한은 이러한 경우는 없으나 집에서 백일상이나 돌상을 차려 놓고 집안 식구끼리 잔치를 한다. 돌잔치에는 떡과 과일 및 과자류를 차려 놓는다. 음식 준비는 가정형편에 따라서 다르며, 특별한 준비 없이 지내는 경우도 많다.

(5) 기타 음식

기타 음식으로는 녹두부침이 대표적이다. 무침으로는 청포묵이나 기타 계절별 나물 및 버섯류가 있다. 이밖에 절편, 송편, 찰떡과 같은 떡류, 녹두묵, 도토리묵, 평양어죽 등이 유명하고, 대동강 송어국, 두부탕, 쇠불고기, 각종 회 등도 먹어 볼 만하다.

(6) 추천할 만한 요리

1) 털게 요리

털게는 북한지역에서 잡히는 바다 게이다. 주로 찜을 해서 많이 먹는데 털게는 몸에 털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다리가 통통한 편이며 맛이 아주 좋다. 주문을 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하면 껍질을 먹기 좋게 깨뜨려 내온다.

남한에서는 고성(강원도) 등 북단 지역에서만 잡혀 매우 비싸지만 북한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다.

2) 조개구이

남한에서 한때 유행했으나 북한에서는 예전부터 즐겨 먹던 음식이다. 구이로 사용되는 조개는 보통 남포 등의 갯벌에서 많이 잡는데 크기가 4~5cm되는 것이 맛이 좋다.

조리하는 방법이 독특하다. 조개구이판(돌)에 조개의 벌어지는 쪽을 돌판으로 향하게 하여 가득 채운다. 불을 아래서 지피는 것이 아니라 휘발유를 조개위에 조금씩 뿌려가며 벌어질 때까지 굽는다. 생각과는 다르게 휘발유 냄새가 나지 않고 맛이 매우 좋으며, 여기다 술을 곁들이면 안주로도 일품이다.

3) 칠색 송어탕

묘향산 지역의 맑은 물에 사는 송어로 끓인 매운탕으로 비린내가 없고 담백하며 약간의 향이 나는 것이 별미이다. 송어의 색깔이 일곱 가지 색을 띤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4) 식해류

주로 가자미 식해와 명태 식해를 즐겨 먹는다. 맛이 새콤하고 담백하다.

5) 송이버섯 요리

남한에서는 비싸서 먹기가 힘들으나 북한에서는 비교적 싸다. 요리에 넣어 먹기도 하지만 송이버섯을 주재료로 한 볶음 등을 송이향을 느끼면서 먹을 수 있다.

북한상식

북한상식

김정일은 전주 김씨

김정일 가문의 본관이 전주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김정일의 본관인 '전주 김씨'의 시조는 김태서(金太瑞)이고 그의 묘는 전북 완주군의 모악산(794m)에 있다.

김일성은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우리 가문은 김계상 할아버지 대에 살길을 찾아 전라북도 전주에서 북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김정일의 가문이 전주 김씨라는 사실은 북한 언론에서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통일신보」 2000년 3월 6일자에 김정일의 가문, 이른바 '만경대 가문'이 전주 김씨임을 밝혔고 김정일 스스로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본관을 전주라고 밝혔다.

나. 북한의 술

북한에는 비교적 여러 종류의 술이 있다. 북한사람들은 맥주와 술을 따로 구분할 정도로 도수가 높은 술을 즐기며 일반적으로 술의 도수도 높은 편이다.

대표적인 술은 들쭉술, 인풍술, 개성고려인삼술, 평양술, 검은모루, 불로술, 황구렁이술, 가시오가피술, 아달산술, 보드카, 장뇌삼술, 금술, 백두산 영지술, 왕짚광이술 등 비교적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백두산 들쭉술은 가장 널리 알려진 술이다. 백두산 지역 및 고산지역에만 자생하는 들쭉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만드는데 손님맛이 술로 인기가 높다. 제조공장도 여러 곳인데 특히 백두산 지역 혜산공장의 들쭉술이 맛이 좋다고 한다.

알콜의 도수는 40도가 일반적이지만 15도, 25도도 있다. 외국 인들은 대개 15도의 술을 즐겨 마시는데,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의 부인이 이 들쭉술을 맛보고 포도주보다 훨씬 좋다고 감탄하자 12상자를 선물했다는 일화도 있다.



금술은 술에 금이 들어 있는데 병을 거꾸로 하면 금이 술병 안에서 떠다니는 것이 보인다. 금을 용해시켜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오가피술, 산머루술 등 나무 열매를 가지고 만든 술들이 많은데, 대부분 알콜도수가 40도이며 같은 술이라도 도수를 약하게 한 것도 있다. 보드카 등 일반인들이 많이 먹는 술은 가격이 저렴하지만 다음날 머리가 좀 아프다. 들쭉술, 인풍술(40도), 개성인삼술(30도) 등도 비교적 무난하다.

맥주는 룡성, 금강 등의 맥주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하게 먹는 것은 룡성맥주이다. 색깔이 진하고 맛이 달짝지근한 편이다. 630ml들이 병맥주가 인기가 높고 금강맥주는 350ml들이 캔으로도 판다. 남한의 맥주에 비하여 약간 약한 것 같으나 자주 마시면 구수한 맛이 난다. 최근에는 대동강 맥

북한상식

신분증

‘출생증’은 17세 이하 청소년들의 증명서로 우리의 파출소에 해당하는 분주소에서 출생 신고서를 받아 인적사항을 기재한다. 출생지, 성명, 생년월일, 성별, 민족별, 부모이름, 관계 등을 세대주가 기록한다.

인민보안성에서 발급하는 ‘공민증’은 만 17세 이상 모든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지녀야 하는데 이름, 성별, 민족별, 출생지, 거주지, 결혼관계, 혈액형이 기재되어 있다. 1998년 전면 갱신된 공민증에는 출생일과 결혼일을 ‘주체 ○○년’으로 표기하고 있고 혈액형란을 추가했다.

주도 많이 마신다.

그 밖에 포도주를 비롯하여 지방 특산주들이 있으나 대부분 도수가 높고 맛이 비슷비슷하다.

다. 주요 식당

(1) 옥류관

대동강변에 자리잡고 있는 북한 최대의 음식점으로 남한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곳이다. 수려한 경관과 맛있는 냉면으로 유명한 이 곳은 1960년대 개업한 이후 수요를 감당



하기 위하여 본관을 중심으로 옆으로 증축과 개축을 거쳐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의 주요 인물 및 남한에서 방문한 사람들이 한번쯤 들르는 곳이다.

주 메뉴로는 평양냉면, 온면, 쟁반국수 등의 국수류와 송어탕 등의 탕류가 있으나 보통 국수류를 가장 선호하며 최근에는 고기국수(닭고기를 쟁반 밑에 약 100~150g 정도 놓고 국수를 그 위에 얹고 나중에 육수를 부어서 먹음)가 인기 메뉴로 추가되었다.

외부 식사가 가능한 날씨에는 대동강의 풍경을 즐기면서 식사할 수 있다. 후식으로 차와 아이스크림(얼음보숭이)을 제공하는데, 특히 아이스크림 맛이 좋다.

냉면은 200g이 기본이나 100g 또는 300g 단위로 추가 주문도 가능하다. 냉면 및 기타 지짐 등을 추가하여 식사를 하면 1인당 약 15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2) 청류관

대동강 지류인 보통강변에 자리잡고 있는 옅은 녹색의 건물로 된 음식점이다. 공간이 넓어 여러 명이 단체로 식사를 즐길 수 있으며 냉면 및 기타 구이류와 탕류의 식사를 할 수 있다.

바로 옆의 보통강과 주변의 푸른 녹음이 어울려 경치가 좋다. 주변 보통강변은 가족 및 연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주말에는 가족단위로 식사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인근에는 빙상관 및 평양 실내체육관과 창광원 및 낙원백화점이 있다.



(3) 안산관

보통강변 녹음으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한 식당으로 푸른색의 단층 건물로 일반 구이류(소, 오리, 낙지)와 냉면 및 기타 음식류를 판매한다. 청류관 쪽으로 위치한 둥근 모양의 건물에서는 단고기(개고기)가 유명하다. 단고기는 부위별로 판매하며 통다리찜의 경우는 두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주변에는 보통강호텔과 창광원 및 낙원백화점이 있다.

(4) 민족식당

중 구역 고려호텔 건너편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영광거리 국제문화센터 건물지하에 있는 식당으로 일반 식당과는 다르게 공연을 관람하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각종 구이류와 전골류 등의 음식이 있으며, 전골류는 남한에서 유행하는 징기스칸 요리와 비슷하다. 공연은 민속음악과 피아노, 개량 거문고 합주도 있고, 중간 중간에 가수가 나와서 민요 및 가요를 부른다.

(5) 평양단고기집

통일거리에 위치한 식당으로 1층은 냉면 및 국수류를 판매하고 2층은 단고기를 전문으로 판매한다. 1인당 30원, 50원 등 가격에 따라서 코스요리를 즐길 수 있다. 각종 부위가 개인별 코스식으로 나온다. 식사와 함께 식당 안에 노래 반주기가 있어서 노래를 부르며 즐길 수 있다.

북한상식

북한상식

단고기

북한에서는 개고기를 단고기라고 한다. 북한에서는 단고기만 전문적으로 파는 곳이 있는데, 찾기 편하고 수월하여 마을마다 단고기 요리집이 하나씩은 있을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다. 남한에서는 전골이나 수육의 형태로 먹는데 비해 북한에서는 대개 폭 삶아 탕으로 먹으며 식당에서는 부위별로 요리하여 먹는다. 단고기는 허약자에게 특히 좋다고 한다. 집안에 몸이 허약한 사람이 있거나 수술 환자가 있을 때는 개소주나 개엿을 만들어 먹이기도 한다.

코스요리로 전식(간, 곱창, 골, 신, 껍질), 주식(등뼈, 갈비, 통다리, 무침), 장국, 후식이 있고 개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하여 소, 생선, 닭 등 별도의 코스요리가 있다.

(6) 고려호텔 식당

고려호텔 1층에는 식당(구이 및 냉면)과 외국식당이 있고 별관에는 고려외화식당 등 여러 개의 식당이 있다. 호텔 내의 연못 주위에서 식사할 수도 있으며, 구이 및 냉면이 맛있다.

고려외화식당은 각종 탕류(소내장탕, 잉어탕 등)가 맛있다.

(7) 고려호텔 주변 식당가 (창광거리)

고려호텔 앞 거리 양쪽은 일종의 전문 식당가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식당과는 다르게 식당 안이 밖에서 훤히 보이고 내부 시설들도 좋은 편이다. 식당별로 특성을 살리고 있다.



〈창광거리〉

(8) 은반식당

빙상관 지하와 청류관 옆의 보통강변에 자리잡고 있는 식당으로 각종 회와 각종 구이, 탕류 및 국수류(냉면, 온면)를 판매한다. 저녁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 탕류 중에서도 대합탕이 특히 시원하다.

(9) 보통강호텔 식당

대부분의 투숙객이 아침 및 일반식사 할 때 많이 이용하는 보



알아두기

식사 예절

▶ 공식 행사나 만찬 시

공식적인 식사는 일반적으로 초청측에서 먼저 대접한다. 만찬 시에는 우선적으로 자리를 배치한다. 둥근 테이블의 경우는 직위가 높은 사람이 문 쪽에서 먼 쪽의 자리나 그림 등의 배경이 있는 쪽에 앉으며 그 다음은 나이를 배려하는 것이 좋다. 회담시에는 양쪽이 분리되어 앉지만 식사시에는 서로 어울려 앉는 것이 좋다.

만찬의 경우는 음식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나오므로 식사량을 조절하면서 먹는 것이 좋다. 음식은 음식을 날라 주는 사람(봉사원, 접대원, 의례원)이 나눠 주므로 먹기 싫은 음식은 사양해도 된다. 굳이 못 먹는 음식이 아니면 조금씩 여러 가지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좋다. 두번째 공식적인 식사는 방문자 쪽에서 주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일반 식당을 이용할 때

일반적인 식당에서 구이나 음식을 시키면 식사 이외의 음식은 나오지 않는다. 김치나 물도 별도로 주문하여야 한다. 고기를 먹을 때도 야채류는 별도로 주문을 하여야 한다.

식당에 근무하는 직원을 부를 때 아가씨라고 부르는 것보다 접대원(의례원)동무라고 하거나 직접 이름 뒤에 동무를 붙여서 부르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슴에 명찰을 달고 있어서 이름을 쉽게 볼 수 있다.

▶ 술을 겸한 식사를 할 때

공식적인 식사 때 보통 여러 가지 술이 같이 나온다. 남한에서는 술잔의 술을 다 마셔야 술을 다시 따라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북한에서는 술잔에 술이 있어도 침잔의 형태로 술을 먹으며 남한의 경우처럼 한 자리에서 여러 종류의 술을 먹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술잔을 돌리지 않는다.

남한의 경우 식당에 술을 가지고 들어가면 매상을 고려,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식당에서는 그렇지 않으며 술을 가지고 가면 오히려 잔이나 얼음 등을 준비해 준다.

통식당, 서양요리를 주로 하는 모란식당, 만찬 등을 위한 민족식당 등이 있으며 지하에도 식당이 있다.

보통식당에서는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등의 여러 가지 요리가 가능하며 메뉴판에 없는 음식도 주문하면 만들어 주거나 언제 가능한지 알려 준다. 구이류를 직접 구워먹고 싶을 때는 지하식당을 이용하면 된다. 이 호텔 커피숍에서는 일본에서 수입한 아이스크림, 원두커피, 홍차, 냉동피자 등을 판매한다.

(10) 양각도호텔 식당

양각도호텔에는 여러 식당이 있으나 특별히 만장(최상층) 식당은 평양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식사를 할 수 있으며 시설도 가장 현대적이다.

4 백화점과 상점의 이용

가. 백화점

(1) 제1백화점

평양의 중심지역인 김일성광장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 건너에 조선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 등의 볼거리도 많고 2~3분만 걸으면 대동강변에 도착할 수 있다. 상품은 다른 백화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 위치 : 중심구역 승리거리



(2) 락원백화점

1층에서는 식품류 및 전자제품과 가구류 등을 팔고 2층에서는 일반 잡화 및 소형 가전 제품을 판매한다. 평양의 다른 백화점에 비하여 상품의 질이 높으나 수입 제품이 많다. 외교관, 주재원 및 고위직이 자주 이용하는 곳이다.

- 위치 : 중구역 동성동

(3) 기타 백화점

그밖의 백화점으로는 동평양, 서평양, 대성 등 10개 정도가 있으나 특화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진열되어 있는 상품이 비슷하다. 일본산과 중국산이 상품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나. 호텔 내 상점

대부분의 호텔 내에는 상점(음·식료품, 기념품, 서점)이 있으며 달러 및 기타 외화의 사용이 가능하다. 유로화, 달러, 인민폐, 엔화를 주로 사용한다.

(1) 식·음료

수입품이 주로 많으며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한 제품들이다. 우리가 즐겨 먹는 콜라나 세븐업 등도 대부분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으며 일부 통조림(과일, 육류, 생선류) 등은 일본어로 표기되어 있다.

북한에서 생산한 음료 및 과자류 등도 있으나 맛이 별로 없다. 대부분 룡성식품에서 생산하는데 탄산음료인 배단물, 딸기단물 등이 있다.

(2) 기념품

그림 및 수예와 조각품들이 많다. 수예품의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며, 그림의 경우도 일부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나 가격의 차이가 많다. 조각품들은 나무와 돌로 된 제품들이 있으며 크기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난다.



알아두기

기념품 사기

기념품으로는 술과 각종 공예품이 인기가 있다. 북한 술을 사올 때는 부치지 말고 술병을 세워서 들고 오는 편이 좋다. 마개 포장에 완벽하지 못해서 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예품은 만수대 창작사나 수출외화상점 및 호텔 기념품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림, 수예, 도자기, 조각품(돌, 나무), 판화 등이 있다.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며 같은 크기의 제품도 작가의 지명도에 따라 매우 차이가 크다.

주의할 것은 기념품을 살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영수증은 북한에서 나올 때에도 제시를 요구할 뿐 아니라, 인천공항에서도 영수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가지고 있도록 한다.

➔ 미술품, 도자기, 공예작품, 우표, 화폐, 엽서, 연하장 등은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이다. 또한 북한을 방문하는 기호가 많아지면서 고향이 북한인 사람들이 향수를 달래려고 흙이나 돌 등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품목도 반입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3) 서 점

일반적인 간행물 및 관광용 책자와 기타 서적을 판매한다.

관광용 책자의 경우는 종이 질이 비교적 좋은 편이나 일반 서적의 경우는 종이 질이 떨어지고 인쇄 상태도 매우 좋지 못하다.

호텔 등의 서점에서는 책 이외에 일부 기념품과 음반 등을 판매한다. 음반의 경우는 카세트 테이프 및 CD로 된 음반을 같이 판매하는데 대중가요나 선



전가요 및 각종 민요를 담고 있다. 일부 공연물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 등을 판매하기도 한다. 비디오 테이프는 VHS와 BETA 방식의 두 종류를 판매한다.

- ▶ 음반 및 서적은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을 요하는 품목이다. 북한 체제의 찬양과 무관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해치지 않는 소량의 여행자 휴대품은 세관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통관될 수 있다.

(4) 기타 물품(약품 및 의류, 가전제품)

호텔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부 호텔에서는 약품 및 의류,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다. 약품의 경우는 일반 상비약(우황청심환류)을 판매하지만, 고려호텔 등 일부 호텔에서는 여러 종류의 수입 약품도 판매한다.



〈북한의 건강식품〉

의류는 주로 한복류가 많으며 원단을 파는 경우도 있다.

가전제품의 경우는 북한에서 제작한 TV가 있으나 거의 대부분 수입품들이며 가격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몇 년을 모아도 사기 힘들 만큼 비싸다.

5 교통·통신의 이용

가. 교통편의 이용

(1) 초청기관의 차량 이용

북한 체류 기간에는 초청 기관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교통편을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방문자의 인원수에 따라서 소형 및 대형버스를 제공하며 일반적인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않는다.

방북 대표단 및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단장용으로 벤츠나 일제 차량이 나오고 기타 인원을 위해서는 12인승 승합차나 24인승 소형버스가 주로 제공된다.

(2) 택 시

호텔에서 이동할 경우 택시를 요청하거나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안 내원과 같이 가야 탈 수 있다. 이전에 비하여 택시의 숫자가 다소 늘어났으며 차량도 좋은 차들로 일부 바뀌었다.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비싸기 때문에 거리에서 자주 보이지는 않고,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이나 백화점 등에 가면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쉽게 볼 수 있다. 보통 차 지붕에

북한상식

북한상식

택 시

평양의 택시는 외국인 전용 택시와 일반주민용 택시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노란색 바탕에 검은 숫자로 된 번호판을 부착한 외국인 전용택시는 사전에 예약할 경우 북한 돈으로도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회색바탕에 검은 숫자로 된 번호판을 부착한 일반주민용 택시는 1992년 일본 조총련 회사와 합작으로 설립한 광동합작회사가 일제 중고차를 수입해 영업하고 있으며 모든 요금은 외국인 전용택시와 동일하다.

일제 도요타, 닛산, 크라운, 스웨덴제 볼보 등이 대부분인 택시 차량번호는 평양 50-××× 표시되어 있다.

TAXI라는 문구가 있지만 오래된 차들은 뒷좌석 뒤편에 TAXI 문구를 붙이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

(3) 전 차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가 있다. 무궤도전차는 전기로 동력을 공급받아 도로에 레일이 없이 다닌다. 전차 앞에 출발지와 목적지가 표기되어 있다.



〈궤도전차〉

궤도전차도 전차 앞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표기하여 이용자들이 목적지를 확인하고 승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번호를 별도로 표기하지는 않는다.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천리마호, 청년호 등)의 모든 차량은 고유의 이름이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이용객이 많아서 매우 복잡하며 낮에는 다소 한산한 편이다.

(4) 지하철

평양에는 두 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다. 동서노선이 광복역 - 낙원역(락원역), 남북노선이 부흥역 - 붉은별역 간을 운행한다.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차표를 사서 개폐기를 통과하여 깊이가 에스컬레이터로 보통 100m 이상의 지하로 내려가게 된다.

지하철은 폭이 좁고 내부는 대부분의 조명을 켜지 않아서 매우 어둡다. 지하철역의 내부는 다소 넓으며 벽에는 벽화로 치장되어 있고, 조명은 형광등과 상제리제(무리등)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 지하철역 내부는 별도의 냉난방 시설이 없으나 깊어

평양지하철 노선도



서 여름에는 들어가도 덥지 않고 겨울철에는 춥지 않다. 승차 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오랫동안 놀기도 한다.

(5) 기타 교통수단

대부분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것이 보통이지만 최근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화물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다.



자전거는 최고의 교통수단으로 평안남도 평성군에 있는 송천 자전거 공장 등 20곳 이상의 공장에서 연간 15만~20만 대가 생산되며, 헝가리 등에도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 값이 비싼 편이어서 대중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나. 전화·팩스 등의 이용

(1) 전 화

호텔 방에서 국제전화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는 별도로 신청한다. 요금은 호텔을 떠날 때 계산하면 된다. 대부분의 경우 호텔 내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곳에서는 전화를 사용한 후 계산대에서 전화한 국가명과 지역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돈을 지불한다. 원하면 영수증도 작성해 준다. 나라에 따라 요금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다.



알아두기

공중전화

북한에는 현재 1백여 만 회선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으며 90% 정도가 공용으로 알려져 있다. 공중전화는 평양이나 청진 등 대도시의 주요 거



리와 백화점, 호텔 등에 보급되어 있고, 시·군지역에는 우리의 우체국에 해당되는 체신소 내에 2~3대씩 가설되어 있다.

그러나 군 단위 이하 동리에서는 기관이나 기업소를 찾아가 대장에 용건을 기재하고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중전화 기종은 다이얼식과 수동식 두 가지로 평양을 제외한 지역은 대부분 교환원이 접속해 주는 수동식이다.

우리의 114와 같은 1280I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 ➔ 고려호텔에서는 객실에서 별도의 신청없이 바로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중국 북경의 경우 '00-86-10-전화번호'를 걸면 된다.

(2) 팩 스

팩스의 경우도 호텔 내의 전화국이나 비즈니스 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발신 및 수신 모두 요금을 받는다. 보낼 국가명과 지역 및 전호번호를 신청서에 적어 주면 팩스를 보내주고 돈을 지불하게 된다. 전화처럼 국가마다 요금이 다르다.

1999년까지만 해도 일부 호텔의 경우 비즈니스 센터를 문닫는 시간에 팩스기의 전원을 꺼버려서 수신이 불가능했지만 최근에는 24시간 수신이 가능하다. 서방의 기업 및 방문자가 늘어나게 되었고, 유럽과는 7~8시간 정도의 시차가 나므로 서로의 업무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상식

북한상식

지역감정

북한의 남부지역 사람들은 북부지역 사람들이 영악하고 다혈질적인 기질이라고 싫어하고, 북부지역 사람들은 남부지역 사람들이 이중적이며 생활력이 약하고 이기적이라고 싫어한다. 또한 북한에서는 지역간의 갈등과 감정을 통틀어 '지방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처럼 지역감정에 의해 정치가 좌지우지될 정도로 심하지는 않다. 굳이 정치적인 색깔을 따지자면 평양과 지방사람들간의 갈등 정도라고 할 수 있다.

(3) 인터넷과 휴대전화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지구촌이란 말을 실감케 하는 상황에서 유감스럽게도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북한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없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은 나라이다.

북한의 도메인은 kp이지만 북한에는 이 도메인을 관장하는 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 도메인도 IANA(Internet Address Numbers Authority)에 등록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기구인 아시아·태평양 인터넷 정보센터(APNIC)에 등록한 것이다. IANA는 세계 242개의 독립지역과 국가 도메인 이름을 정하고

북한상식

북한상식

쌍둥이와 아기 이름

2000년 3월 23일 밤 9시 45분께 함경북도 온성군 중산리 31 인민반에 사는 한영실(여, 28) 씨는 세 쌍둥이를 출산했다.

세 쌍둥이의 이름은 맏이가 최강국, 둘째는 최성국, 셋째는 최대국으로 지었다. 아기들 이름의 첫 글자와 돌림자를 합치면 강성대국이 된다. 이처럼 부모들이 쌍둥이의 이름을 주민들의 사상강화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짓는 경우가 많다. 일편단심, 총폭탄, 일당백, 근위대, 친위대, 노동당, 충성심 등의 낱말 중 한 자씩 이용해 돌림자와 함께 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다.

북한 보건당국은 다태자(多胎子)가 태어나면 나라가 흥할 징조라는 인식 아래 산모가 쌍둥이를 밴 것으로 진단되면 평양산원으로 옮겨 산모의 출산과정을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관장하는 기관을 나라별로 지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북한도 인터넷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5월 방중시 중국 IT산업의 중심인 중관촌(中關村)을 방문한 바 있고, 컴퓨터 첨단산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사는 북한을 대리해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에 있는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는 조선인포뱅크를 개설, 북한 정보를 회원제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최근 태국의 록슬리 그룹과 공동으로 유럽방식(GSM)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6 여기활용과 종교활동

가. 여기활용

방북기간 중에는 자유로운 호텔 외부 출입이 제한되게 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적절히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챙겨두도록 한다.

(1) 숙소에서의 휴식

방북기간 중 하루 일과 후 외부에서 식사를 하지 않으면 호텔로 돌아와서 식사를 하게 된다. 호텔 외부로는 안내원 없이 혼

자 돌아다닐 수가 없으므로 식사 후 객실에서 TV를 시청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호텔내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시간을 보낸다.

〈참고〉 북한의 언론

【신문·잡지】

북한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대부분 기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로동신문」(노동당 기관지), 「민주조선」(내각 기관지) 등이 있으며 일반 사설 기관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없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은 「로동신문」으로 비행기 기내 및 호텔에서 볼 수가 있다. 보통 8면으로 구성된다. 1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정과 관련된 기사가 실리고 2면은 공산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게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남한의 경우처럼 가판대에서 판매되지 않고 기관 및 단체별로 배달된다. 영자지로는 *The Pyongyang Times* 가 있다.

북한에서 발행되는 잡지로는 노동당의 이론지인 「근로자」를 비롯하여 「천리마」, 「조선문학」, 「전자공학」, 「사회과학」 등 30여 종이 있다.

【TV방송】

북한의 TV방송은 북한 전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조선중앙TV가 대표적이며, 그밖에 만수대TV, 교육·문화TV 등이 있다.

만수대 TV는 시청대가 평양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주말에만 방송을 한다. 교육·문화TV는 교육·문화·체육관련 전용채널로 북한주민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남한의 NTSC 방식과는 달리 PAL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에서는 남한 TV를 볼 수가 없으며 남한에 있는 일반 TV로는 북한 TV를 시청할 수 없다. 비디오도 마찬가지이다.

【라디오방송】

북한의 라디오방송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평양 FM방송 등

이 있다. 주로 조선중앙방송을 청취하게 되며 평양방송은 대외전문 방송이다.

평양 FM방송은 92.5MHz와 105.2MHz 두 가지로 저녁부터 하루 8시간 가곡과 외국음악 등을 방송하고 있다.

【통신사】

유일한 통신사로 조선중앙통신사가 있으며 노동당 및 내각의 공식적인 대변기관 기능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TV 프로그램 (평일)

2005. 3. 3

시 간	프 로 그 램
17:10	• 보 도
17:20	• 오늘호 중앙신문 개관
17:33	• 〈아동방송시간〉 방문기 : 푸른 꿈 꽃피워주는 과외소조들 (라선제중학교를 찾아서) 아동영화 : 영리한 너구리(55, 너구리가 가져온 물)
18:00	• 〈세계상식〉 완충효과를 이용한 신발
18:08	• 〈선군장정의 길에 새겨진 불멸의 자욱〉 연속기행 : 강계시에 수놓아진 선군영장의 빛나는 자욱을 더듬으며(1)
18:35	• 〈혁명전통교양의 만년재보를 마련한 위대한 영도〉 연속편집물 : 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대기념비들 (백송리와 더불어 빛나는 영상)
19:02	• 〈과학기술상식〉 초고전력전기로에 대하여(2)
19:16	• 〈과학영화〉 좋은 나무를 많이 심자(2)
19:35	• 〈뜨거운 여덟달〉 대안친선유리공장건설장
20:00	• 보 도
20:36	• 〈텔레비전연속극〉 왕재산(제8부)
21:22	• 시사해설
21:30	• 〈병사의 고향소식〉 방문기 : 원군길에 앞장선 탄전의 후방가족들 (강서탄광을 찾아서)
21:43	• 〈연속편집물〉 성강땅에 새겨진 전변의 이야기 (애국의 마음안고 펼쳐나선 성강의 안해들)
22:19	• 오늘의 보도 중에서

(2) 당구장

호텔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호텔에 당구장이 있다. 당구대에 구멍이 있는 포켓볼 당구를 친다. 북한의 안내원과 같이 즐기기도 한다. 당구장에는 대부분 간단한 음료와 맥주를 마실 수 있는 매점이 있다.

(3) 스탠드 바

혼자 있는 경우 또는 간단하게 칵테일이나 음료 등을 마시면서 대화할 때 이용한다. 대부분의 칵테일과 주류 및 간단한 음료와 안주가 있다.

(4) 노래방(가라오케)

주류나 음료 등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곳으로 대부분 입장료를 별도로 받는다.

노래는 북한노래와 일본노래, 영어노래, 중국노래를 부를 수 있다. 노래반주기에 노래가사가 나오는 형태로 남한의 가라오케와 같다. ‘봉선화’, ‘고향의 봄’, ‘동무생각’, ‘아침이슬’, ‘우리의 소원은 통일’, ‘조선팔경’ 등 남한사람의 귀에 익은 노

북한상식

북한상식

전자오락과 노래방

북한 청소년층에 큰 인기가 있는 전자오락은 태권도를 소재로 한 격투기 게임 등이라고 한다. 전자오락실 이용대금은 한 게임당 1~3원이며 영업을 하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게임팩 대여사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학생들에게도 게임은 흥미의 대상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PC를 소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는 수는 매우 한정적이다.



북한에도 청소년 전용의 노래방이 있다. 화면반주 음악실로 불리는 노래방은 1990년대 초 평양에 처음 설치되었다. 평양 청년중앙회관에 250석 규모로 마련된 노래방은 청년중앙회관 대중정치교양과에서 운영하는데 근로청년, 대학 및 전문학교 학생,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다. 우리와 같은 규모의 대중적 노래방은 아직 없다.

외국인을 위하여 호텔 등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광 거리에 ‘창광 노래방’이 있는데 남한의 가요주점과 비슷한 곳이다.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으나 가격이 매우 비싸다.

목욕탕과 이발소

북한의 목욕탕은 각 시·군 편의봉사관리국에서 운영하며 구역과 군단위에 1개씩 있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수요일은 정기휴일이다.

북한 최대 규모인 평양 창광원은 4층 건물로 1층과 4층에 개인목욕탕과 가족탕이 있고 2~3층에 남녀 대중탕이 있어 하루 1만6천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발소와 미용원도 역시 편의봉사관리국에서 운영한다. 이발소는 일반이발소와 고급이발소, 아동이발소가 있다. 일반이발소는 본인이 머리를 감지만 고급이발소는 이발사가 머리를 감겨주고 화장품을 발라준다. 북한 여성들은 미용원에서 커트와 파마로 멋을 낸다.

래도 상당 수 있다. 이런 노래들과 함께 ‘휘파람’, ‘우리는 하나’, ‘반갑습니다’, ‘심장에 남는 사랑’ 등을 부를 수도 있다.

(5) 사우나 및 안마

장기간 체류 시 사우나나 안마를 받으면서 피로를 풀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호텔 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나. 종교활동

북한당국은 방북 외국인들을 위한 선전수단으로 공인된 교회와 성당에서 종교의식을 허용하고 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안내원과 협의하여 종교생활을 할 수 있다.

북한상식

북한상식

독특한 우리식 머리이름

남성들이 찾는 이발소에서는 여러가지 머리 모양이 걸려 있고 손님들은 이 중에서 자기의 취향에 따라 머리 모양을 선택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구름머리, 갈매기머리, 송이머리 등이 있다. 얼굴의 피로를 풀어 주는 안면 마사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여성들의 머리모양도 계절에 따라 우리식으로 불린다. 여름철에는 나리꽃머리, 폭포머리, 단발머리 등이 유행하고, 겨울철에는 옥류머리, 들국화머리, 조발머리, 수국화머리 등을 주로 한다. 이외에도 함박꽃머리, 청춘머리, 대학생머리, 파도머리 등이 있다.

(1) 불 교

북한에는 약 1만명 정도의 불교신자와 300명 정도의 승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찰은 전국에 약 60개 정도가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사찰에는 승려가 없는 경우도 있으며 대신 관광객을 위한 안내원이 절을 관리한다.

불교신자들은 휴식을 겸하여 묘향산이나 기타 지역의 사찰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독교

평양에는 두 개의 교회와 가정 예배처가 있다. 봉수교회는 1988년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 만경대 구역 봉수동에 있다. 신자는 약 300여 명 정도라고 하는데 보통 150~200여 명의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칠골교회는 봉수교회 이후 1992년 만경대구역 칠골동에 세워졌으며 신도나 규모는 봉수교회보다 적다. 일요일에 봉수교회나 칠골교회에 가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 성경책도 있으며 성가대가 있어서 성가를 부르기도 한다.

(3) 천주교

천주교는 해방 전에만 하여도 매우 번성하였으나 현재는 기독교에 비하여 신자나 규모가 적다.

평양에는 1988년 세워진 장충성당이 있다. 현재 정식 신부 서품을 받은 사람은 없다. 여기도 남한에서 북한을 방문한 사람이 미사를 드릴 수 있다. 신자의 수는 약 3,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4) 기타 종교

기타 가장 활동이 많은 종교로는 천도교가 있다. 신자는 약 1만5천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내에서 다른 종교에 비하여 천도교 지도자가 갖는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7 의료시설의 이용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급히 치료받을 일이 생기면 절대 참고 견디려 하지 말고 즉시 안내원이나 호텔 접수에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한다.

고려호텔의 경우 1호동 704호에 의무실이 있어서 응급처치가 가능하고, 더 아플 때는 친선병원 등에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북한에서도 남한 방문자들의 건강 상태에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 연로하신 분들이나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지방의 경우는 평양에 비해 의료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 평양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면 우선 안내원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치명적인 부상의 경우는 평양으로 돌아와서 외국인의 진료가 가능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우리의 경우는 적십자 병원이나 김만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북한사람들이 다니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중하거나 치료가 어려울 경우 국내로 후송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상식

북한상식

영화 · 영화관 · 불가사리

대표적인 영화로는 항일무장투쟁을 주제로 한 「피바다」(1969년), 「한 자위단원의 운명」(1970년), 「꽃피는 처녀」(1972년), 「백두산」(1980년), 「소금」(1985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소금」은 1985년 모스크바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식민지시대 소금 조차 제대로 구할 수 없었던 빈곤 속에서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드는 한 모자의 삶을 그리고 있다.

북한의 영화관은 영화 상영 뿐 아니라 가극, 연극, 교예 공연도 할 수 있는 복합 문예시설과 영화만을 상영하는 전문 영화관으로 나누어진다.

평양에는 락원, 대동문 등 8개의 영화관이 있다. 청진과 신의주 등 주요 도시에 3~4개, 지방에는 1개 정도의 영화관이 있는데 평일의 경우에도 상영(탈북자 증언)하고 규모는 평균 500석 정도로 휴게실이나 매점은 거의 없다고 한다.

한편 1985년 영화광으로 알려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명령으로 일본영화사가 특수촬영부분을 청부받아서 북한판 고질라라고 볼 수 있는 「불가사리」가 제작된 바 있다.

고려말에 악정으로 신음하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철을 먹는 전설의 괴수 불가사리가 제작되었는데, 소처럼 뿔이 나 있는 이 괴수는 불사신과 같아 영화속에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불가사리가 강력한 힘을 발휘해 못된 왕을 죽이게 된다. 그런데 이 괴수는 철을 먹고 살다보니 백성들이 중요시하는 철제 농기구까지도 먹어버리게 되어 나쁜 왕은 없어졌지만 농부들은 농사를 못짓게 된다. 이 때 등장하는 여주인공인 소녀가 자신을 희생해서 불가사리를 태워 재로 만든다는 이야기다.

북한상식

북한상식

대중가요와 노래 경연대회

북한의 대중가요는 창작과 보급이 당국의 방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노래 곡조는 대부분 행진곡풍이며 내용도 체제선전 및 노동의욕 고취 등 당 정책을 구현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선전·선동적 내용의 혁명가요 외에 남녀간 애정을 소재로 한 노래들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곡들로 1990년에 나온 ‘휘파람’과 1991년에 나온 ‘처녀시절’, ‘날보고 눈이 높대요’, ‘여성은 꽃이라네’, 그리고 1992년에 보급된 ‘모르는가 봐’ 등이 있다.

우리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반갑습니다’와 ‘휘파람’은 보천보전자악단 작곡가 겸 지휘자인 인민예술가 리종오씨가 1991년 작사·작곡한 곡이다. “동포여러분, 형제여러분 /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로 시작되는 ‘반갑습니다’는 보천보전자악단이 일본공연을 위해 노래로 알려져 있다.

그 후 1990년대 중반에는 주민들이 혁명가요 보다 애정가요를 더 많이 부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당국이 애정가요를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부르지 못하도록 제제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북한에서도 우리의 전국노래자랑과 비슷한 전국근로자노래경연이 인기가 있다. 1987년 시작된 전국 근로자 노래경연은 저녁시간 TV로 방영되는데 노동자, 농민, 대학생, 주부 등 평범한 사람들이 출연하여 노래실력을 겨룬다.



5

북한에서 가 볼 만한 곳

1. 평양지역 / 113



2. 남포지역 / 124



3. 개성지역 / 128



4. 백두산 / 132



5. 묘향산 / 138



6. 금강산 / 144



1 평양지역

가. 개 관

평양은 북한의 수도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면적은 서울의 4.3배인 2,629km²이다. 평양은 19개 구역을 포함한 주위 4개 군(강남, 강동, 중화, 상원)과 10개 노동자구로 구성되어 있다.



평양은 크게 강북(순안, 룡성, 대성, 서성, 모란봉, 보통강, 만경대 구역), 강동(대동강, 동대원, 선교구역), 강남(락랑, 력포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북은 정치, 예술, 문화, 스포츠의 중심지이고 강동은 교육중심의 신개발지, 강남은 산업중심지로 편의상 구분할 수 있다.

나. 평양의 주요 구역

(1) 모란봉구역

비교적 많은 역사적 유적이 있는 곳으로 평양에서 자연 경관

과 전망이 좋은 곳이다. 북한의 국보 1호인 평양성 및 성곽과 누각들이 있다.

모란봉 밑 칠성문에서 시작하여 조선의 8대 누각 중의 하나인 을밀대에 올라가서 대동강을 바라보고 현무문과 최승대를 둘러보며 부벽루를 거쳐 청류정을 둘러본 후 하산하는 코스가 좋다. 중간에 모란 국수집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좋다.

중간에 김일성 경기장으로 하산하면 개선문으로 내려오게 된다. 역사적 유적지 답사 코스로 가 볼 만하다

(2) 중구역

평양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다. 대부분의 건물이 6·25전쟁 이후 북한에서 건설한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고, 평양에서 가장 변화한 거리이다. 인민대학습당



〈인민문화궁전〉

앞 김일성광장 주변에 조선역사박물관 등 몇 개의 박물관이 있다.

조선역사박물관에는 구석기에서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사진으로만 보던 고구려 및 발해와 고려의 유적을 볼 수가 있다. 박물관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돌아볼 만하다. 이곳에서 고려호텔로 이어지는 승리거리에는 각종 박물관 및 북한의 정부건물, 영화관, 극장들이 집중되어 있다.

또 다른 코스는 인민대학습당에서 보통문을 거쳐 인민문화

북한상식

북한상식

북한의 '오렌지족'

남한의 압구정동 로데오거리는 '오렌지족'으로 불리는 부유층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다. 북한에도 압구정동을 무대로 삼는 오렌지족과 같은 부류가 있을까?

평양시 중구역 창광거리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집무실을 비롯하여 중앙당 청사, 공공건물들이 줄지어 있다. 이곳은 상류 계층의 거주지역으로, 각종 음식점들이 밀집해 있고 청소년들의 데이트 장소로 알맞다는 입지조건 때문에 권력층 고위간부나 북송교포의 자제, 그리고 해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부류들의 주무대라고 한다. 우리의 오렌지족에 비유할 수 있을 듯하다.

궁전, 창광원에 이르는 곳이다. 보통문에서 시작하는 이 거리는 특히 가을철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볼 만하다. 인민문화궁전은 정상회담 때 만찬장소로 이용되는 등 남북한간에 회합이 많았던 건물이다.

그 옆으로 평양 실내체육관이 있고 그 다음 넓은 광장이 있는데 이 곳은 학생들이 집단체조(매스게임)를 자주 하는 곳이다. 창광원은 종합 스포츠센터 같은 것으로 이·미용실 및 안마, 사우나, 수영장이 있고 평일(월~금)은 북한주민에게 개방된다.

외국인에게 개방되는 주말에는 남한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다. 국제기준(50m×25m)의 수영장과 다이빙 풀이 있는데 수영장과 사우나탕이 연결되어 있다. 수영 후 피로를 풀기 위하여 안마를 받을 수도 있다.

(3) 만경대구역

김일성 생가가 있는 만경대가 있어서 이 지역을 만경대구역이라 한다. 주로 이 지역은 광복거리와 청춘거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춘거리는 일명 체육인거리라고 불리운다. 서울 올림픽공원처럼 여러 개의 경기 시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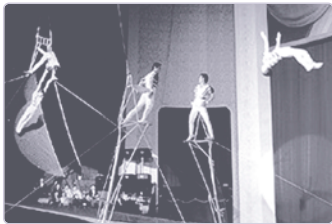
〈만경대〉

대동강에서 시작되는 청춘거리 우측에는 서산축구경기장, 핸드볼, 탁구, 격투기, 배드민턴, 실내수영장 등의 경기시설이 있고 맞은 편에는 배구, 농구, 역도, 사격, 태권도 경기장이 있다. 스포츠 및 관련분야의 사람들은 한번 둘러 볼 만하다. 일부 시설은 휴일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청춘거리와 광복거리가 만나는 칠골 입체교차로에서 광복백화점 못 미쳐 평양교예극장이 있다. 이 건물은 1989년 준공한 건물로 거북이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총 좌석은 약 3,500석 정도이며, 평일에도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찾고, 특히 학생이나 어린이들이 많다.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의 관광객이 단체로 자주 들르는 관광코스 하나이다.



〈교예〉

주말이나 평일 일과 후 교예(서커스)를 구경하러 갈 만하다. 약 1시간 30분정도 공연을 하는데 계

〈참고〉 평양의 주요 거리

거리이름	위 치	주변명소
천리마거리	보통문에서 평천구역 충성의 다리까지	정부종합청사, 인민문화광장, 평양체육관, 창광호텔, 창광원, 청류관 등
승리거리	대동강변을 따라 대동교, 옥류교, 능라교까지	노동신문사, 김일성광장, 평양제백화점, 평양학생소년궁전, 옥류관 등
창광거리	천리마 거리에 이웃하여 평양역에서 보통문까지	노동당사, 고려호텔, 창광거리 음식점 등 대단위 식당가
광복거리	팔골사거리에서 만경대까지의 직선 거리 구간 (도로폭 100m, 길이 6km)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교예극장 등의 문화위락시설, 대규모 고층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청춘거리	광복거리에서 안골입체다리	태권도전당 등 주요 경기장과 부대시설
통일거리	낙랑구역에 새로 조성된 신시가지	각종 문화후생시설과 평양면옥, 단고기집 등이 있는 대동강변의 거리



통일거리



광복거리

절별로 조금씩 내용이 다르다. 여름에는 무대를 수영장으로 만들어 수중 서커스도 한다. 정치색이 적은 반면 묘기는 뛰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다.

다. 명승고적과 건축물

(1) 단군릉

평양에서 북동쪽으로 약 38km 정도 떨어진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에 위치하고 있다. 평양에서 약 1시간 정도면 도착하게 되는데 도로 사정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좋다.



피라미드 모양의 9단 흰색 화강암으로 조성된 능에는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입구에서 40m정도의 넓은 화강암 계단을 따라 능으로 올라간다. 계단 양쪽으로는 단군의 신하 8명의 입상이 있고 위쪽에는 4명의 아들을 조각한 입상이 있다.

그러나 이 능에 안치된 유골이 단군과 그 부인인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내려오는 길에 선사시대 고인돌을 둘러볼 수도 있다.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으며 엽서나 화보 등을 판매한다.

(2) 동명왕릉

평양시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25km 떨어진 역포구역 용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동명왕릉은 고구려 시조 동명왕의 무덤으로 1993년 5



월에 개축되었다. 160여 개의 화강석 기단돌이 떠받치고 있는 웅장한 무덤과 사람과 짐승을 형상화한 수십 점의 돌 조각품들이 있다. 넓은 왕릉구역에는 정릉사, 신하 무덤들, 진주못 등이 있다.

(3) 대동문

대동문은 고구려 평양성 내성의 동문으로 평양성과 함께 6세기 중엽에 처음 세워졌다. 이 문은 대동강을 건너 남쪽으로 통하는 문으로 평양성의 성문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성문이었다.



화강석을 다듬어 쌓은 정교한 축대와 그 위에 세운 문루로 이루어졌다. 그 북판에는 무지개길을 냈다. 대동문의 합각지붕은 마루선들과 지붕면이 부드럽고 우아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4) 모란봉

평양시 모란봉구역 동북쪽 대동강 기슭에 있는 산으로 원래는 금수산이라고 하였으나 생김새가 모란꽃처럼 생겼다고 해서 모란봉으로 명명되었다.



고구려 시대의 유적으로 내성, 외성, 을밀대, 칠성문, 청류정, 부벽루, 전금문, 현무문, 동암문 등이 있다.

근래에 지어진 것으로는 청류각, 광풍정, 승리각, 휴식각, 흥부각, 금수대가 있고 모란봉 기슭에도 김일성 경기장, 개선문, 천리마 동상, 모란봉 극장 등이 있다.

(5) 을밀대

평양시 모란봉 구역 모란봉에 위치하고 있는 을밀대는 6세기 중엽 고구려 평양성 내성의 북장대로 건립되었으며 1714년 개축되었다. 현재의 을밀대는



1960년에 대규모 개수 작업을 거쳐 높이 11m의 축대 위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정자로 지어진 것이다. 을밀대의 봄놀이는 평양 8경의 하나로 유명하다.

(6) 개선문과 주체사상탑

개선문은 모란봉 구역 개선동에 있는 높이 60m의 건축물이다. 1982년 4월 14일 김일성 주석 70회 생일을 기념해서 세워진 건축물로 순안에서 평양으로 들어올 때 통과하게 된다.



〈주체사상탑〉

주체사상탑 역시 김일성 주석의 70회 생일을 기념해서 세워진 170m의 탑이다. 전망대까지 고속 엘리베

이터가 운행되며 평양의 중심부를 한눈에 조감할 수 있다. 이

탑 앞 대동강 가운데에는 물을 150m 높이까지 뿜어올리는 2개의 분수가 있어서 짝을 이루고 있다.

(7)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

2001년 8·15 민족통일대축전 개최장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북한은 7·4 남북 공동선언에서 밝힌 조국통일3대원칙, 전 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을 조국통일3대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해 2001년 통일거리 입구에 이 탑을 세웠다. 높이 30m이며 폭은 6·15공동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61.5m로 하였다고 한다.



(8) 만경대 고향집과 학생소년궁전

만경대 고향집은 김일성 주석의 생가로 입구에는 만경대 혁명사적관이 있다. 김일성 주석의 증조부가 산당집의 당지기로 자리를 잡은 이래 4대를 살았던 곳이라 한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북한이 자랑하는 체계적인 교육시설이다. 학생소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인격체로 키우기 위해 1989년 4월 30만 m^2 의 부지에 연면적 10만3천 m^2 의 규모로 개관하였다. 5세~7세의 어린이 12,000명이 60여개의 소조실에서 활동한다.

(9) 인민대학습당

온 사회 인테리화의 중심지, 근로자들의 통신 종합대학, 세계에서 제일 크고 현대적인 전 인민 학습의 대전당을 건립한다는 취지로 평양 한복판 남산재에 1982년 4월 1일 건립되었다.



연면적 10만 m^2 의 건물과 3,000만 권의 장서능력을 보유한 인민대학습당은 열람실들과 강의실, 녹음강의실, 통보실, 문답실 등 600여 개의 방이 있다. 독자들이 종합 도서목록실에서 필요한 도서목록을 찾아 신청하면 책이 관성식 원격 운반장치에 의해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다.

(10) 평양산원

1980년 7월에 개원한 평양산원은 13층의 기본청사와 6개 동의 건물로서 연면적 6만 m^2 이다. 산원에는 산과, 부인과, 내과, 비뇨기과, 구강과, 구급소생과, 안과, 이비인후과 등 여러 부문의 전문과를 갖추고 있으며, 약 1,500개(산과 540개, 부인과 460개, 소아과 500개)의 병상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10여만 권의 도서를 비치한 도서실과 열람실이 꾸며져 있고 과학사진 제작실을 비롯한 임상활동 자료와 과학연구 기초자료들을 분석하여 정리·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참고〉 관광관련 북측 주요기관

【국가관광총국】 (National Tourism Administration)

1986년에 설치된 북측 내각 산하 관광관리기구이다. 북한의 관광사업 전반을 정책적으로 지도, 관리한다. 산하에 조선국제여행사, 관광선전사, 금강산국제관광회사, 국제청년여행사 등의 기관들을 두고 있다.

【조선국제여행사】 (Korea International Travel Agency)

1953년에 설립된 국영여행사로 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 송출을 위한 관광상품 계약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한다.

【관광선전사】 (Tourist Advertisement Agency)

1987년에 설립되어, 북측의 관광안내 및 홍보를 위한 출판물, 영상물 등을 제작 및 보급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요구에 따라 봉사 촬영도 제공하고 있다.

【금강산국제관광회사】 (Kumgansan International Tourist Company)

1988년에 설립된 합영여행사로 외국인 관광객(특히 일본인)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국제청년여행사】 (Korea International Youth Tourist Company)

1985년에 설립된 국영여행사로 구 사회주의권 청년여행사들과의 협력이 주업무였으나 현재는 국제행사시 해외참가자 유치 등에 주력하고 있다.

【대외봉사총국】

외국인의 지방관광 안내 및 편의 제공 (여행, 교통, 숙박)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참고〉 평양에서의 골프관광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서남방으로 27km 정도 떨어진 태성호 기슭에 평양골프장이 있다. 이 골프장은 전장 6,200m에 18홀 규모의 코스로 되어 있으며 호수를 끼고 있어 경치가 매우 좋다. 식당, 매점, 휴게실, 목욕탕 등의 부대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태성호반에서 낚시와 보트놀이도 즐길 수 있다.

양각도호텔에도 9홀의 작은 골프장이 있으며 장비를 임대하여 준다, 청춘거리 서산호텔에는 골프연습장이 갖추어져 있다.

2 남포지역

가. 개 관

남포는 평안남도 남부에 위치한 북한 제2의 도시이다. 중국의 칭다오(청도), 텐진(천진) 등과 연결되는 국제항구이며 평남선(평양-남포)과 평안선(남포-온천)의 기착점이



며 대동강을 이용한 해운이 발전한 교통의 요지이다.

남포시는 2004년 1월 9일 특급시로 바뀌면서 기존의 항구구역과 와우도구역을 남포시에 소속시키고 항구구역, 와우도구역을 없앴다.

한편, 강서구역은 강서군으로, 천리마구역은 천리마군으로, 대안구역은 대안군으로 고쳤으며 남포시(특급), 강서군, 천리마군, 대안군, 룡강군을 평안남도에 소속시켰다.

남포는 제철·제강 공업, 농기계공업, 유리공업, 조선공업 등이 발달한, 평양과 함께 북한 최대의 공업도시이다. 인구는 약 81만 명(1992년)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 가 볼 만한 곳

(1) 서해갭문

서해갭문은 대동강 하구인 평안남도(남포시)와 황해도(은율군)사이에 놓여진 높이 35m, 길이 8km 갭문으로 북한이 자랑하는 축조물



중의 하나이다. 5년여의 공사기간(1981~1986)을 거쳐 완공되었으며 약 5만 톤급의 배가 지나갈 수 있다.

갭문으로 저장된 물은 각종 공업 및 농업용수로 사용되며 홍수시 평양과 남포지역의 물 피해를 줄이는 데도 도움을 주는 곳이다. 서해갭문 기념탑에서 전경을 볼 수 있고 그 밑으로는 해수욕장이 있다.

(2) 기타

남포시가지에서 서남쪽으로 4km 떨어진 곳에 있는 와우도도 유명하다. 이 섬은 넓이 약 43만 m^2 로 밀물 때는 섬이지만 썰물 때는 반도가 된다. 산과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이 곳은 경치가 매우 아름답고 현재 유원지와 휴양지로 개발되어 있다.

그밖에 각종 레저·숙박시설을 갖춘 우산 휴양관광지, 대안구역 태성호 북쪽에 위치한 북한 최초·최대의 골프장인 평양

북한 상식

김일성·김정일 뱃지

북한에서 제작되고 있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뱃지는 해외 파견자용과 재일 조총련용 등 20여 종에 달하고 있는데, 주로 북한 최고의 예술창작기관인 만수대 창작사에서 만들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각종 기념일이나 행사 때 뱃지를 수여받으며, 그 기념일이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뱃지의 모양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당 창건 기념일에는 노동당 깃발 모양의 뱃지, 인민군 창건일에는 군복 뱃지 등이다. 지난 1997년쯤 부터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함께 담은 뱃지도 만들고 있다.

당의 깃발모양 뱃지는 노동당 깃발 속에 김일성 주석이 그려져 있는데, 이 뱃지는 당 중앙 지도원급 이상의 고위직 인사들이 단다. 또 군복차림의 김일성 군상 뱃지는 국가보위부나 인민보안성 등 사법·검찰기관의 요원들, 그밖에 원형 안에 김일성 초상이 그려져 있는 대형의 원형 뱃지는 지방의 당 간부급 이상이 단다. 그러나 뱃지의 모양이 지위와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고려호텔 청소부 아주머니가 당 깃발 뱃지를 달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골프장이 있다.

룡강군에 있는 룡강온천은 북한 제일의 온천이며, 온천수가 53℃의 식염천이다. 이 지역의 유물 유적으로는 덕흥리 벽화무덤, 태성리 1, 2, 10호 무덤, 강서 3묘, 쌍기둥 무덤 등 고분이 유명하다.

다. 교통 및 숙박

2000년 10월 평양-남포간 총연장 46.3km, 왕복 12차선 청년영웅도로가 개통되었다. 새로운 고속도로 완공으로 평양에서 약 1시간 내에 왕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숙박시설로는 항구여관, 와우도 여관 등이 있다.

〈참고〉 해로로 남포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

남포는 물자 등의 지원·인도를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이런 경우 보통 화물선을 타고 가게 되기 때문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고 배의 출항과 입항이 항구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시간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인천에서 화물선을 타고 24시간 정도 지나면 남포항에 도착하게 된다. 겨울철에는 풍랑이 심하고 남포항이 어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다. 전체 일정은 인천 출발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대략 일주일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남포 외항에 도착하면 세관원, 안내원 등이 승선해서 제반 사항을 점검한 후 보트로 '외국인 선원 구락부'로 이동하게 된다. 당일예 환영만찬이 있게 되고 다음 날 물자를 확인하게 된다.

하루 이틀 남포에 머물게 되지만 거의 대부분 항에만 머물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구락부에서 머물며 당구, 비디오 시청, 배구 등 오락을 즐길 수 있다. 차를 타고 항내에서 모니터링을 하며, 남포 시내로 나가거나 평양까지 다녀오는 수가 있기도 하지만 매우 드문 경우이다. 특히 항구는 군사지역이므로 물자 모니터링과 관계없는 장면을 촬영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멀미약, 소화제, 감기약 등 각종 의약품과 물휴지(배 안에서 씻는 시설이 그리 좋지 않음), 약간의 간식거리(배에서 매우 지루하고 선원들은 거의 외국인들이므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 책(북에서 보아도 별 문제없는 종류) 등과 안내원들에게 줄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 간다. 배를 통해 가는 경우이므로 꿀과 과일을 선물로 가지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어서 좋다.

3 개성지역

가. 개 관

개성은 2003년 9월 직할시에서 황해북도 관할로 변경되었다. 평양과 남포에 이어 북한의 제 3의 도시이다. 6·25전쟁 전까지는 남한에 속했던 지역이다. 고려의 도읍지로 475년간 영화를 누려온 도시답게 유명한 역사·문화 유적지가 많으며 고려인삼, 개성상인으로도 유명하다.

고려의 전성기에는 인구 70만(13만 호)의 국제도시로 동남아와

아라비아까지도 무역을 하였으며, 이 때 코리아란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개성 지역은 기후가 대체로 온화하고,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농업과 공업이 균형적으로 발전된 지역이다.



2002년 11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을 발표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나. 가 볼 만한 곳

(1) 고려 성균관 · 고려박물관

고려시대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은 개성 중심부에서 북동쪽으로 약 2km지점에 있다. 성균관과 그 주변지역은 북한 유일의 한옥 보존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988년 시내에 있던 박물관을 이곳으로 옮겨와 고려박물관이라 하고 약 1,000여 점의 고려시대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성균관은 고려 11대 문종의 별궁이었던 곳으로, 후에 선비 양성기관이 되면서 성균관이란 칭호를 얻었다. 현재의 건물은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광해군 시절에 복구한 것으로 12동의 건물과 6동의 부속건물이 있다. 성균관은 크게 강의실인 명륜당과 유학자와 선현들을 제사지내는 대성전의 두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2) 만월대

‘황성 옛터’란 노래가사에 나오는 만월대도 한번쯤 들러 볼 만한 곳이다. 만월대는 송악산 남쪽 기슭에 있는 고려의 왕궁 터로 126만㎡의 부지에 39만㎡의 궁성터가 남아있다. 궁성에는 궁성의 중심건물인 회경전을 비롯하여 장대한 궁전들이 있었고 황성에는 고려의 관청들이 즐비하였으며 넓은 운동장에서 격구를 비롯한 운동과 열병식을 갖기도 했다고 한다.

왕건이 즉위한 이듬해인 918년 착공하여 고려시대 전 기간 동안 왕궁으로 사용하였으나 1361년 홍건적의 난 때 불탄 후 복구되지 못하였다.

(3) 왕릉

개성 북쪽 6km지점 고속도로 왼편 만수산 자락에 고려 태조

왕건의 현릉(顯陵)이 있다. 무덤 안을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능 앞에 넓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성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13km정도 떨어진 개성군 해선리 봉명산에는 고려 공민왕의 현릉(玄陵)이 있다. 이 무덤은 남한에서 주로 보는 왕릉과는 달리 3개의 층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 곳에서 고려시대 능묘조각의 걸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4) 기 타

개성에는 이 밖에도 정몽주의 충절이 어린 선죽교, 산세가 아름다운 송악산 등이 있고, '송도 3절'의 하나인 박연폭포가 절경을 자랑하고 있다.

북한상식

북한상식

주패(主牌)놀이

북한에서 화투는 1950년대 후반부터 자취를 감추었다. 당에서는 일제의 잔재일뿐더러 노름이라 해서 화투를 못하게 했다.

대신 그들은 주패라고 불리는 트럼프놀이에 열을 올린다. 6·25때 중국군에 의해 보급된 주패놀이는 현재 북한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다. 초상집은 물론이고 공원이나 주차장 등 공공연한 자리에서도 몇 명씩 모여 판을 벌인다.

대개 시간을 때우거나 심심풀이로 하는 오락에 불과한 경우가 많으며, 도박은 단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크게 돈내기를 할 경우에는 집에서 몰래하기도 한다.

다. 교통 및 숙박

개성의 중심지대를 경의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시내에 개성역, 개풍역, 려현역 등이 있다.

서울에서 개성까지는 50km정도로 1시간 이내의 거리이고, 개성에서 평양까지는 160km의 평양-개성간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다. 이 도로는 아스팔트 4차선 도로로 노면 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개성에서 평양까지 2시간 정도 걸린다. 개성 북방 70km 지점에 서흥 휴게소가 있다.

개성의 도로는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고 주요 도로는 대부분 포장되어 있다. 개성 일대의 주요 관광지와 해주, 배천, 평천 등으로 연결되는 교통망도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

숙박시설로는 조선시대 전통가옥 단지를 여관으로 꾸며 온돌에서 전통 생활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개성 민속여관, 자남산 기슭의 현대식 자남산여관 등이 있다.

4 백두산

가. 개 관

백두산은 양강도 삼지연군의 북서부 중국과의 국경지대에 있는 높이 2,750m의 명산이다. 땅 위에 솟아 하늘에 닿을 듯한 웅장한 산세, 천만년 비바람에 깎인 벼랑의 만물상, 장엄한 천지, 끝없이 펼쳐진 대지와 웅장한 수림 등으로 아름답고 장엄

한 산세를 자랑한다.

백두산은 또한 개국 설화가 숨쉬는 민족사의 발원지이며, 국토의 최고봉으로서 한민족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영산이며, 북측에서는 항일투쟁의 혁명지로 성역화된 곳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백두산 하면 최고봉인 장군봉과 천지를 연상하게 되지만 백두산 일대는 광활한 지대로 자연 관찰, 동식물 생태관광, 지질조사 등 다양한 관광이 가능한 우리나라 최대의 관광보호고라 할 수 있다.

백두산의 날씨는 연중 변화무쌍해 270일 이상이 안개와 구름에 덮혀 있고 심한 기온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나. 백두산 등반

(1) 백두산지역까지의 이동

그동안 많은 남측 관광객들이 중국을 통해 백두산을 관광하였지만, 최근에는 북한을 통하여 들어가는 경우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평양에서 백두산까지의 거리는 385km이다. 기차를 타면 20시간 정도 가게 되지만 비행기로는 1시간 남짓 걸린다. 기차를 타면 흰 바위로 이루어진 지형상 특징으로 이름난 백암 땅을 돌아 숨가쁘게 오르는 열차 안에서 백무고원의 신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기차를 타고 닿게 되는 종착점은 양강도의 소재지인 혜산시이다. 산의 혜택으로 살아 간다는 뜻에서 지어진 혜산이란 이름이 말해 주듯이 양강도는 압록과 두만의 두 강이 발원하는 한반

도에서 가장 높은 지대이다.

혜산에서 삼지연까지는 70km 정도이고 백두산까지는 100km 가 넘는다. 혜산에서 삼지연까지는 좁은 철길인 임산철도로 갈 수도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다.

비행기를 타고 가면 삼지연읍 있는 삼지연 비행장을 이용하게 된다.

(2) 등반 코스

백두산 등반 코스는 배개봉 호텔을 거점으로 ① 이명수폭포 → 건창 → 백두산밀영 → 선오산밀영 → 백두폭포 → 백두다리 코스와 ② 삼지연 → 소백수초대소 → 신무성 → 무두봉 → 백두다리 코스가 있다.

앞의 코스는 걸어야 하는 곳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볼 것이 많고 자연과 접하면서 등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뒷 코스는 전자에 비해 볼 것은 적지만 쉽게 등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궤도삭도, 공중삭도의 이용 : 백두역에서 향도역까지 궤도삭도(곤도라)를 이용해 오른 뒤 향도봉, 장군봉 등으로 올라갈 수 있으며, 천지 물가까지 내려갈 때 향도역에서 천지까지 공중삭도(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있다.
- ➔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을 오르는 경우 연길 → 안도(安圖) 혹은 이도백하(二道白河)를 경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도백하에서 등산로 입구까지 이동한 다음에는 가이드 차(지프)를 타고 천지에 오를 수도 있고 약 40분간 소천지, 온천군, 천지폭포를 돌아올라 가는 코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다. 주요 봉우리와 천지

〈주요 봉우리〉

이름	특	징
장군봉 (2,750m)	백두산의 최고봉으로 천지 남쪽에 있다. 백두연봉 중에 천지의 경관을 가장 잘 볼 수 있으며, 일출의 장엄함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향도봉 (2,712m)	장군봉 우측에 있는 봉우리로 마치 거대한 짐승이 웅크리고 울부짖는 모습이라 해서 망천후라고도 부르며, 닭벼슬 모양의 바위가 서남향으로 솟아 있어 계관봉이라고도 한다. 왼편 아래에는 궤도삭도의 향도역이 있다.	
마천우 (2,690m)	중국 측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일명 백운봉이라고도 부르는데, 용암 분출시 형성된 암층이 여러 층으로 노출되어 용암의 흐른 방향이 뚜렷이 보인다.	
천문봉 (2,670m)	천지 북측에 매부리코 모양을 한 봉우리로 원래 화개봉이라 부르다가 뒷편에 중국의 천문관측소가 들어선 후 천문봉이라 부른다	

〈천 지〉

높이	2,190m	면적	9.165km ²
주위	14.4km	수량	19억500만 톤
길이	4.64km	평균 수심	213.3m
최대수심	384m		

라. 숙소

백두산은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북측에서는 혁명의 성지이기 때문에 관광 이외에 참배, 훈련, 교육 등의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이에 따라 백두산 지역에서는 단체 숙박소인 숙영각과 숙영소가 여러 개 있지만, 일반 관광객들은 여관이나 호텔, 초대소 등을 이용하게 된다.

(1) 베개봉호텔

삼지연에서 서쪽으로 2km 지점에 있는 3층으로 된 호텔이다. 그 모습이 베개와 같이 생겼다 하여 이름 붙은 높이 1,621m의 베개봉 기슭에 자리



잡아 백두산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총 100여 명을 수용하며 투숙객은 주로 외국인인데 겨울철에는 북한주민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호텔 내에는 서점, 기념품점, 영화관, 당구장, 연회장, 이발소, 식료상점, 바, 환전소가 있으며 감자요리 전문의 민족식당이 있다.

(2) 소백수초대소

삼지연에서 동쪽으로 가다가 좌회전하여 숲길로 5km 정도 가면 숲속에 2층으로 된 서구식 방갈로형의 아름다운 집 28동이 들어서 있다. 이 곳은 외국인과 귀빈을 위한 숙소로 모두 콘도식이며 주방과 거실이 있고, 부대시설로 식당과 영화관, 가라오케 등이 있다.

넓은 단지 내에는 호수도 있고 자연환경이 잘 되어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건물은 4개 실 22동, 5개 실 6동 등 총 118실이 있는데, 1일 2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

마. 특산물

백두산 지역에는 녹용, 인삼, 불로초, 음양곽, 오갈피, 들쭉, 메닭, 멧돼지, 산천어, 칠색 송어 등을 가공하여 만든 특산물들이 많다. 보약재로서 백두산 녹용환, 백두산 인삼탕, 백두산 불로초환, 정록환, 백두산 오갈피차, 백두산 인삼차 등을 들 수 있다.

음료와 주류로서는 혜산맥주, 양강술, 백두산 인삼술, 백두산 들쭉술, 백두산 오갈피술, 백두산 진달래술, 백두산 불로초술 등이 있다. 백두산 들쭉단물, 백두산 들쭉통조림, 백두산 잣강정 같은 것도 이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다.

백두산의 도자기제품, 부서가공품들, 식물표본, 나비표본 같은 것들도 좋은 기념품으로 될 것이다.

특색있는 음식들로서는 감자떡, 감자지짐, 잣김치, 산나물과 버섯요리 등이 있으며, 멧돼지, 메닭, 산천어, 칠색송어 등을 가지고 만든 요리를 맛 볼 수 있다.

5 묘향산

가. 개 관

묘향산은 우리나라 5대 명산의 하나이다. 금강산의 수려한 조각미와 지리산의 웅장한 모습을 닮은 듯한 봉우리들과 기암 절벽, 깊은 계곡,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수가 계절에 따라 새소리, 물소리와 어울리며 절경을 이루고 있다.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경계에 솟아 있으며 최고봉은 비로봉(1,909m)이다.

나. 가 볼 만한 곳

(1) 국제친선전람관

김일성 주석 부자가 세계 각 국가에서 받은 선물들을 전시하여 놓은 곳으로 1978년 완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김일성 주석이



받은 선물 약 25만여 점을 국가별·지역별로 구분하여 전시하고 있다. 건물 지하에 전시실을 만들었는데 1개의 선물을 보는데 1분을 소요할 경우 약 6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보여주는 방

들은 정해져 있으며 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및 예전의 동맹국가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받은 선물을 전시한 곳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받은 선물은 별도의 건물(북한에서는 장군님관이라고 부름)에서 전시하고 있는데 이곳도 산 속으로 통로를 내서 전시실을 만들어 물건들을 전시하고 있다. 약 6만 점의 물건이 전시되어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당 관계자, 일부 회사에서 보내온 물건들도 별도의 방에 전시를 하고 있다.

➔ 평양 ↔ 묘향산의 당일코스

묘향산은 평양에서 당일 또는 1박 2일 일정으로 가장 많이 가게 되는 곳 중의 하나이다. 평양에서 출발해 당일로 귀환해야 하는 경우 묘향산에 도착하여 국제친선전람관을 보고 묘향산 계곡에서 점심을 하게 된다. 식사 후에 가벼운 산행을 할 수 있으나 당일 코스의 경우 산행할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다. 오후에 돌아오는 길에 입구에 있는 보현사를 간단히 구경하고 평양으로 돌아오게 된다.



알아두기

국제친선전람관 방문 시 유의사항

▶ 일반 사항

북한사람들의 국제친선전람관에 대한 자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다. 그들은 묘향산은 올라가지 않아도 이 곳은 반드시 들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묘향산을 간다고 하면 안내원이나 북한의 주민들도 빅타이를 매거나 구두를 신는 등 복장에도 매우 신경을 쓴다.

그들과 같이 정장을 할 필요는 없으나 츠리닝, 슬리퍼 등의

복장은 피하고 가벼운 산행 정도 할 수 있는 옷을 입으면 무난하다.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받은 선물에 대하여 비하하거나 전람관에 대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 해설강사와의 대화

전람관을 안내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전공한 해설강사들로 전람관을 돌아보는 중간에 소감에 대해서 자주 물어본다. 이럴 경우는 일반적인 말로 대답을 해주는 것이 무난하며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너무 과장된 표현을 할 필요는 없다.

선물의 종류는 일반적인 장식품이 많이 있지만 자본주의 분위기와 관련된 질문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저 물건을 팔면 얼마나 받을까?”, “정말 진품이 맞느냐” 등)

▶ 촬영 등

전시된 물건 중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얼굴 등을 묘사한 물품들이 있는데 손가락질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

사진기 등은 입구에서 별도로 보관하게 되므로 내부 촬영은 할 수가 없다. 외부에서는 촬영하여도 무방하나 안내원에게 한 번쯤 물어보고 촬영하는 것이 좋다.

(2) 묘향산 산행

묘향산 산행 코스에는 상원동, 만폭동, 비로봉 코스가 있다. 상원동은 법왕봉과 오선봉 남쪽에 있는 계곡으로 이 계곡 565m 지점에 고려 때 사원인 상원암이 있다. 상원동은 울창한 수림과 맑은 물이 옥같이 흐르며 폭포를 이루는, 묘향산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계곡에는 금강, 대하, 룡연, 산주, 천신 폭포들이 있고 인호대와 용강석 같은 전망이 좋은 기암이 있다. 상원동 코스의 경우는 인호대나 그 위의 상원암까지 올라가서 하산을 하는 것이 무난하다.

묘향산에 오르는 또 하나의 관광코스인 만폭동은 향로봉 남쪽 비탈면에 이루어진 계곡이다. 만폭동은 만 개의 폭포가 있다고 하여 불려지는 이름으로, 이 곳은 금강산의 만폭동 못지않게 물이 맑고, 천만가지 물의 조화가 모두 이 곳에 모여 있는 것처럼 폭포의 아름다움이 빼어난 곳이다.

묘향산의 최고봉인 비로봉(1,909m)은 하비로암에서 2.5km 떨어진 백운대와 이곳에서 1.9km 떨어진 원만봉(1,825m)을 거쳐 오르게 된다. 하비로동은 비로봉과 폭포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천태동, 칠성동 등산로의 첫 어귀를 말한다. 1882년에 세워진 하비로암은 비로봉을 올라가는 사람들의 숙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 곳을 거쳐 비로봉에 오르면 묘향산의 수많은 봉우리와 계곡, 그리고 서해안의 들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그러나 당일로 갈 경우나 간단한 산행 또는 나이가 든 분들은 천태동 밑 계곡에서 식사를 하고 하비로암이나 이선남폭포를 오르는 코스가 무난하다.

이 코스는 비교적 급경사가 없으며 길의 폭도 약간 넓은 흙으로 된 산행길이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묘향산의 정상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오는데, 칠성폭포와 사자폭포로 이어지는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므로 이선남폭포나 하비로암에서 하산을 하는 것이 좋다.



알아두기

산행할 때 유의할 점

산행은 보통 평양에서 함께 간 안내원이나 묘향산 현지의 안내원들과 함께 하게 되지만 이들은 멀리 가는 산행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혹 사고가 생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산행 중 동료들끼리 큰소리로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거나 바위에 새겨진 문구나 비석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등의 행위는 자제하도록 한다. 특히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관련된 비석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동은 하지 않도록 한다. 김부자가 직접 왔다가 간 곳에는 별도로 울타리를 쳐놓았는데 여러 가지 지시(북한에서는 '현지교시'라고 함)를 한 곳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행동도 삼가야 한다.

산행 중 등산로 구간마다 청소를 하는 산림 관리원이나 약초 등을 캐는 사람들을 마주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일부러 의식적으로 피하기보다는 간단한 목례를 건네는 정도로 인사를 나눈다.

안내원이 이것저것 물어보면 일반적인 말로 받아넘기는 것이 좋다. (“경치가 좋습니다”, “OO선생은 등산을 좋아하니까?”, “공기가 참 좋습니다” 등) 주로 산과 관련된 말을 주고 받는 것이 무난하다.

(3) 기타

묘향산에는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서산대사가 입적한 곳으로 잘 알려진 보현사가 있다. 보현사의 수십 채의 건축물

들은 묘향산의 절경과 함께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장경고에는 팔만대장경을 비롯한 옛 나무목판이 보관되어 있다.

한편 묘향산에는 지하에도 아름답고 웅장한 석회동굴이 많다. 유명한 동굴은 석회암지대인 비로봉 남부 백령천 연안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백령동굴, 용문대굴 등이 대표적이다.

다. 교통 및 숙소

평양 시내에서 출발하여 순안공항 우측으로 빠져 나가면 묘향산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나온다.



〈향산호텔〉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기 전 기차를 주로 이용할 때는 반나절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지금은 약 1시간 40분 정도면 묘향산에 닿을 수 있다.

묘향산 지역에는 몇 개의 여관이 있으나 보통 향산호텔에 묵게 된다. 이 호텔은 모양이 삼각형의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15층의 현대식 건물이다. 주말에도 대부분의 방은 비어 있으며 외국인이나 북한에 상주하는 외국인 및 외교관들이 주로 이용한다.

묘향산 산행 후 식사는 호텔을 주로 이용하는데 맨 위층에 식당이 있다. 음식으로는 칠색 송어탕과 각종 나물류와 버섯요리가 좋다.

6 금강산

가. 개 관

금강산은 주봉인 비로봉(1,638m)을 정점으로 태백산맥의 분수령을 이루며 한반도의 중동부에서 남북으로 뻗어있는 천하

북한상식

북한의 소설 문학과 베스트 셀러

북한의 소설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혁명전통을 살리는 역사소설, 남한 현실을 비판하는 소설, 관료주의나 무사안일주의 등을 비판하는 소설,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창출해 내고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는 소설이 그것이다. 항일 투쟁에 관한 소설로는 「피바다」와 「꽃피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 유명하고, 「두만강」, 「고난의 역사」, 「갑오농민전쟁」 등이 많이 읽힌다.

시 부문에서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 같은 송시 형식과 「어머니」, 「나의 조국」 등의 서정시, 그리고 「대동강」을 비롯한 장편 서사시가 발전하고 있다.

특히 소설문학 분야의 대표적 저작물은 지금까지 총 19권이 간행된 것으로 알려진 「불멸의 역사」다. 북한의 사회주의적 사실문학의 대표작이자 북한 소설사의 최고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소설들은 북한 출판사상 최고의 발행 부수를 기록한 1960년대의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12권과 함께 주민들의 필독서로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절경의 명산이다. 백두산(북악), 묘향산(서악), 북한산(중악), 지리산(남악)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수호하는 오악의 하나로 동악이라 하여 민족의 영산으로 숭앙받아 왔으며, 당대의 문장가, 소동파 등 동서고금의 시인, 묵객, 여행가들이 필설과 그림으로 극찬을 아끼지 않아왔다.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이라고도 불린다.

금강산은 크게 태백산 줄기의 동쪽 비탈면의 구룡연 구역과 만물상 구역, 수정봉 구역 등을 포함하는 '외금강', 금강산 계곡의 백미로 일컬어지는 만폭동을 비롯하여 비로봉, 백운대, 명경대 등을 아우르는 서부지역의 '내금강', 삼일포와 해금강 구역, 총석정 구역 등을 포함하는 '해금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8년 11월 현대 금강호의 첫 출항이래 2005년 2월 28일 현재 554,594명의(1,164항차) 남측 관광객이 해로를 통해 금강산을 찾았으며, 2003년 9월 육로관광이 본격 실시됨에 따라 2005년 2월 28일 현재 334,061명의 남측관광객이 육로로 금강산을 방문하였다.

나. 관광 코스

현재 금강산 관광코스로 개방된 곳은 구룡연 코스, 만물상 코스, 삼일포·해금강 코스, 세존봉·동석동 코스 등이다.

구룡연 코스의 장쾌한 산악미와 경쾌하게 떨어지는 구룡폭포는 사시사철 푸르른 담과 소 등으로 이루어진 외금강의 계곡미를 대표하는 코스이다. 만물상 코스는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산악미가 인상적인 코스로, 만물상은 산행의 진미를 자아내



계 하는 금강산 관광의 절정을 이루는 곳이다.

관동8경의 하나인 삼일포는 36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는 호수이다. 여성적인 해안미와 남성적인 산악미가 어우러진 해금강 또한 금강산 관광의 빼놓을 수 없는 절경이다.

세존봉은 외금강 구룡연 구역과 선하동 구역 사이에 날카롭고 험준한 바위들과 거대한 바위 능선 봉우리들로 이루어진 산으로, 비로봉, 천선대, 채하봉, 백마봉 전망대와 더불어 금강산 5대 전망대로 일컬어지고 있다.

다. 숙박과 볼거리, 먹거리

금강산에는 현재 호텔 해금강, 금강산호텔, 펜션, 금강빌리지 등의 숙소가 있다. 호텔 해금강은 장전항 바다 위에 떠있는 특급 해상호텔로서 수용인원은 320명이며, 금강산호텔은 북측 기존시설을 개보수한 것으로 수용인원은 435명이다. 펜션은 가족형 숙박시설로 8평형, 15평형, 20평형 등 3가지가 있다. 금강산을 찾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단체숙소인 금강빌리지

와 온천빌리지는 각각 3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앞으로 육로관광 활성화에 따라 '김정숙 휴양소' 등 북측시설이 추가로 개보수되고 콘도, 가족호텔, 유스호스텔 등도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온정리에 있는 금강산 문화회관에서 평양 모란봉교예단 공연을 볼 수 있으며, 금강산 온천장에서는 4계절 노천탕을 즐길 수 있다.



〈온정각〉

온정각에는 북측의 주류, 담배, 특산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이 있으며, 관광객들이 주로 점심과 저녁식사를 하는 부폐식 온정각 식당이 있다.

그 외에도 북한의 음식을 본격적으로 맛볼 수 있는 금강원, 목란관, 단풍관에서 식사를 예약할 수 있다.

라. 육로관광 코스





마. 기 타

- (1) 금강산 현지에서는 외환(달러)과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또한 「금강산 관광카드」(본인이 남측돈으로 입금하여 충전)도 사용할 수 있다.
- (2) 금강산 온정각 및 호텔 해금강에는 면세점이 설치되어 있어 주류, 담배, 화장품 등을 면세로 구입할 수 있다.
- (3) 금강산 지역은 북측의 군사시설이 있는 관계로 산행코스 이외의 지역에서 일부 사진촬영이 제한될 수 있다.
- (4) 또한 10배율 이상의 쌍안경 및 망원경, 160밀리 이상의 망원렌즈가 달린 사진기, 24배 이상의 줌렌즈가 달린 비디오 카메라의 반입은 제한된다.
- (5) 엄격한 환경보호 관리로 인하여 산행 도중에는 흡연이 금지되고 화장실 이용도 불편하므로 각 산행코스 출발지점에 있는 흡연지역과 화장실을 활용해야 한다.

➔ 금강산관광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대 아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dasan.com>, <http://www.mtkumgang.com>, ☎ 02-3669-3000)



6

방북활동 중의 유의사항

1. 방북자의 기본 자세 / 151
2. 방북활동 중의 유의사항 / 153
3. 대규모 방북시 유의사항 / 165



1 방북자의 기본 자세

남북한은 해방이후 반세기동안 상이한 체제 속에서 독특한 사회구조와 의식, 그리고 각자의 사회 작동원리를 발전시켜 왔다. 따라서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북한 사회의 기본 특성과 남북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① 방북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긍지를 갖고 행동해야 한다. 방북 시의 말과 행동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남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투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서로간 품위를 지켜나가면서 신뢰를 쌓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북한 사람들은 방북자를 일개 자연인이나 단체에 소속된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남조선 사람, 즉 남한 대표로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방북 일정을 시작하면서부터 방북기간 내내 원하던 그렇지 않든 자신이 남한의 대표성을 띤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② 방북 시 북한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 일단 흔히 칭해 온 한국과 북한 혹은 남조선과 북조선이란 표현 대신 남한을 그냥 남(쪽)으로 북한을 그냥 북(쪽)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스스로를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③ 방북자는 북한 체류시 예의를 바르게 하고 겸손한 미덕을 보여야 한다. 북한 사람들의 주장에 무조건 동조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하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 등 방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실한 자세로 원칙을 존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좋다.

④ 북한 현지에서 필요없는 정보자료는 지참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북쪽 사람들과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때도 불필요한 일에 대한 관심이나 엉뚱한 질문으로 정보수집 차 왔다는 오해나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⑤ 북한측 안내원이나 초청기관의 담당자들로부터 의심이나 오해를 살만한 행동을 하거나 그들에게 두고두고 약점을 잡힐 행동을 보여서는 안된다.

또한 그들을 무시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원칙적인 입장이 상충될 때는 단호함을 보일 필요도 있다.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말고, 북측 사람이 의도적으로 특정 정보에 관한 질문을 하면 언급을 회피한다.

⑥ 무엇보다도 체제문제와 관련하여 논쟁을 한다거나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은 금물이다. 정치·체제·사상 등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경우 가급적 “잘 모르겠다”거나 “나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 잘 모르겠다”는 대답으로 언급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야기가 오르내리더라도 편한 마음자세로 가벼운 정도의 대화를 나눈 뒤 화제를 전환하도록 한다.

⑦ 남과 북의 평화적 공존을 위하여 냉전시대에 발생했던 사건과 관련한 대결의식을 고취하는 발언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하고, 북한주민의 생활 양식과 문화적 관습을 존중한다. 특히 북한

사람들의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의문이 있을 때는 안 내원들에게 확인하는 것이 오해와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 ➔ 방북경험자들의 말에 따르면 북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경우 대략 80% 정도만 가능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방북하기 전에 북한용어에 대해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록 3] 남북한 생활용어 비교 참조]

2 방북활동 중의 유의사항

가. 호칭 문제

이름이나 직책 뒤에 일반적으로 선생을 붙여 호칭하는 것이 무난하다. 여자 접대원일 경우 우리 식대로 미스○, 아가씨라는 호칭은 사용하면 안되고 ○양, 아주머니, ○○○씨 등으로 부른다. 북측 최고지도자인 김정일에 대해서는 “귀측 국방위원장” 등 객관적인 명칭으로 호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북한에서 노인을 흔히 늙은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노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닌, 일상적인 용어이므로 방문자들이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 또한 북측에서 흔히 사용하는 “일없습니다”는 “괜찮다”는 뜻인데 방문자들이 처음에는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나. 만수대와 만경대에서

순안공항에서 숙소로 바로 이동할 때 만수대와 만경대를 들르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만수대와 만경대는 북한사람들이 매

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다. 만수대에는 김일성의 동상이 있는데 이 곳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렀다가 가는 곳으로 꽃을 준비하여 동상 앞에 놓고 묵념을 하게 된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지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처하면 된다.

다음으로 들르게 되는 곳이 만경대(북한 사람들은 만경대 고향집이라고 부름)다. 이곳은 김일성 주석의 생가가 있는 곳으로 만수대와 더불어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로 방문하는 곳이다.

다. 숙소에서

(1) 호텔에 있는 동안 안내원에게 아무 이야기 없이 밖으로 가는 등의 불필요한 행위를 자제한다. 이 경우 호텔 종업원이 담당 안내에게 연락을 하게 한다. 일부 호텔을 제외하고는 혼자 활동하는 것은 호텔 내에서만 가능하다.

(2) 다른 방에 있는 일행에게 전화 연락이 가능하다. 그러나 통상적인 연락이나 대화 외의 업무적인 이야기는 전화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도나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불필요한 대화를 삼가는 것이 좋다.

(3) 장시간 호텔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은 반드시 잠금장치가 있는 가방에 보관한다.

(4) TV를 시청하는 도중 김일성 주석 부자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안내원이 없다고 큰소리로 비난하지 않도록 한다.

북한상식

표준말(문화어)

남한에서는 표준말을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표준말 대신 문화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 백과사전은 문화어를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세련되고 주체성있게 발전한 우리 민족어의 전형'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일성 주석은 1966년 5월 북한주민들이 혁명의 수도인 평양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는 평양말을 기준으로 한 문화어를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이른바 '주체의 언어이론'을 제시하면서 문화어는 서울말에 비할 바 없이 우월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바둑

북한은 종래 바둑을 부유층의 오락으로 배척했으나 1980년대 말부터 어린이의 지능을 높여 주고 노인들의 노쇠현상을 없애주는 뇌수 경기(두뇌 스포츠)로 선전하면서 장려하고 있다.

최근 각급 학교와 기업소 등에 바둑소조(그룹)를 조직하는 한편 시도별로 청소년 바둑 교실을 운영하는 등 바둑보급에 힘쓰고 있다. 1994년부터는 유망주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전국 소년바둑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고, 우리의 전국 아마 국수전에 해당하는 전국 바둑대회도 매년 열고 있다.

북한은 컴퓨터바둑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1995년 은별 컴퓨터기술무역센터가 설립된 후 바둑·장기·체스 등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라. 식사나 술자리에서

(1) 안내원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필요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자주 보게 되는 접대원 등과도 실수나 부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안내원에게 대부분 전달된다고 볼 수 있다.

(2) 북쪽에서는 만찬시 여러 종류의 술을 놓는 경우가 많다. 보통 술의 알콜 도수가 높으므로 자기 주량을 감안하여 마시며 술로 인해 불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북쪽은 술을 마실 때 일반적으로 첨잔을 하므로 술을 다 마시지 않아도 중간 중간에 술을 따라주는 경우가 많다.

(3) 특히 외부 식당에서 식사할 경우 일반 주민과 직접 접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행동으로 안내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자제한다. 더욱이 외부에서 술을 마실 경우 본인의 주량을 감안하여 되도록 술을 절제하는 것이 좋다. 과음을 하면 숙소에서처럼 바로 휴식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 오락시설에서

호텔 바나 기타 시설에서 안내원들과 술을 마시거나 어울릴 경우와 같이 사적으로 있는 시간이어도 마음에 있는 이야기나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이런 자리에서 정치적인 화제나 민감한 사안 및 사업적인 논의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재미없는 업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는 식으로 화제를 돌리거나 “정치적인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로 민감한 주제를 피한다.



알아두기

방북 중의 음주

방북 기간 중 불미스런 일은 많은 경우 술로 인한 것이다. 술을 마시고 김일성 부자를 비방하는 등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가라오케에서 여성 의례원을 희롱하는 경우 서로가 깊은 상처를 받게 된다. 사업 수행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식사나 술자리에서 자신의 주량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특히 일행 중 술이 약해서 취한 사람이 있으면 숙소로 데려가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취중에 불필요한 말을 하여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을 지양하도록 한다.

바. 상점·호텔 등에서 돈을 지불할 때

(1)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의 가격보다 고액의 돈을 지불하지 말고, 잔돈을 사용하여 가지고 있는 잔돈의 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

(2) 보통 상점이나 백화점 등에서는 돈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계산소에서 전표를 받아와 그 전표를 매대에 주고 물건을 받는다.

(3) 필요 이상의 금액이 청구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영수증을 품목별로 달라고 하여 계산을 해 본다. 혹시 계산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가볍게 “계산이야 누구

나 실수할 수 있지요.”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4) 숙박비용이나 호텔에서서의 기타 비용은 보통 나오기 전날 계산을 하는 것이 편하고, 중간에 대략의 비용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숙소에서의 요금지불은 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최종 계산을 확인하는 데 쉽고 오해의 소지가 없다.

(5) 북한의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같은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부분 빈 종이에 금액을 적고 상점이나 상호의 도장을 찍는다. 영수증이 다소 엉성해도 도장이 있어야 제 구실을 할 수 있다.

➔ 남한에서는 영수증에 품목별 금액이 적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북한에서는 총액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므로 품목별 명세가 필요하면 이야기를 해서 받아야 한다.

사. 차 안에서

(1) 승용차나 버스로 이동할 경우 안내원과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불필요한 화제로 안내원을 자극하지 않도록 한다.

(2) 차가 정지했을 때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말을 걸거나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창문을 열고 밖의 공기를 마시거나 차안에서의 흡연 등 편안한 휴식은 무방하다.

(3) 안내원의 사전 양해없이 사진 촬영이나 비디오 촬영을 하는 일은 삼가도록 한다. 평양 외부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특히

군사시설물로 보이는 건물이나 사람들을 촬영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임을 유념한다.

(4) 대부분의 차량에는 휴지통이 있으므로 담배재나 휴지 등을 밖으로 던지지 않도록 한다. 가끔씩 어린이들에게 음식물을 몰래 건네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생각 이상으로 자존심이 강하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북한상식

북한상식

운전면허

북한에서는 철저하게 당의 인력 수급 계획에 따라 운전원을 양성한다. 때문에 일종의 선택받은 사람만 운전원이 될 수 있다. 운전원이 되는 길은 직장에서 선발되어 정규 교육과정을 밟거나, 조수 역할을 하다가 운 좋게 기회를 잡는 경우가 있다.

면허는 1급부터 4급까지로 구분된다. 1급 자격은 어떤 차종이든 운전이 가능하고 자동차 정비에도 능한 사람에게 주어지며, 2급은 승용차를 비롯한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어야 딸 수 있다. 3급은 2.5톤급 화물차와 버스 및 지프차를 운전하고, 4급은 5톤 이하의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따려면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우선 사상 시험의 관문부터 통과해야 하고, 둘째로 자동차 구조와 수리 작업과 교통법규를 완전히 암송해야 하며, 셋째로 주행 및 수리에 대한 실기 시험을 치른다. 현재 북한에서 200명 중 1명꼴로 운전면허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한다.

아. 사진 및 비디오 촬영

(1) 사진 촬영

- 사진을 촬영하고자 할 경우 촬영 전에 안내원과 협의한다. 촬영을 하더라도 북한사람, 특히 거리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모습들을 촬영하는 것은 피한다.
- 방문목적 이외의 건물을 촬영하는 경우는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군사시설물은 촬영하지 않도록 한다.
- 북한 내에서 촬영한 필름은 현지에서 인화한다. 현상하지 않은 필름이 있을 경우 공항에서 압수조치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 공항에서 적발되었을 경우 현상되지 않은 필름이 있었는지 물렸다고 해명하거나 현지의 안내원에게 맡긴 후 다음 번 방문할 때 다른 인편을 통해서 찾는 방법을 강구한다.
- 북한에서 체류시 촬영한 필름은 안내원에게 맡겨 사진을 인화한다. 이때 촬영한 필름을 돌려싸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 사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나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사업상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필름의 삭제를 미리 막는 것이 좋다.
- 북한의 선전문구나 김일성 주석 또는 김정일 위원장과 관련된 동상, 사진 등을 필름에 담지 않도록 한다. 이 부

분이 배경으로 들어가 간혹 잘려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사진을 인화하지 않고 삭제하도록 한다.

(2) 비디오 촬영

- 사진 촬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 안내원이나 관련자를 근접 촬영하거나 사전 양해없이 촬영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안내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지워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안내원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안내원의 성격을 파악하여 촬영의 범위를 조절한다.
- 사진 촬영과는 다르게 비디오 촬영은 연속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촬영의 의도와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기 쉬우므로 안내원이 문제를 삼을 경우는 “본인은 촬영한 적이 없는데 이 부분이 왜 들어갔지.”라는 식으로 답변하여 상대방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알아두기

필름 및 카메라용 건전지의 구입

필름은 인천공항에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북한 체류시 필요할 경우는 호텔 내 상점이나 백화점에서 살 수 있다.

카메라에 사용하는 건전지의 경우도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자. 안내원과의 관계

(1)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안내원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방문의 목적이 영리적인 것이든 비영리적인 것이든 안내원과의 관계는 사업 당사자와의 관계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2) 안내원을 호칭할 때는 “안내선생”, “OO선생” 등으로 부르는 것이 무난하다.

(3) 안내원이라 하여 단순히 안내를 담당하기보다는 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단순히 안내라는 생각으로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4) 사업상 혹은 기타의 목적으로 어디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는 미리 안내원과 상의하여 행동하는 것이 좋다.

(5) 안내원이 꼭 한사람만 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방문 단체를 인솔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행동을 같이 한다. 한 사람이 방문을 하여도 두 사람의 안내원이 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 한 안내원과만 대화하기보다는 항상 두 사람에게 모든 것을 논의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안내원 사이에는 명확한 위계질서가 있어서 일정, 요구사항 등의 공식적인 사항은 안내책임자와 해야 한다. 남측 단장을 안내하는 사람이 최고 책임자라고 보면 된다.

(6) 대부분의 방북자들이 안내원들의 소속이나 임무를 매우 궁금해 한다. 그들이 소개하는 소속 외에 진짜 소속이 어디인지,

어떤 임무를 띠고 대표단을 대하는지 질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이러한 불필요한 질문은 삼가한다.

또한 안내원들에게 현금 등을 주며, 친척 상봉 등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것은 본래 방북 목적과 다르므로 단체의 실무진과 먼저 상의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인 부탁은 성사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알아두기

안내원과의 대화요령

- ▶ 안내원은 일반적으로 남한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만나 보았기 때문에 대부분 남한의 일반적인 실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화에 임해야 한다.
- ▶ 가족 생활에 대한 깊은 질문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 대화 중에 가장 흔한 주제가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언제 결혼하였느냐?”, “아이가 몇 명이나?”, “형제가 어떻게 되느냐?” 등의 일반적인 가족 이야기는 무방하나, 경제적인 측면과 연관되는 질문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집에 OO은 있느냐?”, “한 달에 월급은 얼마냐?”,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사느냐?” 등)
- ▶ 남한과의 비교, 특히 남한이 우월하다고 생각하여 경제적인 비교나 우위를 이야기하여 안내원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 ▶ 불필요한 논쟁은 피해야 한다. 안내원과는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쉽게 친해질 수 있다. 그러나 안내원이 정치적인 문제 등 사업과는 무관한 이야기를 물어볼 때는 별

로 관심이 없으며 그런 방면에는 아는 것이 없다고 회피하는 것이 좋다. 안내원이 그런 것도 모를 수 있느냐고 무시하는 투로 말을 해와도 별 반응 없이 회피하는 것이 좋다. 정치적인 논쟁 등은 아무리 많은 대화를 하여도 서로의 의견만 확인할 뿐 필요 이상의 대화는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쉽기 때문이다.

- ▶ 안내원들이 방문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물어 보지 않고 같이 간 일행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업무적인 범위에서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주 그 분야에서는 일을 잘 한다는 일상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좋으며, 계속해서 학력이나 경력관계 등에 대해서 물어볼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본인에게 물어보시지요”라고 답변하는 것이 무난하다. 특히 이러한 대화는 사적인 자리나 술자리 등에서 오고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술을 마실 때 항시 자기 주량을 관리하도록 한다.

북한상식

북한상식

아이들의 놀이문화

남자 아이들은 진지점령하기, 군기빼앗기 등 군사훈련을 흉내낸 놀이와 술래를 정하는 다리뛰어넘기, 말타기, 소타기, 땅따먹기를 하면서 논다. 여자아이들은 고무줄놀이, 자갈잡기(공기놀이), 아바이놀이(숨박꼭질), 실놀이가 인기가 있다.

간부계층이나 부유층 아이들은 학생소년궁전이나 문화회관에서 컴퓨터게임을 즐기는데, 망나니처럼 뛰어 다니는 공을 채로 쳐서 잡아 가두는 망나니공, 울타리안의 용을 화살로 쏘는 게임 등이 있다.

3 대규모 방북시 유의사항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대규모 인원이 함께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 경우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 기획자나 방북단의 구성원은 소규모의 개별적인 방북의 경우보다 신경쓸 일이 많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규모 방북의 경우 대부분 연대 행사이며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대규모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참가자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실무진의 안내에 따라주는 미덕을 갖도록 한다.

② 실무진에서도 가급적 모든 사항을 문서로 정리해서 미리 참가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일정표 등을 세심하게 준비한다.

③ 북한에서는 복사물을 만들어 즉석에서 나누어 줄 수가 없고, 참가자 상호간의 연락이 쉽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에 대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④ 대규모 방북단의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되는 사람들은 그냥 피동적으로 따라만 갈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 정보를 정리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보고 남는 것이 많은 방북활동이 될 것이다.

⑤ 대규모 방북단으로 방북하게 되는 경우 개별 행동을 최대

한 자제해야 한다. 뜻하지 않은 마찰과 불상사의 예방뿐만 아니라 일정의 원활한 소화를 위해서도 그러하다. 특히 대규모 방북의 경우 시간이 모자라서 일부 일정을 취소하거나 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별 요구를 앞세운다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⑥ 대규모 방북의 경우 남측의 실무진 뿐 아니라 북측의 안내원들도 무슨 사고라도 날까 예민하게 신경을 쓰게 된다. 조별 행동시 개인 의견을 앞세우기보다는 함께 움직이도록 하고 불필요한 요구로 협조적 분위기를 깨지 않도록 한다.

⑦ 대규모 방북 시 백두산에 가기도 하는데 위험하다는 북한 안내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찍기 위해 높은 곳으로 올라가거나, 환경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한다.

➔ 특히 백두산 방문이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평상시 옷차림보다 한 계절 정도 추운 날씨를 예상하여 두터운 옷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⑧ 대규모 방북 시 저녁 식사 후에는 대부분 개별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단체 실무진이 부탁한 사항은 항상 지켜주고, 저녁 시간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안내원들에게 무리한 부탁(친척 상봉 등)을 하거나 북한을 비하하는 언사를 하지 않도록 한다.



북한방문 마무리

1. 귀환 준비 / 169



2. 북한방문 마무리 / 171



1 귀환 준비

가. 방북활동의 정리·평가

북한에서의 일정을 원만하게 마치게 되면 귀환을 준비하게 된다. 그동안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남북한간 상호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쌓여가고 있다. 그러나 남과 북 사이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이질성과 극복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을 떠나기 전 북한방문 일정을 정리하고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혹 북한 측과 작은 오해나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면 귀환하기 전 대화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번 방북 활동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도 그러하려니와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해 가는 하나하나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이다.

나. 귀환시 유의할 점

(1) 발권 및 수하물 부치기

공항 1층에서 입출국수속표와 세관신고서를 작성한다. 국문과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 것이나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우선 수하물 검사대(X-Ray)에 짐을 통과시키고 비행기 좌석표와 부친 화물(부친 짐짝)의 수하물표를 받는다. 개인화물(손에 든 짐짝)은 수에 따라서 객실 짐표를 주는데 개인 수하물에 부착하면 된다. 북경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에 입국 국내

항공권을 제시하면 수하물을 인천공항으로 직접 부칠 수 있어 북경에서 짐을 찾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 ➔ 순안공항에서 10유로의 출국세를 내야 한다. 또한 수하물검사 시 체류기간 동안에 구입한 물건(기념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영수증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

(2) 환전

국제적으로 북한 돈은 환전이 곤란하므로 북한을 떠나기 전 공항에서 반드시 환전을 하여야 한다. 고액을 환전할 때는 입국 때 환전한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 ➔ 체류기간 중 지니게 된 소액의 북한 돈은 현지 체류 중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출국시 소지가 확인되면 압수 조치를 받게 되며 국내 입국 시에도 문제가 된다.

(3) 면세점 이용

2층에 면세점이 있다. 북한산 술을 기념으로 한 병 정도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제적인 공항의 면세점과는 달리 조그만 판매대(판매점)가 하나 있을 뿐이어서 여러가지 물건을 판매하지는 않는다.

2층 출국장 옆에 음료나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당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이 곳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

(4) 비행기 탑승

출국심사를 받고 금속탐지기 및 화물검사대(X-Ray)를 통과한 후 공항 측의 안내에 따라 비행기에 탑승한다. 비행기 탑승 시 일반자리표와 공무자리표의 탑승 트랩과 입구가 별도로 되어 있다.

2 북한방문 마무리

가. 북한방문증명서의 반납과 방북결과보고서 제출

북한방문 증명서는 방문을 마치고 귀환할 때 반납해야 하나, 수시방문증명서의 경우에는 증명서의 유효기간내에는 계속 소지할 수 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귀환할 경우 출입장소(남북출입사무소 등)에서 반납하고, 제3국을 경유할 경우 귀환 후 7일 이내에 통일부에 반납한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반납할 수 있다.

북한상식

북한상식

고려의학

북한은 과거 동의학이라고 불리던 전통의학을 1993년 민족 주체성을 살린다는 취지 아래 고려의학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민간요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수만 건의 민간요법을 수집·검토한 후 이 중에서 가치가 있고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된 9천여 건의 민간요법을 보건성에서 일반에 보급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평양의 고려병원 등 각급 의료기관과 의학과학 연구소, 의학대학 등에서 고려의학의 과학화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고려약의 성분, 약리작용, 치료법, 침, 뜸, 부항의 치료효과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봉한학설, 난치나이치료법, 광천요법 등을 고려의학의 연구성과로서 대외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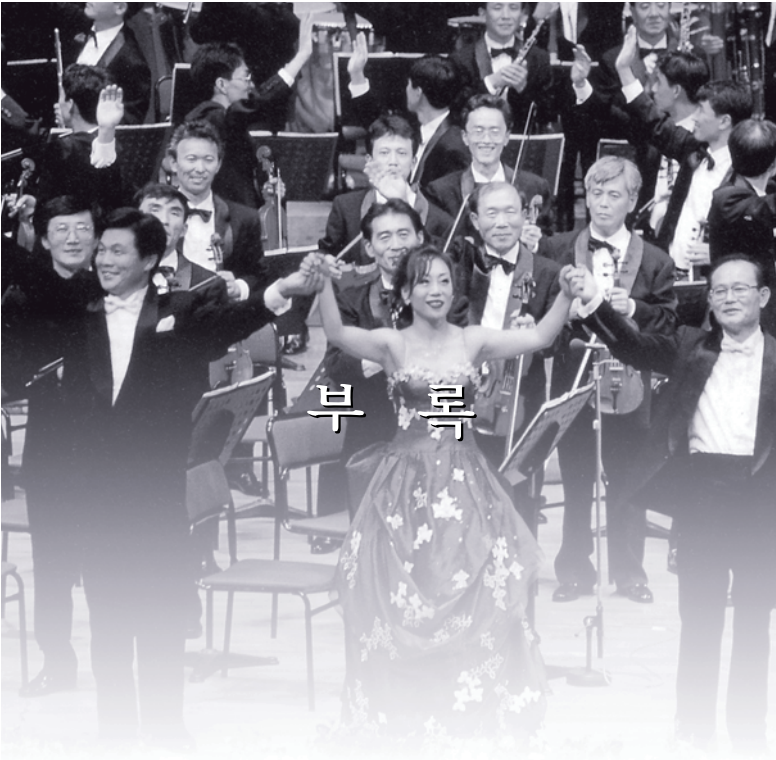
북한방문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북한방문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결과 보고는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귀환 후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방북결과보고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귀중한 자료로 활용된다. 방북단이 2명 이상일 경우 방북승인 신청을 한 단체에서 단장 등의 명의로 일괄적으로 방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북한방문증명서는 통일부에서 개인별로 발급하게 되지만 제 3국을 경유하여 북한에 들어갈 때 이 증명서를 북측에 제시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경우는 잘 지니고 있다가 귀국 후 방북결과 보고서와 같이 통일부에 제출하면 되며, 수시방문증명서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통일부에 제출한다.

나. 귀환 인사

계속적인 방북과 사업 진행을 위해 북한측 담당자에게 귀국 인사를 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적절한 방법으로 무사히 귀국하였다는 말과 북한 체류시 협조에 감사하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측과 협의하였던 내용의 결과 등으로 인사말을 전하도록 한다.





〈부록1〉 북한 지도 · 평양 시가도 / 174

〈부록2〉 북한 관련 주요 인터넷 주소 / 178

〈부록3〉 남북한 생활용어 비교 / 180

<부록 1> 북한지도 · 평양시가도





평양 시가도



서명당역

서성구역

혁신역

평수교회

봉화산

보통강구역



유경호텔

건설역

공화역

낙원영화관

지천철2호선

황금밭역

평양체육관

평양교예극장
(서커스극장)

전국역

광선선

청류관

평양유치원

청년호텔

서선도로

연산교

보통강호텔

영의대

청광산

민경대학생소년궁전

서산호텔

부흥역

지천철1호선

영광역

민경대구역

평양화학발전소

천진거리

평천구

영강호텔



평천강안거리

남포고속도로

두루섬

북섬

충성회다리

북강

평양-개성



<부록 2> 북한관련 주요 인터넷 주소

1. 정부 · 관련기관

통일부	www.unikorea.go.kr
통일부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
남북회담사료	dialogue.unikorea.go.kr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reunion.unikorea.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국가정보원	www.nis.go.k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www.acdpu.go.kr
경수로 기획단(KEDO)	www.kedo.org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otra.or.kr
대한무역협회	www.kotis.net
한국관광공사	www.knto.or.kr

2. 연구기관

통일연구원	www.kinu.or.kr
세종연구소	www.sejong.org
한국국방연구원	www.kida.re.kr
현대경제연구원	ns.hri.co.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ww.krei.re.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한국개발연구원	www.kdi.re.kr/perio

통일정책연구소	www.koreaascope.org
평화문제연구소	www.ipa.re.kr
경남대 북한대학원	ifes.kyungnam.ac.kr/gsnks-kor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www.arc.re.kr
연세대 통일연구원	suny.yonsei.ac.kr/~ikus

3. 시민운동단체

경실련 통일협회	tongil.ccej.or.kr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www.kcrc.or.kr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www.ksm.or.kr
굿 네이버스	www.goodneighbors.org
좋은 벗들	www.jungto.org
남북나눔운동	www.sharing.net
북한인권시민연합	www.onkhumanrights.or.kr
남북어린이 어깨동무	www.okedongmu.or.kr

4. 주요 언론 등

동아일보 통일넷	tongilnet.net
조선일보 NK조선	nk.chosun.com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nk.joins.com
한겨레신문	www.hani.co.kr
연합뉴스	www.yonhapnews.co.kr
통일정보신문	www.unityinfo.co.kr
민족21	minjog21.com
조선인터넷	www.dprk.com

<부록 3> 남북한 생활용어비교

북한말	남한말	비고
가두녀성	가정주부	
가려보다	판단하여 알아내다	
가마치	누룽지	
가무이야기	뮤지컬	
가상훈련	리허설, 시연	
가슴혜염	평영, 개구리 혜염	
가시아버지	장인	
가시집	처가	
가을 빼꾸기 소리	믿을 수 없는 헛소리	
각이하다	상이하다	
각전	거스름돈	
간고하다	난관과 시련이 많다	
간간하다	기쁘고 즐겁다	
간부사업	인사	
간이치료	응급치료	
갈구리달	초생달이나 그믐달 같이 이지러진 달	
갈람하다	가름하고 호리호리하다	
감정제대	의병제대	
감투	억울하게 뒤집어 쓰는 책임이나 누명	

북 한 말	남 한 말	비 고
값이 높다	값이 싸다	
강자대회	올스타 경기	
강좌장	학과장	
개장	보신탕	
개체	사생활	
개체머리없다	주책없다	
거의없이	틀림없이	
거푸시시하다	부시시하다	
건병	피병	
걸린 문제	현안 문제	
걸써	건성으로	
검뵤기	명암	
게사니	거위	
겨울철올림픽	동계올림픽	
격검	펜싱, 검도	
결속하다	마무리하다. 매듭짓다	
경험교환회	사례발표회	
계호원	교도관	
고기겹빵	햄버거	
고려의학(동의학)	한의학	
고뿌	컵	
고성기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유선 스피커	

북한말	남한말	비고
골살	이맛살	
곰열	웅담	
굽등어	돌고래	
공걸음	헛걸음	
공동욕탕	대중목욕탕	
공민증	주민등록증	
공장대학	산업체부설대학	
공중대고	일정한 근거나 목표도 없이 무턱대고	
과따대다	몹시 떠들어대다	
과일단물	쥬스	
교양원	유치원 교사	
교예	서커스, 곡예	
교원	교사	
교통안전원	교통경찰	
교화소	교도소	
구강과	치과	
구경표	관람표	
구름다리	육교	
구석차기	코너킥	
구매권	상품권	
구멍탄	연탄	
국가보위	국가안보	

북 한 말	남 한 말	비 고
군관	장교, 소위부터 대좌 까지의 계급을 가진 군인	
군중가요	대중가요	대중가요도 사용
군장, 속장	속면	
굴착선	준설선	
궁전	사회적 사명을 띤 훌륭한 건물	예)소년궁전, 문화궁전
규찰대	사회질서 유지대	
그루빠	그룹	
그시그시	그때그때	
그악하다	모질고 사납다	
그어당기다	끌어당기다	
극유회	이동극	
근로인테리	사무직근로자	
급양사업	급식, 식당, 밥공장 등을 통해서 음식을 공급하는 일	
기동선수	스타플레이어	
기름과자	튀김과자	
기름사탕	카라멜	
기름밥	볶음밥	
기름배	유조선	
기요	중요한 기밀	
기지떡	술떡	

북한말	남한말	비고
긴양말(여자용)	스타킹	
까딱수	요행을 바라는 얇은 수	
깜빠니아	캠페인, 운동	
까박을 붙이다	트집을 잡다	
끌신	슬리퍼	
꽝포	거짓말	
꼴(을) 먹다	남에게서 반박이나 무안을 당하다	
꿈문	자치적인 공동사회	
콤바인	콤바인, 농작물 수확을 위한 자동종합기계	
꼭돈	뇌물로 주는 돈	
꿈만해하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나들문	출입문	출입문도 사용
나리옷	원피스, 드레스	
나비해염	접영	
낙지	오징어	
난데 손님	낯선 손님	
날거리	날씨	
날래	빨리	
남비탕	찌개	
남새	채소	
남성고음	테너	

북 한 말	남 한 말	비 고
냄내다	배웅하다	배웅하다도 사용
남북머리	짱구	
남잡이	해코지, 남을 해치는 것	
내굴짚	훈제	
내민대	베란다, 발코니	
내절로	저절로, 자기 스스로 또는 자신의 힘으로	
내포국	내장탕	내장탕도 사용
널는사람	투수(야구)	
년로보장	정년퇴직	
년한가급금	호봉	
누운혜염	배영	
눅거리	값싼 물건, 내용이 없고 보잘 것 없는 것.	
눅다	싸다	
눈량	적설량	
눈치기차	제설차	
눔창	알루미늄 샷시	
능달	응달	
늦잡다	(날짜나 시간을)늦게 예정하여 잡다	
다락논	계단논	
다락밭	층이지게 만든 밭, 계단밭	

북한말	남한말	비고
다리매	각선미	
다음가다	버금가다	
다이야	타이어	
단고기	개고기	
단묵	젤리, 영양갱	
단물약	시럽	
닭곰	삼계탕	
닭공장	양계장	
닭알	계란	
담배질군	애연가	
담배칸	흡연실	
담보하다	보증하다, 보장하다, 책임지다	보증·보장하다 도 사용
당반	선반	
닷머물기	묘박, 배가 닳을 내리고 머무는 것	
대발과	단번에 많은 양의 암석이나 광물을 깨뜨리는 발파	
대중률동체조	에어로빅	
도장줍	인주	
돈기방	지갑	
돈널기	입금	
돈자리	계좌	

북 한 말	남 한 말	비 고
동약	한약	
동의사	한의사	
동의학	한의학	
동무	같은 또래 내지 아랫사람 을 부를 때 쓰는 말	
돼지발쪽	돼지족발	
되거리무역	중개무역	
두간두간	종종	
두벌농사	이모작	이모작도 사용
따로외우다	암기하다	암기하다도 사용
딱친구	절친한 친구, 단짝친구	
땅속물	지하수	
때살	살코기	
테레비통로	TV채널	
똥창물	환기창	
뚜꺼먹다	의도적으로 빠지다	
뚝박새	무뚝뚝한 사람	
뜨게부부	사실혼부부	
뜨락또르	트랙터	
뜨말	뜨소문	뜨소문도 사용
뜰힘	부력	
랭동기	냉장고	
레루	레일, 철로	

북한말	남한말	비고
렌트겐	엑스레이	
려과담배	필터담배	
력서	달력	
렬차원	승무원	승무원도 사용
령군술	용병술	
로동재해	산업재해	
로력영웅	근로영웅	
로력비	인건비	
로므니아	루마니아	
록화띠	녹화테이프	
마가을	늦가을, 만추	늦가을도 사용
마리초	직접 말아 피우는 담배	
마룩	국물	국물도 사용
마스다	일정한 대상을 부수거나 깨뜨리다	
마자르	헝가리	
막로력	아무런 기술도 가지고 있지 못한 노력,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마구 쓸 노력	
만풍년	대풍년	
말다듬기	언어순화	
말밥에 오르다	구설수에 오르다	

북 한 말	남 한 말	비 고
말째다	거북하고 불편하다	
맛내기	화학 조미료	
망탕	되는대로 마구	
맞혼인	연애결혼	연애결혼도 사용
매시시하다	나른해지다	
맵짠 추위	매서운 추위	
머리를 빨다	머리를 감다	머리를 감다도 사용
먹는 기름	식용유	
메사하다	어색하다	
메히꼬	멕시코	
모래터 배구	비치 발리볼	
모를 박다	강조하여 부각시키다	
모범출현	시범경기, 찬조공연	
모사전송기	팩시밀리	
모터찌클	오토바이	오토바이도 사용
목금(木琴)	실로폰(악기)	
몰아주다	왕따시키다	
몸간다	살빼다	
묘득	묘책, 요령	
묘준	조준	
무(겨)절임	단무지	
무더기비	폭우	
무리등	상들리에	

북한말	남한말	비고
문건심의	서류전형	
문지기	골키퍼	
문화어	표준어	
문화주택	연립주택	
물넉	물가	
물론하다	막론하다	
물스키	수상스키	
물에 뛰어들기 경기	다이빙	
물크림	스킨로션 · 화장수	
미노	소의 내장	
미누스	마이너스(minus)	
민족음악	국악	
밑자금	원금, 본전	
바쁘다	겨를이 없다, 힘들다, 어렵다	
바다물미역	해수육	
박죽	밥주걱	
발가우리하다	발그스름하다	
발전도상나라	개발도상국	
밥가마치	누룽지	
밥공장	밥을 비롯한 여러가지 주식물을 만들어서 근로자들에게 공급 하는 공장	
밥곽	도시락통	

북한말	남한말	비고
방조하다	도와주다	
방사포	로켓포	
방송원	아나운서	
방식상학(方式上學)	시범교육	
배경대(背景臺)	카드섹션	
배무이	조선(造船)	
배증	설사로 인한 배탈	
번대머리	대머리	
벌방지대	평야지대	
벌차기	프리킥(축구)	
베차다	어렵다	
벼기을	추수	
벼락촉	피뢰침	
별찌	유성(流星), 별뿔	
병력서(病歷書)	(병원)차트	
병실(兵室)	내무반, 막사	
보가지	복어	
보깨	주발 두껍	
보위색(保衛色)	국방색	
보총(步銃)	소총(小銃)	
볼웃음	미소	미소도 사용
부교장(副校長)	교감	
부대발	화전	

북한말	남한말	비고
부루	상추	
부상(副相)	차관	
부스럭돈	쓰다남은 얼마 안되는 돈, 잔돈	
부화사건	간통사건	
분숙(分宿)	민박	
분주소(分駐所)	피출소	
분크림	파운데이션	
불피코	기필코	
붙임풀	접착제	
비물딱개	자동차 와이퍼	
비통신	유비통신 불평불만을 근거로한 소문	
비행안내원	스튜어디스	
빌림값	임차료	
빙상관(氷上館)	아이스링크	
빙상호케이	아이스하키	
빛섬유 까벨	광케이블	
빨헤염	자유형	
빨스까	폴란드	
사돈 아주머니	사부인	
사민, 사회사랑	민간인	
사방미인	팔방미인	

북 한 말	남 한 말	비 고
사업(事業)	경제활동에만 한정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사용	
살결물	스킨로션	
살눈섭	속눈썹	속눈썹도 사용
살짜공	연타(배구)	
삼로술	인삼주	
삼촌어머니	작은어머니, 숙모	
삼삼하다	(태도나 마음씨가) 마음에 들게 부드럽고 사근사근하다	
상(相)	장관	
새리새리하다	아리송하다	
새없이	(말이나 행동이) 주책없고 분수없게	
색텔레비존	컬러 TV	
삼팡	삼페인	
서기(書記)	보좌관, 비서	
선전화	포스터	
선참(先站) 으로	맨 먼저	
설밥	설날 내리는 눈	
설인사	세배	
성근(誠勤) 하다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북한말	남한말	비고
세간나다	분가하다	
세계 축구선수권대회	월드컵 축구대회	
세기바루	강약(엑센트)	
세대주(世帶主)	가장(家長), 호주	
세포 비서	로동당의 최말단 조직의 책임자	
소단고기국	육개장	
소조(小組)	동아리	
소학교	초등학교	
속감	골재	
손기척	노크	노크도 사용
손전화	핸드폰, 휴대전화	
손짐	수하물	
손탁이 세다	통솔력이 강하다	
송구(送球)	핸드볼	
송아지동무	소꿉친구	
수원(隨員)	수행원	
수원지(水源池)	상수원	
수자식 사진기	디지털 사진기	
수장	손도장, 지장	
수중교예(水中巧藝)	수중발레	
수표(하다)	서명(하다)	
숙보다	업신여기다	업신여기다도사용

북 한 말	남 한 말	비 고
순간타격	스파이크(배구)	
스웨리에	스웨덴	
시뚝하다	토라지다	
시보영화	다큐멘터리	
시형(娚兄)	시아주버니, 시숙	
식수절	식목일	
신소(申訴)	민원	
아근	근방, 부근	
아글타글	온힘을 기울여 끈기 있게	
아름차다	힘에 벅차다	
아바이	나이가 지긋한 남자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	
아부재기	엄살	
안늬은이	여자 늬은이	
안해	아내	
알심있게	실속있게	
앞등	(자동차 등의) 전조등	
애군	애물, 늘 애를 먹이는 사람	
애기궁전	탁아소	
애옥살이	가난에 찌든살	
약제사(藥劑師)	약사	
양말바지	팬티스타킹	
양복치마	스커트	

북한말	남한말	비고
양산치마	주름치마	
어김돈	위약금	위약금도 사용
어슬막	황혼, 어슬어슬 해질 무렵	
얼군제품	냉동식품	
얼럭밥	잡곡밥	
얼벌벌하다	얼얼하다	
에우다	끼니를 때우다	끼니를 때우다도 사용
여름철 올림픽	하계 올림픽	
연구사(研究士)	연구원(研究員)	
연구생	대학원생	
연구원(研究院)	대학원	
연석(軟席)	기차의 상급좌석, 침대칸	
열내림약	해열제	
열스러워서	창피해서	
염장(鹽藏)무우	단무지	
영예군인	상이군인	
영화문학	시나리오	
예비곡	비축미, 비축양식	
예술소조(小組)	예술분야의 동아리	
예술체조	리듬체조	
오그랑수	속임수	속임수도 사용
오돌차다	아무지다	아무지다도 사용
오레미	올케	

북 한 말	남 한 말	비 고
오유	오류	
오작(誤作)	불량제품, 부실공사	
옥쌀	옥수수가루와 밀가루를 한데 섞어서 만든 쌀	
옥파	양파	
온반(溫飯)	장국밥의 일종	
올방자를 틀다	책상다리를 하고 앉다	
왈렌끼	롱 부츠	
왕가물	극심한 가뭄	
외교관계 설정	수교(修交)	
어로공	어부	
외투저고리	점퍼	
외화상점	외화로 물건사는 상점	
요청 음악회	열린 음악회	
우결함(優缺陷)(우단점)	장단점	장단점도 사용
우등불	한데서 추위를 막기 위하여 나무토막이나 떨어뜨린 것을 쌓아 놓고 피우는 불	
우편 통신원	집배원	
우편국	우체국	
웅심깊다	웅숭깊다, (생각, 뜻, 사랑 같은 것이) 매우 넓고도 깊다	
원주필	볼펜	

북한말	남한말	비고
웡드리아	헝가리	
위생대(衛生帶)	생리대	
위생실	화장실	
위생저	1회용 나무젓가락	
위생종이	화장지	
위생차	구급차	
유람빠스	관광버스	
유보도(遊步道)	산책로	
유술	유도	
유일가격	협정가격	
은(을) 내다	일이나 행동에 보람을 거두다	
은행경제사	은행원	
음악 무용극	뮤지컬	
의거자	귀순자	
이발쑤시개	요지	
이밥	쌀밥	
이신작칙(以身作則)	술선수범	
이악하다	끈덕지고 강하다	
인물심사	면접	
인민(人民)	국민	
인민반(人民班)	주민 관리 통제를 위해 20~40가구를 단위로 묶은 행정 최말단 조직	

북 한 말	남 한 말	비 고
인민 소비품	생활 필수품	
인차	이내, 곧	
일동무	일벗, 서로 함께 일하는 벗	
일떠서다	힘차게 일어나다	
일마당	어떤 일이 벌어지는 사회적인 활동분야	
일머리	일의 결과나 보람	
일무리	손님치르기	
일본새	일하는 태도	
일없다	관찮다	
일일 로동비	일당	
일참	일을 하다가 쉬는 참	
일호(一號) 행사	수령이 참가하는 행사	
입벌이	먹기 위한 벌이	
입사증(入舍證)	주택사용 허가증서	
입쌀밥	흰쌀밥	
잇음증	건망증	건망증도 사용
자가생(自家生)	자기 집에서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자동 밥가마	전기 밥솥	
자비로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신심	자신감	
자연부원	천연자원	

북한말	남한말	비고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를 무원칙하게 내세우며 조직생활과 조직 규율을 싫어하고 자기마음 대로 행동하려는 사상과 태도	
자체수양	자기수양	
작간(作奸)	농간	
작식(作食)	식사를 마련하는 것 또는 그 일	
작풍(作風)	매너	
잡탕말	외래어가 뒤섞인 말	
장달음	줄달음, 단숨에 냅다 달음박질치는 것	
장창	언제나 늘 줄곧	
재봉기	미싱	
쟁개비	냄비	
저금소	은행의 출장소	
전기종	초인종, 벨	
전기신호관	전광판	
전기여닫개	전기 스위치	
전기잇개	계전기	
전기장식	전기 사인, 네온사인	
전망식당	스카이 라운지	
전실(前室)	거실	
전탕	온통	

북 한 말	남 한 말	비 고
접대실	응접실	
접대원	여관, 식당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사람	
정거대	제동장치, 브레이크(brake)	
정무원(政務員)	공무원	
정성(精誠)작업	수령의 초상화, 동상을 청소하는 작업	
정양소	휴양소	
제가다리	제각기, 제멋대로	
제강(提綱)	강연초안, 강의초안	
제김에	혼자서 저절로	
제3방송	유선으로 연결된 북한주민 들만 청취할 수 있는 방송	
제1중학교	영재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6년제 중고등학교	
조국해방전쟁	6·25전쟁	
조기다	훈을 내다	
조동(調動) 되다	전직되다	
조선식 건물	한옥	
조선옷	한복	
조선음식	한식(韓食)	
조선화	동양화	
조향륜	핸들(handle), 방향손잡이	

북한말	남한말	비고
존함시계	김일성 주석의 이름이 씩어 있는 손목시계	
종이 끼우개	바인더, 클립	
종합선수단	국가대표팀	
주견머리	고집스럽게 내세우는 자기의 주장이나 견해	
주근살	주름살	
주머니종	무선호출기, 삐삐	
주패(主牌)	트럼프, 카드놀이	
준의(準醫)	레지던트	
줄섬	열도	
중간방어수	미드필드(축구)	
증견자	증인	증인도 사용
지은옷	기성복	
지지개	찌개	
지짐판	프라이팬	
지하족	발목까지 올라가는 신발 (예: 군대지하족, 노동자지하족)	
직관물	눈으로 직접 보고 알며 느낄 수 있는 속도, 벽보, 구호, 그림, 사진, 도표 등	
직승기	헬리콥터	
직일근무	당직근무	

북 한 말	남 한 말	비 고
직장세대	맞벌이가정	
직통배기	숨김없이 본대로, 느낀대로 말하는 사람	
직포공장	방직공장	방직공장도 사용
집단등교	학급별 단체 등교	
집단체조	매스게임	
집안거두매	집안일	
집체학습	집단 자율학습	
짜고들다	철저하게 준비하다	
짜포	일본에서 온 교포들에 대한 낮춘말	
쪽잠	단잠	단잠도 사용
쪽내다	단숨에 들이키다, 원샷하다	
찐게	반찬	
차굴	터널	
차단소	검문소	
차레지다	일정한 몫이 배당되다	
차요시하다	부차시하다	
찬단물	찬물에 설탕이나 사카린 을 넣은 것	
창가림	커튼	커튼도 사용
창발성	창의성	창의성도 사용
채심하다	명심하다. 각성하다	

북한말	남한말	비고
책뚜껑	책의 겉표지	
책벌	문책	
책임연출	감독	
청소하다	역사가 짧다, 경험이 적다	
체화품	재고품	
초대소	영빈관	
초모	모병	
초상휘장	수령의 초상 배지	
총정으로	총체적으로	
출생증	미성년 주민등록증	
충성동, 효자동	수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청소년	
칼파스	소시지	
캄보차	캄보디아	
콩우유	두유	
큰물	홍수	홍수도 사용
탐오랑비	국가, 사회재산의 불법착복	
태공하다	태만하다	
테제	주제	
토이기	터키	
통로	채널(TV)	
퇴매하다	알뜰고 재수없다	

북 한 말	남 한 말	비 고
특각	안가	
판가리	판가름	판가름도 사용
포전	논밭	논밭도 사용
풀거름	퇴비	퇴비도 사용
학사	석사	
허심하다	솔직하다	
헐하다	쉽다	
혁명가요	항일 유격대원들이 불렀던 노래	
현지교시판	수령의 현지교시를 새긴 판	
현지지도	수령이 현지에 내려가서 하는 지도	
혈형(피형)	혈액형	혈액형도 사용
호상간	상호간	
호위(성)원	경호원	
활쏘기	양궁	
황색바람	제국주의 · 자본주의 사상의 침투	
후과	결과	
후방가족	군인가족	
휴식일	공휴일	
흠어진 가족	이산가족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최종수정판〉

북한방문 길라잡이

초 판 : 2000년 11월 18일 발행

개정판 : 2002년 12월 27일 발행

수정판 : 2004년 7월 19일 발행

수정 2 판 : 2004년 11월 22일 발행

최종수정판 : 2005년 5월 2일 발행

발행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142-715,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02)901-7160~2, 팩스 02)901-7088

편집·인쇄 : 맑은인쇄 (전화 02-2265-7896)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